

ダンテの審判

* 원작자인 すすす님이 배포하신 로고

원문 : <https://booth.pm/en/items/3236885>

단테의 심판

🍷 어떤 유고(遺稿)에 관한 이야기.

2021 / 11 / 1 (고전의 날) 공개했습니다.

시나리오 개요

| 시스템 : CoC 6판 (7판 개변 가능) - 번역은 7판을 기준으로.

| 인원 수 : 3 PL (플레이어 개인의 비밀 핸드아웃 없음)

| 시간 : 지옥편 (3시간), 연옥편 (6시간), 천국편 (3시간)

* 플레이 타임은 보이스 세션 기준

| 무대 : 현대 일본, 도쿄

| 로스트 확률 : 높음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연속 탐사자로 로스트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에 도전해보고 싶다
- 정보량이 많은 시나리오가 좋다
- 탐사자의 사생관에 대해 파고들어보고 싶다
- 단테의 「신곡」에 관심이 있다

주의사항

◆ 본 시나리오에는 이하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신화 생물에 대한 독자적 해석
- 그로테스크, 잔혹한 묘사
- 탐사자의 윤리를 묻는 장면

또한, CoC라는 장르의 특성상 【입원 환자의 연속실종사건】에서 기분 나쁜 예감이 든 분 (실제로 트라우마가 있는 분 등)에게는 열람 / 플레이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 금지 사항

- 무단 전재, 자작 발언
- 공개적인 곳에서 스포일러를 하는 행위
(기믹, 등장 신화 생물, NPC의 특징 등)
- END의 추가
- 금전이 발생하는 행위 (키퍼링 커미션 포함)

단테의 친필 원고는 일체 남아있지 않다.

한편으로, 필사된 「신곡」의 중세 사본 중 현존하는 것은 600 종류를 넘는다고 한다.

이것은, 성서에 버금가는 사본 수다.

이 작품은 픽션이며, 실재하는 인물·단체·사건과는 일절 관계가 없습니다.

이 작품은, 「주식회사 아크라이트」 및 「주식회사 KADOKAWA」가 권리를 가진 『크툴루 신화 TRPG』 시리즈의 2차 창작물입니다.

Call of Cthulhu is copyright ©1981, 2015, 2019 by Chaosium Inc. ;all rights reserved.

Arranged by Arclight Inc.

Call of Cthulhu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Chaosium Inc.

PUBLISHED BY KADOKAWA CORPORATION 「クトゥルフ神話TRPG」 「新クトゥルフ神話 TRPG」

【CoC】「ダンテの審判」

w. すずす

원문: <https://booth.pm/en/items/3236885>

안녕하세요, 초양이라고 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시나리오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며, すずす님께서 작성하신 CoC 시나리오 「단테의 심판」을 한국어로 번역 및 배포합니다.

260702에 라이터 님께 DM으로 따로 번역 허가 문의를 드린 바 있고, 이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はじめまして、すずすと申します。
この度はメッセージ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ダンテの審判」を韓国の方にもご紹介してくださるとのこと、とても嬉しく思います。
すでに挙げていただいた通り、

- ・原作者とBoothのリンクを記載すること
- ・金銭が発生しないこと

上記に気をつけていただければ問題ありません。

また、原文通りだと不自然・不都合な描写等があると思います。そちらは適宜改変していただいて構いません。
他にも必要な資料・データがあれば、遠慮なくお知らせください。

허가문 번역:

안녕하세요, すずす라고 합니다.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테의 심판」을 한국 분들에게도 소개해주신다니 정말 기쁩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 원작자와 Booth 링크를 기재할 것
- 금전이 발생하지 않을 것

위 사항을 지켜주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또한, 원문대로라면 부자연스럽거나 맞지 않는 묘사 등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적절히 개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외에도 필요한 자료·데이터가 있다면, 부담없이 말씀해주세요.

해당 번역본 역시 **すすす**님의 시나리오 규약을 따르며, 이에 따라 **후술할 금지 사항 및 키퍼링 커미션·시나리오 관련 자료의 유료 배포 등은 금지**됩니다. 번역본에 대한 문의는 @ [murito](#) 계정의 DM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역 등이 있을 경우 문의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이용 규약 (<https://www.pixiv.net/novel/show.php?id=22232046>)

◆ 시작하며

·가지고 계신 시나리오가 최신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금지사항

·무단 전재, 자작 발언, 재배포
트레일러 이미지의 전재도 지양해주세요.

·공개된 장소에서 스포일러를 작성하는 행위
등장 신화생물, 기믹, 비공개 NPC의 이름, 감소 이성치 등을 포함합니다.

·사망 확정 NPC의 생존

- 금전이 발생하는 행위
키퍼링 커미션 등도 포함됩니다.

- AI 학습, AI를 사용한 시나리오 해석 - 번역은 일절 AI를 사용하지 않고 이루어졌음을 명시합니다.

◆ 지뢰 및 민감 요소에 대해

시나리오 중에는 소위 말하는 「PL의 지뢰, 민감 요소」를 많이 포함한 것들이 있습니다.
KP는 상황에 따라, PL과 상담하여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포일러가 없는 시나리오 체험보다, 「참가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우선해주세요.

◆ 개변에 대해

- 시나리오의 본질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PC의 추천 직업, NPC의 프로필, 7판 컨버트 등 자유롭게 해주세요.

- 개변한 부분은 반드시 PL에게 고지해주세요.

◆ 서치 방지에 대해

시나리오 중에는 기존의 문학 작품이나 실존 인물을 모티프로 한 것들이 있습니다.
작품명이나 인명을 그대로 SNS에 투고하는 것은 검색 오염으로 이어집니다.
고유 명사를 이미지 내에 넣거나, 후세터를 쓰거나, 쿼션 기능이 있는 외부 툴을 이용하는 등 서치 방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리플레이 영상, 로그 백업, 2차 창작에 대해

위 사항을 준수해주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NPC를 데리고 가 탐사자화 하는 등의 행위도 자유롭게 해주세요. (스포일러에는 주의해주세요.)

- - - - -

어지간히 이상한 방식으로 플레이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신경쓰지 않습니다.
사이좋게, 즐겁게 플레이 해주세요!

0_단테 개요 탭의 3페이지까지는 공개 정보이며, 4페이지부터의 내용 및 그 아래의 탭들은 모두
스포일러입니다.

단테 알리기에리 사후 700년

CoC 「단테의 심판」

—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단테 「신곡」 지옥편 제3곡

■ 개요

인원 수 : 3 PL (비밀 핸드아웃 없음, 연속 탐사자 가능)

무대 : 현대 일본 (도쿄), 시티

시간 : 보이스 세션으로 지옥편 3시간, 연옥편 6시간, 천국편 3시간

추천 기능 : 자료조사, 회피

굴릴 곳이 있음 : 의료, 심리학

로스트 가능성 : 높음

■ 각 PC 도입 (공개 핸드아웃)

PC 1 형사 / 공안 / 경찰 관계자 등

도쿄 도에서 다발하는 「입원 환자 연속실종사건」의 수사를 행한다.

PC 2 탐정 / 심부름 센터(*何でも屋) 등

가출한 여동생의 수색을 의뢰받는다. 청년이 말하길, 뒷골목에는 흡혈귀가 살고 있다.

PC 3 직업 자유

길가에서 만난 소녀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은, 보티첼리의 「지옥의 지도」였다.

※ PC 1은 「입원 환자 연속실종사건의 수사에 연관된다」, PC 2는 「의뢰를 받는 입장에 있다」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공개 핸드아웃 이외의 직업이어도 문제 없음.

※ 개별 도입부터 합류하기 때문에, PC 1은 다른 PC 중 적어도 한 명과 안면이 있는 편이 좋다.

■ 공개 NPC

경찰 관계자밖에 들어갈 수 없는 탐색 장소가 존재하는데, 이하의 인물과 지인 혹은 친구 관계라면 연줄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

(보충 설명 : 설정에 따라 PC 2, PC 3도 사건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관계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친척, 연인 관계도 문제 없습니다.)

▶ 니노미야 쉰 (二宮 俊)

크기 70 외모 70 남성

형사이자 PC 1의 지인.

밝고 불임성 있는 성격의 무드 메이커. 정의감이 강하다.

PC 1을 여러모로 신경쓰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말을 걸거나 서포트 하며 따르고 있다.

PC 1과 동일하게 실종 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탐색에 막히면 그에게 연락을 취해보면 좋을지도 모른다. 디폴트는 28세.

▶ 시도 유키 (祠堂 由希)

크기 60 외모 75 남성

도내 대병원에 소속된 베테랑 법의학자. 경찰이 검시나 사법 해부를 맡긴다.

연령 미상, 종잡을 수 없는 성격과 미스테리어스한 분위기 탓에 ‘괴짜’로 유명하지만, 의학적 지식과 날카로운 관찰안은 매우 뛰어나다.

의지되는 인물이긴 하므로, 탐색에 막힌다면 그에게 연락을 취해보는 것도 좋을지도 모른다.

■ PL용 주의 사항

본 시나리에는 이하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신화 생물에 대한 독자적 해석
- 그로테스크, 잔혹한 묘사
- 탐사자의 윤리를 묻는 장면

또한, CoC라는 장르의 특성상 【입원 환자의 연속 실종 사건】에서 기분 나쁜 예감이 든 분 (실제로 트라우마가 있는 분 등)에게는 열람 / 플레이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 다음 페이지부터 시나리오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 시나리오 배경

기원 전의 고대 로마. 토스카나 지방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숨마누스》는, 뇌신 유피테르와의 싸움에서 신성의 대부분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속세(인간계)에서 방랑하게 된다. 어떤 때는 위정자, 어떤 때는 음악가, 어떤 때는 사모스의 현인 피타고라스로서 시대를 정관(靜觀)하고, 둘도 없는 친구인 단테 알리기에리를 얻는다.

14세기. 시인이자 마술사였던 단테는,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서 가져온 「르뤼에 문서」의 이탈리아어 번역에 종사한다. 이탈리아어판 「르뤼에 문서」는 사본이라는 과정을 거쳐 황제 나폴레옹의 손에 들어가고, 한편으로 「르뤼에 문서」를 필사한 것은 「신곡」의 「최후의 13곡」과 함께 친우 《숨마누스》에게 맡겨진다.

단테의 사후에도 방랑을 계속했던 《숨마누스》였으나 이윽고 기억과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잠든다.

현대. 이탈리아어판 「르뤼에 문서」를 입수한 「구생회(九生会)」는 세계를 혼돈에 빠트려 막대한 이익을 획득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일을 꾸미고 있었다. 신흥 종교 집단을 모체로 신자를 모아 세계에 7개 장소에 존재하는 거대한 비석(로맹의 「지옥의 문」)을 매개로 한 《시노소글리스》의 강령을 펴하고 있다.

강령 직전. 《시노소글리스》의 기척을 감지한 《숨마누스》는 긴 잠에서 깨어나, 단테의 유고(遺稿)와 함께 일본에 찾아온다. 한편 「구생회」의 간부인 마키타 료이치는 사형(私刑)*을 겸해 「신곡 살인사건」을 주도하여 일으키면서 《시노소글리스》의 강령이라는 대역을 맡아, 탐사자들의 앞에 서게 된다.

* 사적으로 가하는 형벌로, 린치와 같은 의미.

■ 시나리오 특징

본 시나리오에서는

- ① 신흥 종교 「구생회」
- ② 클라인 생명 보험 상호 회사

③ 《숨마누스》와 탐사자 (+협력자인 우에하라 켄조)

이렇게 3개의 진영이 단테의 유고에 관계된다.

시나리오의 정보는 크게

- ① 「구생회」에 의한 사건
- ② 단테와 「신곡」에 관한 기초적 지식
- ③ 크툴루 신화, 오컬트적 지식
- ④ 가스파르 사건

이렇게 4종류로 분류된다.

스토리의 줄기는 매우 심플하지만, 종류가 다른 정보가 교차로 등장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기 쉽다. 또한 「NPC가 작성한 일기나 수기」가 일절 존재하지 않고, 탐사자는 사실에 근거한 상상으로만 NPC와 관계될 수 있다. 탐색에서 기능 판정에 성공할수록 진실(객관적 사실 / NPC에게는 지옥)이 부각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탐사자가 잠들 때마다 꾸는 시노소글리스의 꿈은 탐사자 자신의 과거나 트라우마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탐사자의 성격과 거처온 시나리오에 맞춰 묘사를 개변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렇기에, 로스트 확률은 높으나 연속 탐사자에게 추천하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 KP용 주의사항·보충 설명

▶ 앞서 서술한 ‘PL용 주의사항’ 외에 본 시나리오에는 「NPC 간의 근친 상간, 방치, 괴롭힘에 대한 묘사」가 포함됩니다. 이 중 어떤 것도 깊게 묘사되진 않으나 이를 극도로 꺼리는 PL(평소부터 지뢰 체크 시트 등에서 주의해달라고 하는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 SAN C (1d10 / 1d100)이 거의 확정으로 발생합니다. 시작할 때의 SAN과 주사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5, 모든 SAN C에 실패할 경우 60 이상의 SAN이 클라이맥스까지 감소합니다. 도중 퇴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SAN이 낮은 PC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SAN C에 실패한다는 것도 상당한 불운이라고 생각되긴 합니다만…….)

▶ 최종 전투의 기믹에 의해, 탐사자 전원이 든든한 무투파일 경우 전원 로스트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후술하겠습니다) 주문이나 회피에 전념하는 분이 생존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추천 기능에도 <전투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전투가 몇 개 발생합니다만, 어떤 것도 자기 방어 정도의 전투 기능이나 <근접전(격투)*>, 탐사자들의 기지로 넘어설 수 있습니다.

* 7판 기준. 6판 기준인 원문에서는 <こぶし(주먹)>

▶ 동봉한 「양케이트 용지」는 탐사자들이 시나리오 중 마주하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기입·제출은 PL과 KP의 자유지만, 사전에 답하게 함으로써 탐사자를 좀 더 파고들어보거나 묘사를 개변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 SAN C 재굴림의 처리에 대해

【<https://fusetter.com/tw/pYw8y6RF#all>】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강제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용으로 읽어주세요.

* 아래는 후세터 링크의 내용 번역.

키퍼링할 때 처리에 대해

로스트 확률에도 직결되는 부분이기에는 하나의 예로써 제가 KP를 할 때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SAN C 재굴림

어떤 SAN C도 성공 실패는 재굴림 불가, 감소치는 단 한 번 재굴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 《시노소글리스》 목적의 SAN C (1d10 / 1d100)에 실패하여 SAN이 80 감소했다
가능 → 크리티컬 티켓을 사용해 감소치 1d100을 다시 굴린다
불가능 → 크리티컬 티켓을 사용해 SAN C 자체를 다시 한다

▶ 《시노소글리스》 송환에 있어서 SAN 0 탐사자 MP의 취급

「죽음에 매료된 SAN 0 탐사자는 무의식 중에 송환을 거부한다」는 해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신력> 판정에 성공하지 않으면 송환을 위한 MP 부담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 <정신력> 판정의 재굴림은 일절 불가한 것으로 합니다.

▶ 《위대한 신, 판》 목적 시

처음부터 SAN이 0인 탐사자는 《위대한 신, 판》 목적 시의 SAN C (1d100 / 즉사)가 면제됩니다.

그 대신 〈행운〉 판정에 성공하지 않으면 《위대한 신, 판》에게 짓밟혀 사망합니다.
이 〈행운〉 판정의 재굴림은 일절 불가한 것으로 합니다.

모두 강제하는 것이 아니니 자유롭게 해주세요.

■ 등장 NPC

▶ 숨마누스 / 피타고라스 / ◎◎

근력 120	민첩 80	정신력 125
건강 315	외모 자유	교육 -
크기 85	지능 100	

체력 40	마력 25	db +2d6
-------	-------	---------

공격

축수 : 100%, 피해 1d3 (다음 라운드부터 매 라운드마다 근력 1d4 흡수)

갈고리 발톱 : 100%, 피해 1d6 + db

어둠을 걷는 자, 밤의 지배자, 그레이트 올드 원. 말레우스 몬스트로룸 P 183 (* 7판 말레우스에선 사라진 것 같습니다ㅠ.ㅠ)

기원전의 고대 로마, 토스카나 지방(이탈리아)에서 신앙되었던 신. 뇌신 유피테르와의 싸움에서 기억의 일부와 신성의 대부분을 잃고 사람들로 부터 잊혀졌다. 속세(인간계)에서는 시대와 함께 이름을 바꿔 토지를 전전하며 방랑하기를 계속한다. 어떤 때는 위정자, 어떤 때는 음악가, 어떤 때는 사모스의 현인 피타고라스의 이름으로 교단을 만들어 스스로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설파했다.

피렌체 추방 후의 단테 알리기에리와 만나 의기투합. 서로에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철학이나 사상, 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깊은 사이가 되었다. 숨마누스와 함께 방문한 드림랜드에서 착상을 얻어 단테는 「신곡」의 집필에 들어간다.

가장 사랑했던 그 친구도 1321년에 세상을 떠나, 숨마누스는 다시금 끝나지 않는 여행을 떠난다. 가는 곳곳에서 친구나 이해자를 얻고는 잃어버리며 역사를 계속해서 정관하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여행은 이윽고 안식의 죽음을 찾는 여행으로 바뀌어갔다.

임종 시에 맡은 단테의 유고(「르뤼에 문서」의 일부 필사 및 천국편의 「최후의 13곡」)를 끌어안고 100년의 잠에 빠지나, 각지에 존재하는 「지옥의 문」을 통해 《시노소글리스》강림의 기척을 느끼고 눈을 떠 그녀를 만나기 위해 일본으로 향한다.

인간에 의태했을 때는 서양인과 같은 용모의 청년. 흑발에 흰 피부, 키는 꽤 크다. 말 수는 많지 않지만 탐사자가 말을 걸면 성실하게 대답해준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기술을 모르고 농담이 통하지 않으며 탐사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기본적으로 세상 물정을 모른다. 싫어하는 음식은 없지만 팬케이크나 핫케이크 등 둥근 형태의 케이크를 좋아한다.

▷ 탐사자와의 연관

자신을 도와주는 인물을 잘 따르고, 시나리오가 진행되며 탐사자를 걱정하거나 안전을 우선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솔직하고 순수하며 탐사자를 이름으로 더듬더듬 부른다. 차분한 대형견을 이미지하면 RP하기 쉬울지도 모른다. 만약 탐사자가 로스트된다면 정신 병원에 입원하는 탐사자에게 달라붙거나 묘 근처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할 것이다.

▷ 우선 행동 순위

초반 : 자신을 아는 것 > 협력자(탐사자)의 안전

중반 : 협력자(탐사자)의 안전 >>> 자신

▷ 시나리오 중 역할

탐사자와 함께 시나리오에 관계되는 것, 단테의 생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중반의 《시노소글리스》송환을 위한 MP 보조, 물리적 방패.

※ 자신의 이름도 모르는 기억 상실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정체가 밝혀질 때까지는 「○○」라고 기재하고 있다. 「○○」에는 탐사자가 붙여준 이름이 들어간다.

▶ 마키타 쿄이치(牧田 暁一) 23세

근력 60	민첩 60	정신력 90
건강 70	외모 90	교육 55
크기 65	지능 85	

체력 14	마력 18	이성 0	db +1d4
-------	-------	------	---------

설득 65	라틴어 51	응급처치 60
듣기 55	자료조사 70	관찰력 50
오컬트 60	심리학 80	역사 40

《위대한 신, 판》과 인간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판의 자식, 말레우스 몬스트로룸 P180.
(* 7판 말레우스 몬스트로룸 vol.2 영판 기준 P.195)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굉장히 아름다운 외견을 하고 있으나 그 탓에 아버지의 재혼 상대(양어머니)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아 코코하가 태어나게 된다. 같은 시기에, 가스파르 사건에서 무츠키의 부친이 유죄가 된 것, 친부를 시작으로 검찰·정부 상층부의 부패가 사건의 근간에 있었던 일을 알게 되어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도 불가능한 채로 절망의 구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 자신의 출생, 가족, 제대로 심판되지 않는 사회의 어둠에 직면하고 죽음에 의한 영혼의 구제와 죄인을 향한 사적인 형벌을 강하게 바라게 된다. 사건의 배경에 있던 「구생회」에 접촉, 암약하나, 최종적인 목적은 《시노소글리스》를 사용한 「구생회」 전 회원의 살해이다.

호적 상의 이름은 야츠나가 쿄이치지만, 가족들에 대한 혐오 탓에 집 밖에서 이름을 댈 때는 일부러 친모가 결혼하기 전 썼던 성을 쓰고 있다.

참고로 탐사자가 물어보면 「유명 사립 대학의 대학원생이다」 라고 말하지만, 「가스파르 사건」 이후 가정 환경이 엉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등학교 중퇴가 최종 학력이다. 두뇌 회전이 빠르다. 사망 확정 NPC.

▷ 코코하와의 관계

혐오하는 양어머니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있으면서도 코코하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며 동시에 코코하로부터 받는 무상의 사랑에 구원받고 있다. 연옥편의 중반, 양어머니가 코코하에 대해 폭력,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의 정신적 학대를 행하고, 「이 이상 코코하에 대한 학대를 간과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야츠나가 부부의 살해를 독단적으로 강행한다. 스스로 계획한 「신곡 살인사건」의 시나리오를 서두를 수밖에 없게 되어 그것을 계기로 「구생회」에서 처분된다.

▷ 우선 행동 순위

초반 : 《시노소글리스》의 강림(「구생회」의 말살) > 「신곡 살인사건」에 의한 사형(私刑) ≥ 코코하의 안전

중반 : 코코하의 안전 >> 《시노소글리스》의 강림(「구생회」의 말살)

▷ 최종 전투에서의 기믹

실질적인 흑막이긴 하지만, 《시노소글리스》 송환 주문을 완성하지 못한 채로 쿄이치를 죽게 하면 분노에 미친 《위대한 신, 판》이 지옥의 문으로부터 기어나와 버린다. 그렇다고 해서 빠르게 기절시켜버리면, 쿄이치에게서 정보가 누설될 것을 두려워한 「구생회」의 간부가 SAT(일본 경찰의 특수부대)를 써서 살해하려고 한다.

「《시노소글리스》의 SAN C → 송환 주문을 영창한다 / 흑막을 때려서 종료」라는 단순한 흐름으로 끝나지 않고, 송환의 마지막까지 전원 로스트의 가능성을 크게 만드는 구조로 되어있다.

▶ 니노미야 쉰(二宮 俊)

근력 65 민첩 60 정신력 55

건강 55 외모 70 교육 80

크기 70 지능 70

체력 13 매력 11 이성 55

자동차운전 70 회피 49 근접전(* 組み付き) 65

사격(권총) 70 설득 60 듣기 70

추적 70 자료조사 50 관찰력 65

심리학 45 법률 45

형사이자 PC 1의 지인.

밝고 불임성 있는 성격의 무드 메이커. 정의감이 강하다. PC 1을 여러모로 신경쓰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말을 걸거나 서포트 하며 따르고 있다. 시나리오 중에 안면을 트게 된다면 PC 1 이외의 탐사자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시나리오 중에는 「가스파르 사건」이 누명이 아닐까 의심하면서도 상층부로부터 내려온 함구령과 자신의 정의감 사이에서 고뇌한다. 단독으로 「구생회」의 사무소에 잠입하여 붙잡히고 《지옥의 식물》 인체 실험의 희생자가 되어버린다.

반 좀비 상태에서 외과 수술로 회복한 경우 상당한 후유증을 끌어안게 되지만 그는 부서 이동이나 배치 변경을 겪으면서도 형사로서 살아가길 바란다. 탐사자들의 다이스 롤로 생사가 정해지는 NPC.

▶ 우에하라 켄조(上原 憲三) 47세

크기 75 외모 50 교육 95

유럽 문학, 특히 르네상스 문학을 전문으로 하는 전 대학 교수. 현재는 비상근 강사로서 종종 교편을 잡는 정도고, 주로 하는 것은 논문 집필이나 해외에서의 조사 협력. 자택에는 광대한 양과 풍부한 종류의 서적·자료 등이 소장되어 있으며 그 지식을 원하는 사람이 방문하는 일도 적지 않다. 생면부지의 인간이 찾아오는 것에는 익숙해진 듯, 언제나 느긋하고 위기감 없는 성격.

사실은 숙련된 전 탐사자이며, 신화적 사상이나 오컬트에 대해서는 남들의 배로 알고 있다. 탐사자들을 「탐사자」로서 인식하고 자신을 「NPC적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다……기보다도 심연에 너무 가까워진 탓에 피폐해져 자신을 「타인을 살리기 위한 무대 장치」로서 체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에 탐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힘을 빌려주고 갑작스럽게 상담하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성질이 있다.

어떤 여성(쿄이치의 친모)에게 마음을 품고 있었으나 「탐사자 = 괴이에 말려드는 존재」인 자신의 옆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결과적으로 그녀는 다른 남성(야츠나가 신이치로)과 맺어지게 된다. 그러나 켄조와는 멀리 있는 여행지에서 신화적 사상에 말려들어 사망하게 된다는, 아이러니한 죽음을 맞고 말았다.

그 이후 「죽음은 돌연 찾아오는 무서운 것」, 「더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강하게 품게 되었고, 자신의 지식과 책을 찾아 방문하는 이들을 헌신적으로 서포트한다. 사망 확정 NPC.

▷ 우선 행동 순위

유고의 번역 > 탐사자들의 서포트 >>> 자신

▷ 시나리오 중 역할

단테 및 「신곡」에 관한 지식의 공유, 송환 주문의 번역.
NPC를 통한 KP의 궤도 수정과 힌트 제공.

▶ 시도 유키(祠堂 由希)

크기 60 외모 75

도내 대병원에 소속된 베테랑 법의학자. 경찰이 검시나 사법 해부를 맡긴다.

연령 미상, 종잡을 수 없는 성격과 미스터리어스한 분위기 탓에 ‘괴짜’로 유명하지만, 의학적 지식과 날카로운 관찰안은 매우 뛰어나다.

합리적인 이론파이면서 초상 현상(신화적 사상)에도 강한 흥미를 보이고, 끝없는 지식욕과 호기심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

그 모습은 니노미야가 반 좀비가 되는 루트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 온갖 지식과 기술을 동원해
외과 수술을 성공시키고 재활 치료에도 전면적으로 협력한다.

「경찰의 입장에서 곤란한 기록이 경찰 내부의 데이터 베이스에서 조작, 삭제되고 있다」는 사실
탓에 경찰에 대해 커다란 불신감을 품고 있으나 그는 앞으로도 법의학자로서 직무를 다할 것이다.
그것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자각하고 있으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안대 쓴 남자 / 버지니아 펜타곤 (가명)

크기 90 외모 45

클라인 생명 보험 상호 회사(크툴루 컬트 나우 P 43)에 소속된 에이전트. 인간.

금발에 검은 정장, 오른쪽 눈에 검은 안대를 한 강인한 미국인이다. 《위대한 이스족》의 활동을
돕고 그들의 존재가 유포되지 않도록 정보 조작을 하는 것이 회사의 주된 활동 목적이며 그는 「
소실, 산실의 우려가 있는 서적이거나 문화적 자료의 보호 및 회수」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첫인상은 최악이지만, 그의 임무는 결코 탐사자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며 그 자신이 「
구생회」에 의한 일련의 사건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시나리오 중반에서는 《시노소글리스》
송환을 위해 도움을 주고 에필로그에서는 살아남은 탐사자를 스카우트하려 한다.

▶ 유카와 무츠키(湯川 睦月) 21세

크기 50 외모 70

8년 전에 일어난 「가스파르 사건」의 주모자가 된 유카와 쇼타로의 외동딸.

대대적으로 사건이 보도된 이후로 학교에서 심각한 괴롭힘을 받게 되어 1학년 재학 도중부터 거의
등교하지 않은 채로 중학교를 마친다. 범죄자인 부친을 미워함과 동시에 사실은 무죄가 아닐까
하는 희망도 버리지 못하고 컴퓨터 지식을 살려 독자적 수사를 시작한다. 사건의 일이 있어

식객으로 살고 있는 집의 친척에게 좋은 취급은 받지 못하고 있어 먼 친척인 우에하라 켄조의 집에 곧잘 드나든다. (모친은 「가스파르 사건」 이전에 병사했다.)

사건에 대해 알면서도 변치 않고 대해주는 켄조를 누구보다 신뢰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반 히키코모리 상태에서 평범한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다. 켄조의 사망 후에는 자신의 존재 의의나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하며 절망하지만, 분주하는 탐사자의 모습을 보고 클라인 생명 보험 상호 회사에 입사하기로 결의한다.

【검찰청·도쿄지검의 정보 유출】은 무즈키의 해킹에 의한 것이며 시나리오 후에는 「가스파르 사건」도 진실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녀의 복수극은 완수된다. 그와 동시에 마키타 코코하는 「범죄자의 딸」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지만.

▶ 코사카 나나코(高坂 奈々子) 17세

PC 1이 수사하는 【입원 환자 연속실종사건】의 행방불명자.

수 년 전부터 병 때문에 장기 입원과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원래는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으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 중 자신이 태어난 의미와 고통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며 고뇌하게 되고, 불운하게도 「구생회」 회원의 눈에 들어 이용된다.

한때는 「몸에 《지옥의 식물》을 심어 죽은 환자는 내세에서 행복해진다」는 사전 설명을 받아들였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와 「구생회」에 대한 불신감 탓에 자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옥편 중반에서는 사타노의 핏에 빠져 사무소에 잠입한 탐사자에게 총구를 겨눈다.

<정신분석>에 성공하면 《시노소글리스》의 세뇌 하에 있는 그녀를 해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SAN C (1d10 / 1d100)이 발생한다. 탐사자들의 선택에 의해 생사가 결정되는 NPC.

▶ 야츠나가 신이치로(八永 慎一郎)

마키타 쿄이치의 아버지. 도쿄 지방 검찰청 지검장이라는 일본 최대 지검의 톱. 품행이 방정한 누구나 인정하는 엘리트지만, 뒤에서는 증거 위조, 부정부패, 반사회적 세력과의 유착 등 악행에 손을 물들이고 있다.

사생활 면에서는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정(不貞)을 일삼으며 야츠나가 가에 대한 관심이 적다. 애초에 아이라는 존재 자체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쿄이치에 대한 성적 학대나 코코하에 대한 방치도 눈치채지 못했으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쿄이치의 고독을 깊게 만드는 일로 이어졌다. 사망 확정 NPC, 라기 보다는 시나리오 중 탐사자와 연관되는 일이 없다.

▷ 가족과의 관계

쿄이치 : 중학생 때까지 성적이 우수했기에 주시하고 있었으나 고등학교 중퇴 이후에는 「못난 놈(* 出来損ない)」, 「범인(凡人)」이라며 포기하고 있다. 잘생긴 얼굴과 젊다는 사실, 그리고 후처가 유달리 마음을 쓰는 것도 있어서 좀 꺼림칙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

코코하 : 발육이 느리고 공부도 성과가 나빠 거의 흥미가 없다. 물론 코코하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것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으나 만약 사실을 알았다면 가혹한 학대를 행했을 것이다.

후처 : 전처가 죽은 후 곧바로 재혼한 상대. 젊고 아름다운 외견은 마음에 들었으나 교양이 없고 낭비벽이 심해 짜증난다고 느끼는 일이 늘어 쿄이치가 중학생이 될 때쯤에는 말다툼이 일상다반사가 되었다.

전처 : 해외여행 중 변사한 것에 대해 현지 경찰로부터 엄하게 추궁당했다. 엘리트인 자신에게 흠이 생길까 두려워 증거 인멸에 분주했다. 부인을 잃었다는 사실보다도 사후 처리에 품이 들었다는 점에서 꺼림칙한 과거가 되었다. 그때 얻은 남자 아이(쿄이치)가 설마 신의 아이였다고는 생각지도 못한 채 자신의 피를 이은 자식이라고 믿어의심치 않는다.

▶ 마키타 코코하(牧田 九花) 8세

크기 40 외모 80

쿄이치의 여동생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염연한 딸이다. 모친은 쿄이치의 양어머니. 그 몸에는 《위대한 신, 판》의 피가 1/4 만큼 흐르고 있다.

호적 상의 이름은 야츠나가 코코하. 모친으로부터 방치·정신적 학대를 받고 있기에 몸이 약하고, 공부도 그닥 잘하지 못하는 모양.

쿄이치를 오빠라고 믿고 있으며 자신을 지켜주는 존재로 가장 신뢰하고 있다. 「오빠 쪽이 중요하니까 어머니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씩씩하게 무상의 사랑을 바치고 있다. 코코하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싫어하는 일은 없으며 탐사자에게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준다. 쿄이치가 인간으로 있을 수 있는 최후의 열쇠이기도 하다.

시나리오 후에는 가족의 사망에 의해 고액의 자산을 얻지만 「가스파르 사건의 흑막의 딸」, 「신곡 살인사건의 범인의 여동생」이라는 낙인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먼 친척에게 거둬지게 되거나 양호 시설에 맡겨지지만, 탐사자가 강하게 바란다면 그녀를 거둬들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 단테 알리기에리

1265년 ~ 1321년에 실재했던 인물. 피렌체(이탈리아) 출신의 시인, 철학자, 정치가. 이탈리아 문학 최대의 고전이 된 서사시 「신곡」의 작가이며 단테 자신은 「이탈리아 문학 최대의 시인」, 「이탈리아어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고 있다.

본 시나리오에서는, 어학이나 시뿐만 아니라 마술에도 뛰어났다는 설정으로 되어있다. 그 힘은 당시의 위정자로부터 위협받을 정도였으나, 정치적 분쟁에 마녀 사냥의 의도가 더해져 억울한 마음을 안고 사랑하는 고향 피렌체에서 추방당한다.

추방 후의 여행에서 《숨마누스》와 만나 철학과 사상, 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된다. 그와 함께 걸었던 드림랜드의 광경은 「신곡」 지옥편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그 외에 특히나 그가 가르치는 수비술에 강한 흥미를 보여 삼위일체의 개념을 「신곡」에 섞어 넣기도 했다. 《숨마누스》가 피타고라스와 동일인물이라는 것을 안 단테가 크게 환희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죽음의 순간, 마지막 일이었던 「신곡」 천국편의 일부 (「최후의 13곡」)과 르뤼에 문서의 번역 일부를 《숨마누스》에게 맡긴다. 《시노소글리스》의 강령을 예견한 것인지, 친우에게 주는 삶의 축복이었는지, 단순한 우연이었는지는 본인만이 아는 바일 것이다.

▶ 유카와 쇼타로(湯川 昌太郎)

유카와 무츠키의 친부. 후생성 사무차관을 맡을 정도로 엘리트였으나, 「가스파르 사건」의 주모자로써 전대미문의 체포극을 일으켜버렸다.

사건의 배경에는 당시의 수상과 대신급의 지시가 있었다. 유카와는 간언과 저항을 계속했으나 자신의 아내가 병사했던 것도 있어 최종적으로는 가스파르 사의 신약 수입을 단행한다.

이윽고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우려한 「구생회」의 손에 의해 형기 중 병사를 위장해 살해당한다.

▶ 이세지마 타케시(伊勢島 武志)

전 내각 총리대신. 가스파르 사건을 지시했던 실질적인 흑막이자 누구보다 큰 혜택을 얻은 인물이기도 하다. 사건의 발각으로 지지율이 떨어져 퇴진이 불가피했으나 유카와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면서 어떻게든 정치 생명을 이어나갔다. 3년 전에 정계에서 은퇴한 후에는 정부 단체의 특별 고문이나 이사장 등을 맡았으나 마키타 교이치의 손에 의해 「생각하는 사람」을 본뜬 최초의 사체가 되고 말았다.

▶ 사타노 류지(左田野 隆司)

《시노소글리스》의 독실한 신자. 「구생회」의 현 교주이기도 하지만, 교단의 결정권은 모두 이윤추구파(후술합니다)가 쥐고 있기에 적당히 세워진 바지사장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탐사자들이 참가한 세미나에서 강연을 한 것도 이 인물이다.

마키타 남매가 가진 판의 아이로써의 힘에 매료되어 좀 더 장기말로 다루기 쉬운 터인 코코하를 손에 넣고자 습격한다. (지옥편)

교이치가 멋대로 벌이는 행동 (제대로 처벌 받지 않은 범죄자에 대한 사적인 형벌)을 끔찍하게 여겨 교이치 살해를 타진한다. (연옥편)

천국편에서는 최전열에서 《시노소글리스》의 강령을 목격하나 교이치의 계획대로 다른 신자들과 함께 전멸 당한다. 어릿광대 역할.

▶ 쿄이치의 친모

우에하라 켄조의 대학 시절 선배. 예쁘장한 용모뿐 아니라 품성도 교양도 갖춘 능력 있는 여성. 23년 전, 야츠나가 신이치로와 결혼한 뒤 갔던 신혼여행 중 운 나쁘게 《위대한 신, 판》의 눈에 들어 쿄이치를 출산하게 된다. 출산할 때 복부가 두 갈래로 찢겨버렸기에(그렇지 않더라도 《위대한 신, 판》의 영향으로 광기에 빠져 사망했겠지만) 자신의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결혼 전 성은 마키타.

▶ 쿄이치의 양모

쿄이치의 친모가 사망한 뒤 곧바로 야츠나가 신이치로와 만나 인간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아름다움을 지닌 쿄이치에게 첫눈에 반해 매료되어버린다. 그녀의 목적은 쿄이치를 손에 넣는 것과 자신이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며 그 외의 무엇도 안중에 없다. 코코하를 가진 것도 단순히 성적으로 자유분방했기 때문이며, 피를 나눈 딸임에도 불구하고 애정도 관심도 일체 없다. 오히려, 쿄이치로부터 애정을 받는 코코하를 보며 여자로서 질투하고 있다. 연옥편 중반, 코코하에게 훈육을 빙자한 폭력과 정신적 학대(인격 부정)를 행한다. 쿄이치의 안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인내의 실이 끊기고, 야츠나가 신이치로와 함께 살해된다.

■ 조우하는 신화 생물, 괴물

▶ 시노소글리스

장례의 신, 그레이트 올드 원 (말레우스 몬스트로룸 P.176) (* 7판 말레우스에는 69페이지에 Cythulos 라는 이름으로 실려있습니다. 한국어판에서의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대 이탈리아에서 숭배되었다고 전해지는 여신. 이 장례의 신에게 매료된 자는 자기자신의 종언을 보여주는 환각과 백일몽을 겪은 후 냉정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인다. 즉 그녀를 숭배하는 자는, 안온한 죽음을 찾아 그녀를 강림시킨다.

그 힘은 신에게마저 죽음을 준다고 하여, 닿은 자를 평등하게 안녕한 죽음으로 이끄는 자비 넘치는 신이다. 그녀가 찾아오는 전조로는 짙은 안개의 발생이 있으며, 그 외에도 주변에 있는 동물이 이상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

시노소글리스의 영향 아래에 있는 자에게 <정신분석>을 성공하면 정신적인 속박은 끊기나, 시노소글리스가 있는지 아닌지에 관계 없이 SAN C(1d10 / 1d100)가 발생한다.

▶ 숨마누스

어둠을 걷는 자, 밤의 지배자, 그레이트 올드 원 (말레우스 몬스트로룸 P.183) (* 7판 말레우스에는 X)

이탈리아를 거점으로 하는 소규모의 신흥 종교 집단에게 신앙되었던 것 외에는, 그 존재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신이다. 그에 관한 풍부한 정보는 『토스카나인의 의식』이라는 극히 희소한 비의서(秘儀書)에 기재되어 있다.

▶ 위대한 신 판, 판의 아이

외계의 신, 슈브 니구라스의 화신 (룰북 P.216, 말레우스 몬스트로룸 P.180) (* 7판 말레우스 몬스트로룸 vol.2 영판 기준 P.195, 7판 룰북 기준 슈브 니구라스 P.321)

풍요와 생명을 관장하는 신. 판의 은총을 받은 자는 풍요와 부유로써 축복받고, 판의 분노를 산 자는 대폭풍이나 자연재해를 통해 그 흉폭한 분노에 휩싸인다. 판은 때로는 인간의 여성과 성교하는 경우가 있으며 희생자는 완전히 광기에 빠지지만 매우 아름다운 아이를 낳는다. 판의 아이들은, 자신과 상대의 정신력 대항에 승리하면 광기와 자살을 부르는 능력을 가진다. 그들의 눈에는 어딘가 방종하고 이질적인 느낌이 있으나, 그것을 빼면 평범한 인간으로 보인다.

▶ 지옥의 식물(=악마의 덩굴)

악몽에서 태어난, 하급 봉사 종족 (말레우스 몬스트로룸 P.51) (* 7판 말레우스 vol.1 P.57, 명칭이 악마의 덩굴로 바뀌었습니다. 지옥의 식물도 이것의 다른 명칭 중 하나라고 표기됩니다.)

지옥의 식물이 발아할 때는 숙주의 몸을 찢어 발겨 몸부림치는 점액질 덩어리가 분출된다. 이계의 식물이 몸을 찢는 것이기 때문에 숙주는 즉사한다. 지옥의 식물은 불연성으로, 불을 붙이는 것은 불가능하나 불에 의한 통상적인 데미지는 줄 수 있다.

독일의 어떤 고대 유적으로부터 발굴된 지옥의 식물의 종자를 「구생회」가 탈취하여 독자적으로 재배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 좀비

룰북 P.232 / 말레우스 몬스트로룸 P.266 (* 7판 기준 룰북 P.336, 영판 말레우스 vol.2 P.183)

《지옥의 식물》에 침식된 니노미야 숲과 야생 동물의 모습.

엄밀하게는 좀비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능력치 등의 스테이터스는 원래의 개체에 따른다.

■ 용어 설명

▶ 르뤼에 문서

대략적인 내용은 공식의 기술 대로. (키퍼스 컴패니언 P.42)

본 시나리오에서는 이탈리아어판 번역에 단테가 참여했다는 설정으로 되어 있다. 단테는 번역을 할 때, 일부 주문(《시노소글리스의 송환》)을 필사하여 수중에 가지고 있었으며 죽음의 순간 숨마누스에게 그것을 주었다.

단테의 유고에는 《시노소글리스의 송환》 이외의 주문도 쓰여있으나, 켄조는 송환 주문을 우선하여 번역했다.

한편 「구생회」가 소지하고 있던 것은 『르뤼에 문서』의 이탈리아어판(사본)이다. 쿄이치 일행이 늘 몸에서 떼지 않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노소글리스의 송환》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었다.

▶ 단테의 유고 (천국편 「최후의 13곡」)

【정보】 문서에 기재된 대로.

본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세상에 나돌고 있는 천국편의 최후는 단테의 자손들이 초고부터 새로 쓰기 시작한 것이라는 설정이다. 천국편의 진짜 마지막은 시나리오 중에는 볼 수 없지만, 언젠가 「단테의 친필 원고」 로써 공개될 미래가 올지도 모른다.

▶ 구생회(九生会)

적어도 30년 전부터 존재해온 신흥 종교 집단.

시련을 이겨냄으로써 「지고천」(천국)에 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념을 가진다.

가톨릭계이면서 「현세에 집착하지 않는다(나쁜 감정을 버린다)」는 불교와 닮은 이념을 기본으로 하여 독실한 신자를 거느리는 한편, 그 실태는 다단계와 사기를 통해 활동 자금을 늘리고 있는 조직이다. 회원 수는 20만명 정도이며 정치가나 연예계와도 관계가 깊다.

조직 내부는 《시노소글리스》를 신앙하는 층과 이윤을 추구하는 층으로 이분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극히 소수의 이윤추구파가 신자층을 컨트롤하고 있다. 「가스파르 사건」을 일으킨 것도 이익추구파의 정부 관계자로, 경찰 상층부에도 입김이 닿아있다.

탐사자들의 활약과 쿄이치의 모반에 의해 조직은 괴멸 상태에 빠지나 쿄이치 쪽에서 정보가 새는 것을 우려한 경찰 상층부가 SAT를 이용해 쿄이치를 살해했다.

이윤 추구를 위한 방패막이와 교주(사타노)를 잃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이윤추구파가 교단을 재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으로 그들은 사업에 탐욕스럽기 때문에 인간 사회가 계속되는 한 암약을 이어나갈 것이다.

▶ 가스파르 사건

8년 전에 발각되었던 세계적인 대규모 부정 사건. 후생성 사무차관·유카와 쇼타로가 프랑스의 제약 회사·가스파르사와 신약 수입의 계약을 맺는 대신 고액의 뇌물을 받고 있던 것이 드러나, 현직 관료가 체포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일어났다.

신약은 「차세대 항암제」, 「암特效약」으로 주목받고 있었으나, 효과에 의문을 표하는 보고가 잇따르면서 「가짜 약을 국민에게 팔아넘긴 국가 주도의 사기」로 비난받았다. 일본에서의 주모자로 여겨진 유카와의 체포 후, 이세지마 내각은 퇴진·정권 교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사건의 배후에는 상술한 「구생회」와 반사회적 세력의 존재가 있었으며 수상·대신 급의 지시와 경찰·검찰의 부정부패에 의해 유카와 쇼타로가 모든 책임을 떠맡는 형태로 종식되었다. 실제로, 사건의 진상은 정부 상층부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암묵적 양해)로 되어 있으며, 쿄이치는 그런 선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 클라인 생명 보험 상호 회사

크툴루 켈트 나우 P.43에 기재되어있는 조직.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위대한 이스족》의 활동의 도움과 그들의 존재가 유포되지 않도록 하는 정보 조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본부는 미국 뉴욕, 일본 지부는 도쿄도 신주쿠구의 잡거 빌딩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체가 없는 더미 회사에 불과하다.

회사에 소속된 에이전트들은 인간이지만, 《위대한 이스족》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행동한다.

※ 단테나 「신곡」에 관한 기초적 지식은 【정보】 문서를 참조해주세요.

■ 참고 문헌

▶ 타니카와 유리 「단테의 유언」(헤이세이 26년·아사히 신문 출판)

…본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계기가 된 소설. 호러도 서스펜스도 아닙니다만 참고한 부분이 드문드문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 마츠다 타카미 엮음 「서적의 내력, 독자의 역할」 (헤이세이 25년·게이오기주쿠 대학 출판회)

- 하라 모토아키 「잃어버린 자필 원고를 찾아서 - 단테의 『신곡』의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

… 「신곡」의 사본에 얹힌 기초적 지식, 유고의 감정에 관한 지식은 여기서.

▶ 닉 토웨스 「단테의 유고」 (헤이세이 15년·하야카와쇼보)

…유고의 감정·과학적 방법의 지식은 여기서.

▶ 야마카와 헤이자부로 역·이와나미 문고판 「신곡」 (상·중·하)

…시나리오 내의 인용은 전부 이와나미 문고판에서. (아오조라 문고도 이와나미 문고판입니다)

슈에이사 문고판의 해설도 참고하였습니다.

* 번역된 시나리오 내의 인용은 민음사에서 출판된 역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박상진 역)

이하로는 사전으로 참고·인용한 문헌입니다.

나카야마 마사키 역 「단테 전집 제4권 새로운 삶·시집」 (다이쇼 14년·신세이도)

아토다 타카시 「친절한 단테 〈신곡〉」 (헤이세이 20년·카도카와 서점)

히라카와 스케히로 「단테 『신곡』 강의」 (헤이세이 22년·카와데쇼보신샤)

마이클 하그 「인페르노 데코데드」 (헤이세이 25년·KADOKAWA)

「누구도 쓰지 않았던 단테 『신곡』의 수수께끼」 (헤이세이 25년·중경 출판)

그 외, YouTube 등지에 있는 공개 강좌 영상, Wikipedia

* 이 외에 「록히드 사건」과 「마루야마 백신」, 공각기동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 후기

전작 「여객총서」에 이어, 인생이라는 긴 「여행」이 열쇠가 되는 시나리오.

어려운 이야기가 잔뜩 나옵시다만, 시나리오를 쓰자고 생각한 출발점은 「단테의 신곡을 모티브로 하고 싶어」와 「시노소글리스부터 위대한 신 판의 SAN C 콤보를 먹어줬으면 좋겠어」의 2가지이기 때문에, 솔직히 고 EDU의 탈을 쓴 초근육뇌로망밀어붙이기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단테 알리기에리 사후 700년이라는 시점에 공개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테스트 플레이에 와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1.11.1 すすす

「단테의 심판」 - 지옥편 -

현실의 세계에 정의는 없고, 평화도 없었다.
법률은 있었으나, 그것을 단호히 실시할 힘, 또는 그렇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 하나 존재하지 않았다.
탐욕, 질투, 폭력이 어디에서나 마구 설치됐다.
가혹한 추방의 채찍 아래, 단테는 이탈리아를 구석구석까지 떠돌아다녔다——

미켈레 바비 (이탈리아 단테 학회 주재)

단테 알리기에리 사후 700년
크툴루의 부름 「단테의 심판」

■ PC 2 개별 도입

○ PC 2 → PC 1 → PC 3 (+PC 2) → PC 1의 순서로 개별 도입을 진행하게 된다. 「다이토 구(区)의 우에노 공원(우에노 동물원)에서 합류한다」는 사실을 먼저 전해두면 도입이 좀 더 매끄러워진다.

10월 28일 낮. PC 2의 탐정 사무소에, 예고도 없이 의뢰인이 찾아온다.

의뢰인은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꽤 잘생긴 얼굴의 청년이었다. 아름다운 용모 뿐만 아니라 그가 휘감고 있는 분위기와 몸짓이 매력적으로 느껴져 탐사자는 무심코 시선을 빼앗겨버린다.

이윽고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침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의식을 되돌린다.

「갑작스럽게 죄송합니다. 여기, 탐정사무소 맞나요?」

「사람을 찾아주셨으면 해서요. 이야기만이라도 들어주실 수 없을까요?」

실내로 안내하면 그가 이야기를 꺼낸다.

「아직 이름도 알려드리지 않았네요. 저는 마키타 쿄이치라고 합니다.」

「사람을 찾아달라는 건, 제 여동생 이야기입니다.」

꺼낸 사진에 비친 것은 어린 소녀. 얼굴과 분위기가 쿄이치와 닮은, 것처럼 반듯하고 예쁘장한 외모였다.

쿄이치로부터 들을 수 있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

- 여동생의 이름은 마키타 코코하. 8세.
- 어제 저녁부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집에 책가방이 있었으니 우선 학교에서 돌아오긴 했을 것이다.
- 근처 경찰은 【연속실종사건】의 대응에 쫓기고 있다. 바로 수색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탐정사무소를 찾아왔다.

【연속실종사건】에 대해 <지식>

성공 → 【입원 환자 연속실종사건】의 정보를 제시.

▶ 좀 더 쿄이치에게 이야기를 듣고자 할 경우, 이하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코코하의 통원 이력에 대해

「통원 이력에 대해서는 짚이는 곳이 없는데……」라며 말하기 어렵다는 듯 말을 흐린다.

- 코코하가 갈 만한 곳으로 짚이는 데가 없는지 묻는다 / 경찰에 연락하지 않는 것을 책한다

「사실, 코코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건 짚이는 바가 있어요」라며 쓴웃음을 짓는다.

「동물원에 가고 싶어했어요. 아마도 TV 특집 프로그램에서 본 거겠죠」

「그런데 부모님은 일로 바쁘시고, 저는 대학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평소에도 같이 있어주는 시간이 적었어요」

「코코하에게는 참는 게 한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잠깐 가출한 것이겠거니 했어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어서……」

○ 쿄이치는 코코하의 힘을 노리는 「구생회」가 유괴한 것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 쿄이치에게 〈심리학〉 판정을 하여 성공한 경우 「코코하를 걱정하고 있다」, 「실종의 이유에 대해 떠오르는 바가 있다」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경찰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가 「구생회」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는 절대로 수사를 의뢰하려 하지 않는다.

○ 이후의 탐색 장소가 되기 때문에, 「코코하는 동물원(우에노 동물원)에 가고 싶어했다」는 정보는 반드시 내놓을 것.

「미아 방지 명찰을 단 배낭도 없어져 있었으니 친절한 분에게 보호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종 사건 뿐만 아니라, 【흡혈귀】에 대한 소문도 있어서 다들 시끄럽기도 하고요」

【흡혈귀】에 대해 <오컬트> <아이디어> 등의 판정

성공 → 【뒷골목의 흡혈귀】에 대한 정보를 제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마치면, 쿄이치가 PC 2의 안색을 살피며 말을 꺼낸다.

「저기, 탐정들이 받는 의뢰라는 건 이외에 어떤 일들이 있나요?」

「혹시 코코하를 찾으시면, 조금이라도 좋아요. 그…… 같이 놀아주실 수 없을까요?」

「무리라면 괜찮습니다. 그냥, 역시 코코하에게 추억이 될 만한 일을 해주고 싶어서요.」

PC 2가 승낙하면 그는 안도한 표정을 보인다. 이 외에 연락처의 교환과 보수의 이야기를 끝내면,
「저는 다시 집 주변을 찾아볼게요. 수색,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감사 인사를 하고 방을 나간다.

PC 2에게 하고 싶은 일이 없는지,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확인하고 도입을 종료한다.

■ PC 1 개별 도입

시간은 PC 2의 도입에서 조금 거슬러 올라가, 10월 28일, 아침.

소집을 받아 향한 회의실에는 동료와 다른 과 직원 등, 이미 몇 명의 경찰관(형사)이 모여있었다. 그 이유는 하나.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입원 환자 연속실종사건】의 지원 요청에 응하기 위해서.

→ PC 1은 수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입원 환자 연속실종사건】의 정보를 판정 없이 입수할 수 있다.

방을 둘러보면 이미 니노미야는 앉아 있으며 PC 1의 모습을 보고 손을 들어 인사를 한다. 잠시 후 상사인 형사가 온다.

「지원 요청에 응해주고 이렇게 모여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이미 말한 것처럼, 자네들에게는 입원 환자의 연속실종사건에 대한 수사를 부탁하고 싶다.」

「경시청 형사부 수사 제1과에서는 수사 본부를 세우고, 먼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만 결과는 썩 좋지 않다.」

「더욱 많은 인원을 투입해 사건 해결을 향해 전력으로 임한다.」

→ 【입원 환자 연속실종사건 : 경찰 관계자】의 정보를 제시.

▶ 좀 더 질문하면, 이하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병원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병원 자체에 공통점은 없다.」

「국립 대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도 있는가 하면, 작은 개인 병원을 방문해 그 의사에게만 진찰 받았던 환자도 있다.」

「병원의 위치를 지도 상에 표시해보기도 했으나, 지리적 법칙성도 보이지 않았다.」

- 병원 내의 감시 카메라 영상에 대해

「입원 중인 환자의 경우 병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은 화장실에서 변장한 듯하나 그 발자취는 끊겼고 자택에도 돌아가지 않았다.」

「시내에 있는 카메라를 포함해 수상한 인물 등이 찍히지 않았는지는 다른 팀이 확인 중이다.」

- 약의 부작용 / 수술 후의 후유증에 의한 영향에 대해

「그쪽은 병원, 전문 기관과 연대하여 수사 중이다.」

「취급하고 있는 약품의 양이 너무 많고 전문적이니까 말이지,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다.」

- 앞으로의 구체적인 움직임

「앞으로는 행방불명자의 가족들에게 사정 청취를 하여 수사를 진행한다.」 고 말하고 지도를 펼친다. 도내의 병원을 기점으로 블록을 구분하여 수사원을 배정한다.

분담 결과, PC 1과 니노미야는 다이토 구의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수상한 인물에 대한 정보도 적극적으로 모아주었으면 한다.」

「꾸준히, 강한 끈기가 필요한 수사가 계속되겠으나, 너희들에게 결과가 달려있다. 부탁하지.」

상사의 그 말로 이 자리는 해산하게 된다. 회의를 끝낸 형사들은 지도를 펼쳐 작전을 짜거나, 바로 탐문으로 향하는 등 가지각색이다.

니노미야는 PC 1의 옆으로 달려와 「요, 상태는 어때?」 와 같이 쾌활하게 말을 건다.

「우리 둘이서 다이토 구의 가족들에게 탐문을 한단 말이지~ 나눠서 할까?」

「탐문만 하는 게 아니라 순찰도 하는 편이 좋은 걸까~」

「【뒷골목의 흡혈귀】 도, 뭔가 소문 같은 게 퍼져있고 말이야.」

【뒷골목의 흡혈귀】에 대해 <오컬트> <아이디어> 등의 판정

→ 성공하면 【뒷골목의 흡혈귀 : 경찰 관계자】의 정보를 제시.

이 날의 탐색에서는 니노미야를 동행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PC 1에게 하고 싶은 것이 없는지, 다음에는 어디로 갈지 확인하고 도입을 종료한다.

■ PC 3 개별 도입

10월 28일, 점심 시간을 조금 넘긴 시각. PC 3은 볼일이 있어 길거리를 걷고 있다.
활짝 갠 가을 하늘 아래, 길거리에 있는 모니터에서 뉴스의 토픽이 비추어지고 있었다.
이하의 뉴스를 1d4만 볼 수 있다.

- 【사이버 범죄 대책과 설립】
- 【신종 식물 일부 분실, 연구원이 관계되었나】
- 【시체는 어디로?】
- 【특집 : 가스파르 사건의 진상!】

이 장소에서 볼 수 없었던 정보는 나중에 스마트폰 등을 사용한 <자료조사>로 입수할 수 있다.

PC 3이 그러고 있자, 길 모퉁이에서 사람이 튀어나와 부딪친다. PC 3은 조금 비틀거리는 정도로 끝났으나 상대는 작은 아이여서, 간단히 튕겨져 나가 엉덩방아를 찧고 만다.
부딪쳐 온 것은 10세 정도로 보이는 소녀. 작은 몸에, 작은 배낭을 매고 있다. 예쁘장한 얼굴이지만 입고 있는 옷은 더럽고 구겨져 있어 초라하다. 끌어안고 있는 인형이 땅에 떨어지고 소녀는 겁먹은 표정으로 PC 3을 올려다보고 있다.

「오빠(언니)는, 나쁜 사람이야……?」

PC 3이 상냥하게 말을 걸거나 걱정해주면 경계를 풀고 대화하는 게 가능하다.

- 미아? / 가족은?
「혼자야.」
- 어디에서 왔어?
「……?」 하고 고개를 갸웃한다.
- 어디로 가는 거야?
「……판다.」

- 이름은?
「코코하.」
- 나이는?
「여덟 살.」
- 경찰에 연락하려고 한다
「아……!」 하고 떠올렸다는 듯 자신의 배낭을 연다.

▶ 코코하의 소지품을 본다

배낭 안을 보면, 미아 방지 명찰, IC 카드 승차권, 작게 접힌 종이가 들어있다.

- 미아 방지 명찰
「마키타 코코하(牧田 九花)」라는 이름이 손글씨로 쓰여있고, 그 아래에 집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있다. 전화를 걸어도 아무도 받지 않는다.

〈홍정*〉 〈아이디어〉

* 6판의 値切り, 7판에서는 매혹 / 말재주로 대체되었으나 맥락상 〈재력〉 등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KP의 자유.

기재된 주소가 고급 주택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IC 카드 승차권에 대해
「오빠 거야.」
- 가족 구성에 대해
「오빠랑, 코코하랑, 아버지랑 어머니.」
- 가족에 대해
「오빠는 상냥해서, 정말 좋아.」

○ 현 시점에서는 다른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려 한다.

- 동물원에 대해

「다같이 갈 수 없으니까, 코코하 혼자 가는 거야. 혼자서도 괜찮은걸..」

▶▶ 작게 접힌 종이

종이를 펼쳐보면, A3 용지에 복사된 그림이 있다. 깔때기 같은 모양을 한 역삼각형의 탑이 크게 그려져 있고, 그 안에 무수한 인간과 배경 등이 상당히 정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깔때기의 아랫 부분에는 하늘색 반원과, 날개 달린 검은 생물이 그려져 있다. 원래부터 넓고 작은 그림이었던 듯, 컬러 복사된 이 용지에서 보면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지식〉 〈회화 계통 기능〉

이 회화가, 이탈리아의 화가 보티첼리가 그린 「지옥의 지도 (Map of Hell)」라는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드로 보티첼리】

르네상스 시대(15세기)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화가. 대표작으로 「봄(프리마베라)」, 「비너스의 탄생」, 「동방 박사의 경배」 등이 있다.

【보티첼리의 「지옥의 지도」】

보티첼리가 그린 단테의 「신곡」의 삽화. 이 회화는 「신곡」의 무대인 지옥의 구조를 표현한 것으로, 인간의 죄에 따라 9개의 범위가 표현되어 있다.

○ 상기한 내용은 〈지식〉 〈회화 계통 기능〉으로 알 수 있는 대략적인 지식이다. 더 자세하게 조사하는 경우, 도서관과 같은 시설에서 기능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

- 그림에 대해 묻는다

「오빠 거야. 이게 없으면 오빠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일이 없으면, 코코하랑 놀아줘..」

- 경찰에 연락하려고 한다
「집에 꼭 돌아가야 돼……?」

잠시 대화한 후, PC 2와 PC 3이 합류하게 된다. 코코하는 PC 3을 잘 따르고, PC 2에게도 「같이 동물원에 가자」며 응석을 부린다.

○ 여기서 코코하와 헤어지는 것은 상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PC 2와 PC 3을 합류시킨다. 같은 시각, 쿄이치는 「신곡 살인사건」 때문에 살인을 행하고 있으나, 탐사자가 원한다면 통화가 가능하다. 그는 코코하가 발견됐다는 것을 기뻐하며 「마침 불일이 생겼다. 최대한 빨리 끝낼 테니 그 때까지 코코하와 놀아줬으면 좋겠다」고 PC 2에게 말한다.

■ PC 1 개별 탐사

조금 시간을 되돌려, 시각은 낮, 점심 쯤.

PC 1은 다이토 구의 병원에 다니고 있었다던 실종자 가족의 탐문을 한다. 여러 명 탐문을 마친 후에도 이렇다할 새로운 정보는 없었고, 탐문 대상 리스트에 올라온 환자 가족의 집은 이 다음이 마지막이다.

목적지인 주택의 인터폰을 누르면, 수척한 모습을 한 환자의 모친이 나와 맞아준다. 자료에 의하면 이 가정에서는 투병중인 17세의 딸 「코사카 나나코(高坂 奈々子)」가 실종되었다.

모친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

- 학교 저지를 입은 갈색 머리의 소녀의 사진을 보여준다. 활발해보이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 수 년 전부터 투병 중이었다. 옛날에는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다.
- 실종된 건 일주일 전. 병문안을 위해 병원을 찾아갔더니 침대에는 덮고 있던 이불만이 남겨져 있었다.
- 어떤 예고도, 전조도 없었으며 오히려 밝고 침착한 분위기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주위에 걱정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런 척했던 걸지도 모른다.
- 불임성이 좋고 병원에서도 새로운 친구와 지인을 사귀었던 모양이다.

모친은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침대 근처에……」라며 한 장의 종이를 내민다.

「추억 속에 남아있는 장소」라고 쓰인 작은 종이에 일본 각지의 관광 명소나 수족관, 동물원 같은 레저 시설의 이름이 장황하게 적혀있다.

○ 「구생회」는 「신곡 살인사건」에 있어 입원 환자에게 죽을 장소를 고르게 하고 있다. 쓰여 있는 장소에 대해 모친에게 물어보면, 조금 생각하고 나서 「모두 가족 여행으로 방문했던 장소다」라고 답한다.

코사카 나나코의 모친은 불안한 듯 이야기한다.

「저기, 제 딸은 돌아올까요……?」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게 있어서요, 실종 사건과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우에노 공원에서 동물의 시체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이디어〉

성공 → 【야생 동물의 괴사】에 대한 정보를 제시.

「사람들이 많이 가는 우에노 공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왠지 마음이 불안해서요。」

「혹시 사람이 그런 거라면, 언젠가 동물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피해가 갈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어요.」

「경찰 분들이 순찰을 강화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돌아갈 때, 그녀는 또 한 번 머리를 숙이고 「부디,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부탁해온다.

니노미야가 동행하고 있을 경우,

「탐문은 이걸로 끝. 점심 시간 지나버렸는데, 어떡할래?」

「우에노 공원의 야생 동물 얘기도 신경 쓰이고, 그런 거 알고 있을 거 같은 사람이라든가…… 찾아볼까?」라며 PC 1에게 물어온다.

○ 이후 우에노 공원 부근에서 탐사자 전원을 합류시킨다. 또한, PC 1의 성격에 따라서는 【입원 환자 연속실종사건】을 최우선으로 수사하고자 할지도 모른다. 그 경우에는 연옥편의 탐색 장소인 병원으로 향하게 해도 상관 없다. 단, 그 후에는 우에노 공원에서 다른 탐사자와 합류할 것.

○ 다른 탐사자들과 합류한 후, 똑같이 연옥편의 탐색 장소인 「우에노 공원의 나무들 사이」의 정보를 제시해도 상관 없다.

■ 우에노 은사 공원

우에노 공원 부근에서 탐사자 전원을 합류시키고, 우에노 동물원 내부를 탐색시키는 것이 좋다. 만약 탐사자들이 떨떠름해한다면, 코코하는 「그렇구나아……」라며 눈을 내리깐다. 니노미야가 동행하고 있는 경우, 「아까 야생 동물이 괴사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우에노 동물원의 사육사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냐?」 「유족들 탐문은 끝났고, 순찰 겸해서 가자.」라며 PC 1에게 귓속말을 한다.

도쿄도 다이토구에 있는 도립 공원. 통칭, 우에노 공원.

메이지 6년에 개원한 이래로 일본의 도시 공원을 대표하는, 도쿄의 얼굴이 되는 문화·관광의 거점으로써 더욱 매력 있는 공원으로 재생시키기 위해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시설 내에는 우에노 동물원을 비롯하여 국립 박물관, 국립 서양 미술관 등의 시설이 다수 존재한다.

도중에 <듣기> 판정

국립 서양 박물관 앞에서 관광 투어 단체가 가이드의 해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어서, 오른 손에 보이는 것은 프랑스의 조각가, 거장 로댕의 작품인 「지옥의 문」이라는 브론즈 상입니다. 높이는 5.4m, 중량은 7톤에 달합니다.」

「당시 프랑스 정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작이 개시되었지만, 로댕의 죽음에 의해 작품은 미완으로 끝나게 됩니다.」

「로댕의 사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주조되어, 현재 세계 7개 장소에 「지옥의 문」 브론즈 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곳, 서양 미술관 앞의 「지옥의 문」은 사업가 마츠카타 코지로 씨의 의뢰로 만들어진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미술 애호가이기도 했던 마츠카타 씨의 수장품은, 서양 미술관 내의 「마츠카타 컬렉션」으로……」

라고 말하는 가이드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 번역하며 찾아보니 마츠카타의 의뢰로 주조된 청동상은 최초는 아니라는 정보가 많네요. 1926년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의 의뢰로 만들어진 것이 최초라고 합니다.

우에노 동물원은 아이를 데려온 수많은 부모들로 북적이고 있다. 티켓을 구입하고 커다란 게이트를 지나면, 울타리 너머로 유유히 풀을 먹는 동물들과 곧바로 대면하게 된다.

〈관찰력〉

입구 근처의 게시판에 동물원의 공지가 붙어 있다. 원내의 청소와 정비 작업을 위해 다음 주부터 한동안 임시 휴업을 하는 듯하다.

〈듣기〉

불안한 듯이 목소리를 낮추는 사육사들의 대화가 들려온다.

「오늘 아침에도 발견됐다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들쥐라네요. 죄다 연못에 뛰어들어서 물에 빠져 죽었대요.」

「또? 만약 장난이라면 질이 나쁘네.」

「갑시 카메라에는 수상한 사람이 찍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람이 아닌 거 아닙니까?」

「뭐, 원인이 사람이 아니어도 불안하지. 다음 주의 건강 진단에서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는데……」

」

〈교섭 기능〉에 성공, PC 1이 신분을 밝히고 말을 거는 경우, 이하의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 야생 동물의 변사는 무언가의 병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동물원 내의 순찰, 소독, 동물들의 건강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 다음 주에는 동물들의 대규모 건강 진단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급히 임시 휴원 조치를 취했다.
- 야생 동물의 변사체 근처에는 흑색의 점액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는 것 같다.
- 관련되어 있는지는 불명이지만, 최근 심야부터 이른 아침에 걸쳐 우에노 공원에서 짙은 안개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졌다.

○ 이른 아침의 안개는 탐사자들도 인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일기예보 등에서는 짙은 안개에 주의하라는 예보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물원에서의 관광 RP를 끝냈을 때)

코코하는 크게 기뻐하며 원내를 돌아보지만, 이윽고 그녀의 배에서 꼬르륵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주위를 둘러보면, 동물원 내부에 병설된 가족들끼리 식사하기 좋은 레스토랑이 있어 식욕을 돋우는 향이 풍겨온다.

▶ 레스토랑으로 향한다

간단한 식사류나 디저트, 음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한쪽 구석에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샵 코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아동 코너가 설치되어 있다.

요리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코코하가 「코코하도 이 그림책 가지고 있어」라며 한 권의 그림책을 발견해 탐사자들에게 보여준다.

→ 【두 명의 신】의 정보를 제시.

○ 이 그림책은 서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반적인 것이다. 오래 전부터 있었던 작품으로, 탐사자들도 읽은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인터넷 등에서 조사해보면 원래는 이탈리아의 민간 설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탐사자들이 레스토랑을 나오면, 사육사인 여성이 탐사자들을 불러세운다. 여성의 가슴에는 「연수 중」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다.

「오늘부터 원내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참여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동물을 직접 만질 수 있는 특설 코너인데, 평소에는 만질 수 없는 동물도 있어요.」

코코하는 「만질 수 있어?」라며 눈을 빛내고 탐사자들의 안색을 살핀다.

탐사자들이 승낙한다면 사육사인 여성은 탐사자들을 이벤트 회장으로 안내한다.

○ 그녀는 《정신적 종속》으로 「구생회」에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지 않는 한 평범한 상태와 다르지 않다.

■ 「구생회」의 습격

여성을 따라가면, 이윽고 시설 관리용 건물과 창고에 도착한다. 사람들은 없고, 무언가의 이벤트가 열릴 것 같은 모습도 없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려던 그 때, 앞을 걷고 있던 여성의 몸이 덜컥 기울더니 마치 실이 끊어져버린 꼭두각시 인형처럼 쓰러진다.

곧바로 배후에서 자갈을 밟는 발소리가 들리고, 돌아보면 여러 명의 남자들이 탐사자들을 둘러싸고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남자들은 「유도에 성공했다」고 무선 연락을 하고는, 「베아트리카의 가호가 우리에게」라고 말하며 코코하에게 손을 뻗는다.

겉을 먹은 코코하는 PC 3의 뒤에 숨어 작은 손으로 옷자락을 진다. 탐사자들이 코코하를 지키려고 한다면 「사타노 선생님의 명령이다. 방해한다면 용서하지 않는다.」, 「경고는 했다.」고 중얼거린 남자들이 습격해온다.

● 1d6 명의 남자들과 전투하게 된다.

민첩 45

체력 14

근접전(격투)* 60%

피해 1d3

db 0

* 원문(6판)에서는 こぶし(주먹)

○ 2라운드 후에 이벤트가 발생한다. 이 전투에서 탐사자들이 사망하는 것은 상정되지 않았다.

전투 중, 쿵쿵거리며 사람이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린다. 남자들 쪽의 증원이 달려와 탐사자들을 완전히 둘러싸버린다. 명백한 수적 우세. 무작정 저항하는 것은 더이상 무의미한 듯했다. 한 발짝 한 발짝씩 거리를 좁혀오며 「얌전히 있어주실까.」라고 말하는 남자들의 손이 다시금 코코하를 향해 뻗어오던 그 때……

「싫어—!」

패닉에 빠진 코코하가 비명을 지른다. 파도처럼 찢어지는 여자아이의 목소리에 뇌와 고막이 흔들리고, 순간 의식이 멀어진다. 코코하의 비명을 들은 탐사자들은 <정신력 75와 대항 판정>을 한다.

성공 → 몸이 뻗뻗하게 경직되고, 한순간 가위에 눌린 것처럼 꼼짝도 하지 못하게 된다.

실패 → 1d10을 굴려 기본 룰북에서 일시적 광기의 발작을 일으킨다.

성공 실패에 관계 없이 갑작스럽게 이변을 느낀 탐사자들은 SAN C (0 / 1d2)

남자들은 패닉에 빠져 도주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사람, 경직되어 움직이지 못하게 된 사람 등 다양한 모습이었다. 탐사자들을 신경 쓰는 사람은 더이상 없고, 전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닌 상황이 된다. 코코하는 PC 3의 옷을 붙잡고 떨고 있으며 그녀의 이마에 손을 대면 열이 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쓰러져있는 남자들의 몸을 조사한다

몸을 더듬어보면 옷 아래에 울퉁불퉁한 것이 숨겨져 있다. 조사해보면 스마트폰보다 좀 더 큰 모노리스* 같은 모양의 검은 석판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평평한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조각이 되어 있으며, 몇 번이고 비틀린 팔과 주먹 같은, 길이 벗겨져 나간 바위와 닮은 물체가 몹시 기분 나빴다.

* 커다란 돌기둥/침탑 같은 구조물

이 석판을 목격한 탐사자는 <정신력 150과 대항 판정>을 한다.

실패 → 정신을 차리고 보니 홀로 차가운 안개 속에 있었다. 탐사자는 혼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졸음과 각성 사이에서 등실거리는 듯한 고양감과 충족감이 가슴을 채운다.

탐사자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빨리 눈을 감고 싶다, 저항하기 어려운 행복에 몸을 맡기고 싶다는 신기한 감각. 이윽고, 안개의 저편에서 기척이 느껴지고, 나타난 ××에게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이——

거기서 확 정신이 든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곳은 확실히 우에노 동물원의 창고 뒤편이었다.

지독히도 현실감이 드는 백일몽을 끝 타인지 심장이 쿵쿵쿵 소리를 내며 뛰고 있다. SAN C (1 / 1d4)

▶ 남자들에게 다가가, 다른 것을 조사한다

옆드려서 쓰러져 있는 남자의 목덜미에 문신 같은 마크가 그려져 있는 것을 눈치챈다. 「9(九)」라는 숫자와 양 손에 삼각형이 겹쳐져있는 듯한 그림으로 보인다.

○ 위험한 신흥 종교의 단속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탐사자나 어떤 종교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탐사자는, <지식> <아이디어> 등으로 【구생회】의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시간이 지나자 코코하는 진정한 듯한 모습으로 돌아오지만 조금 지친 것처럼 보인다.

쿄이치와 연락을 취하면 그는 곧 코코하를 데리러 온다. 쿄이치는 탐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마음 깊이 안도한 듯한 표정을 하더니 코코하를 안아올린다. 코코하도 「오빠!」라고 말하며 마주 안아주는 모습을 보면, 쿄이치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수수께끼의 남자들에 대해

「.....짚이는 곳이 없다, 고 말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이렇게 습격당한 것은 처음입니다만.」이라며 온화한 얼굴을 험악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남자들의 정체와 조직에 대해서는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 코코하의 능력에 대해 묻는다

「코코하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능력, 이라고 밖에는.」

「자세한 건 몰라요. 강한 공포를 느끼거나, 흥분 상태가 되면 발동하는 것 같아요.」

「능력을 쓴 뒤에는, 언제나 열이 나면서 잠들어버려요.」

- 경찰에 상담하는 것이 좋다 / PC 1과 함께 있는 편이 좋다고 제안한다

쿄이치는 경찰에 의지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한다.

그래도 강하게 권한다면, <심리학>으로 그가 경찰에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헤어질 때, 코코하는 「언니오빠들, 다음에도 코코하랑 놀아줄 거야?」라며 탐사자들에게 물어온다. 탐사자들이 승낙한다면 「약속한 거야!」라고 말하며 무엇보다도 환한 미소를 보여준다.

한편으로 쿄이치는 「.....코코하가 이렇게 즐거워하다니.」라며 조금 놀란 표정을 짓는다.

쿄이치는 PC 2에게 다시 한 번 보수의 확인 등을 하고는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난다.

■ 뒷골목 ~ 지옥의 입구

해가 지는 것이 빨라지고, 주위는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경찰서나 사무소, 혹은 자택에 돌아가기 위해 탐사자들 세 명이 모여 걸으며 어떤 골목의 옆을 지나가려고 할 때였다.

〈듣기〉

성공 → 골목에서 「살, 려줘」라는 남자의 작은 비명이 들려온다.

실패 → 골목에서 한 남성이 뛰쳐나와, 탐사자 한 명에게 쿵하고 부딪친다. 동시에 불쾌한 감촉이 피부로 느껴진다. 그 감촉이 느껴진 곳을 보니, 새빨간 피가 탐사자에게 묻어있었다. 남자는 도움을 청하듯 얼굴을 들었으나, 바로 골목 안쪽에서 축수 하나가 뺨어와 남자의 다리를 휘감았고, 남자는 그대로 맹렬한 속도로 어둠 속으로 끌려들어가 버린다. ……탐사자의 팔을 붙잡은 채로.

〈근력 75와 대항 판정〉을 하여, 실패하면 그대로 뒷골목에 끌려들어간다. 체력 - 1d3.

▶ 뒷골목으로 향한다 / 뒷골목으로 끌려들어간다

검붉은 혈액이 점이 찍히듯 떨어진 것이 골목 안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윽고 남자의 절규가 메아리치더니,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이어진다.

급하게 향한 뒷골목의 막다른 곳. 한 남성(방금 전 탐사자에게 도움을 청해온 남성)이 쓰러져 있다. 그 바로 옆에, 검고 커다란 그림자…… 장신의 인물이 몸을 굽혀 쭈그려 앉아있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보다 빠르게, PC 1의 휴대 단말이 진동한다. 전화를 걸어온 상대는 니노미야다.

○ 탐사자들이 니노미야와 행동을 같이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전화 상대가 PC 1의 동료가 된다.

니노미야는 「일이 커졌다」며 드물게 낭패했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간다.

「연속실종사건으로 수색 요청이 들어왔던 환자들, 발견됐어. 변사체가 되어서 말야.」

「상당한 수의 변사체가 도쿄에서 발견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의 보고니까, 앞으로도 늘어나는 게 아니냐고……」

초조하게 이야기를 계속하는 니노미야의 목소리가 어딘가 먼 이야기처럼 들렸다. 당연하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탐사자들의 눈 앞에서 괴인이 훌쩍 일어서서 붉게 젖은 입가를 닦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2미터는 되는 장신의 마른 남자는 창백한 얼굴을 탐사자들에게로 향한다. SAN C (0 / 1d3).

「.....내 이름은 단테. 네가 베르길리우스인가?」

수수께끼의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탐사자들에게 묻는다. 동시에, 니노미야도 꽤 당황하고 있는 것인지 PC 1의 대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말을 잇는다.

「그리고, 뉴스 봤어? 국회의사당에서 또다른 변사체가 발견됐어.」

「.....이젠 완전히 지옥이야. 전신의 가죽이 벗겨진 인간의 시체가 효수하듯이 전시되어 있어.」

「그 아래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대.」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제 가지지요, 우리의 두 의지가 합쳐졌으니
당신은 저의 길잡이요, 주인이자 선생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는 앞장을 섰고

나는 그 험난한 여행을 시작했다.

단테 「신곡」 지옥편 제2곡

「단테의 심판」 - 지옥편 -

종료

「단테의 심판」 - 연옥편 -

■ 뒷골목에서의 해후

석양마저 들어오지 못하는 막다른 길목. 탐사자들의 앞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엎드려 쓰러져 있고, 입가를 붉게 물들인 장신의 남자가 서있다. 말문이 막힌 탐사자들의 의식을 되돌리듯이, 전화 너머로 니노미야는 「입원 환자의 사건과 국회의사당의 사건으로 야단법석이야. 긴급 소집 명령이 내려졌으니까 지금 바로 서로 돌아와주라. 야, 듣고 있어?」 라고 PC 1에게 말한다.

통화를 종료하면 눈앞에 있는 장신의 인물이 말을 꺼낸다.

「단테, 베르길리우스……」

「아니…… 나는 누구인가? 알려주지 않겠나.」 라고 하며 꽤 기억이 혼란스러운 듯한 모습을 보인다.

〈지식〉

「단테」라는 말로부터, 서사시 「신곡」을 쓴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 알리기에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떠올린다. 「베르길리우스」는 「신곡」의 등장인물이다.

● 남자의 외견

길게 자란 흑발과 창백한 피부가 특징적이다. 서양인처럼 생긴 얼굴이며, 신장은 2미터에 가깝다. 몸에 걸치고 있는 외투와 하얀 커터 셔츠에는 마른 진흙 같은 것이 묻어 있으며 복부에는 검붉은 혈액이 묻어있다.

● 단테에 대해

「모른다. 단테. 라는 단어만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단테가 아님 것인가?」

「나의 정체를 가르쳐주지 않겠나. 나는 누구인가?」

● 어디에서 온 것인가 / 그 외에 기억하고 있는 것

「열차와 배에 타고 바다를 건너왔다.」

「그리고…… 베아트리체를 찾고 있었다. 그녀와 만나야 한다.」

〈지식〉

베아트리카라는 것은 이탈리아어권 여성의 이름이다. 가장 유명한 것은,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는 여성일 것이다.

- 〈관찰력〉, 쓰러진 남자의 소지품을 본다

품에 명함 지갑이 있다. 명함에는 「클라인 생명 보험 상호 회사 일본지부」라고 쓰여있다. 「사토 아츠시」라는 소속과 이름 외에 일본 지부와 미국 지부 사무실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일본 지부는 도쿄도 신주쿠구에 있는 듯하다.

○ 인터넷에서 조사해봐도 명함에 쓰여있는 정도의 정보밖에 얻을 수 없다. 또한, 전화를 걸어도 아무도 받지 않는다.

- 쓰러져 있는 인물에 대해

「.....어떤 물건을 달라고 해서, 좀 다투게 됐다. 그리고 찢렸다.」

「.....내가 겁먹게 만들어버린 모양이다. 평정을 잃었던 것처럼 보였다.」라며 시선을 땅으로 떨어뜨린다. 땅에는 접이식 나이프가 칼날이 노출된 채로 굴러다니고 있다.

- 상처에 대해

「문제 없다. 이미 막혔다.」

그가 피 묻은 옷을 들자 이미 상처는 없고, 칼날에 의해 뚫린 구멍이 옷에 나 있을 뿐이다.

- 어떤 물건에 대해

그가 품에서 수십 장의 종이 뭉치를 꺼내든다. 종이 뭉치는 꽤 오래되었고, 열화된 종이에 잉크로 뾰뾰하게 문자가 쓰여있다. 문자는 필기체처럼 보인다.

〈자연*〉

* 원문 박물학. 6판 기능이며 7판에서 자연으로 대체. 하지만 맥락 상 〈감정〉이 좀 더 적절해보입니다.

이 종이가 양피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양피지란 식물성인 파피루스를 대신해 3, 4 세기 쯤에 일반적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15세기 정도까지 주로 아나톨리아와 유럽 지역에서 사용되었다.

○ 자세히 본다, 무슨 언어인지 본다는 선언이 있는 경우 시크릿 다이스로 <라틴어 -20>* 또는 <이탈리아어 -20>* 판정을 한다. 성공한 경우 이것이 이탈리아어의 방언인 토스카나어로 쓰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난해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신, 여자, 천계 등의 단어를 겨우 확인할 수 있다.)
판정의 실패 성공에 관계 없이, 이 종이 뭉치는 아마추어가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문가나 지식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7판 컨버트 시 패널티 다이스 1개

- 종이 뭉치에 대해

「모른다. 정신 차리고 보니 이것을 가지고 열차에 타고 있었다.」

「소중한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이것은…… 전낼 수 없다.」 라고 하며 다시금 외투 안쪽에 숨겨버린다.

- 읽을 수 있는 거냐고 묻는다

「읽으려고 하면 머리가 심각하게 아프다…….」

(대화가 일단락되면)

수수끼끼의 남자는 종이 뭉치를 넣은 품에 손을 겹치고는 탐사자들에게 묻는다.

「……부탁이 있다. 나의 기억을 되찾아주었으면 한다.」

「나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를 찾아주지 않겠나.」

○ 탐사자가 기겁지 않은 반응을 보일 경우 「이것으로 보수를 대신할 수는 없겠는가」 라며 품에서 손이 차고 넘칠 정도의 금은보화를 꺼내 의뢰라는 형태로 탐사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온다. 이것들은 숨마누스의 묘에 묻혀있던 장식품이며 <홍정*> 등으로 감정에 성공하면 각인과 모티브를 통해 적어도 18세기 이전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금 세공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7판에서 매혹 / 말재주로 대체되었으나 역시나 맥락 상 <감정>이 적절해보입니다.

「나에게 이름은 없다. 좋을 대로 불러라.」

「대신, 그대들의 이름을 들려주었으면 한다.」

이하, 그의 이름은 「◎◎」 (탐사자가 붙인 이름)으로 기재된다.

이후 PC 1은 경찰서에 돌아가게 된다.

◆ 경찰서 (PC 1 개별 행동)

PC 1이 돌아온 수사 본부는 소란스러웠다. 전화가 끊임없이 울리고 많은 사람들이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뛰어다니고 있다. 니노미야에게 들은 회의실로 향해 멤버들이 모이자 곧바로 자료들을 가지고 상사인 형사가 온다.

「잘 모여주었다. 서론은 생략하지.」

「금일 18시경, 도내 각지에서 행방불명된 입원 환자 14명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피해자들은 선 채로 두 팔을 벌리고 손바닥을 말뚝 같은 것으로 관통당한 상태로 사망해있었다.

」

「전원, 복부가 파열되어 있었으며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모두, 입 안에 자필 메모 용지가 들어있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봐주길 바란다.」

라고 말하면서 종이로 된 자료를 건넨다.

→ 【입원 환자 14명의 시체】의 정보를 제시.

이 변사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이하의 4가지다.

- 시체는 선 채로 양팔을 벌리고 손바닥을 말뚝 같은 것으로 관통당했다.
- 복부가 파열되어 있다.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추정된다.
- 입 안에 메모 용지가 들어 있으며 14명 전원이 다른 내용이었다.
- 시체 바로 옆에는 피로 쓰인 문자가 「meditati」라고 크게 쓰여 있었다.

어느 정도 설명을 마친 후, 형사는 말을 계속했다.

「그리고, 동일하게 금일 18시경, 입원 환자의 시체와는 다른 종류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변사체가 발견된 것은 도쿄도 지요다구 나가타초에 있는 국회의사당의 현관 앞.」

「이쪽은 손상이 심각해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시체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는 편이 빠르겠지. 끔찍한 시체다. 각오해.」라고 말하고는 프로젝터의 스크린에 사진을 비췄다.

찍혀 있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검붉게 물든 무언가다. 그것이 가죽이 벗겨진 인간의 신체라고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다. 강한 증오를 가지고 가죽을 벗긴 것인가, 혹은 작업의 일환으로 담담하게 일을 행한 것인가, 누가, 언제, 무엇을 위해…… 일체의 의문을 거절하는 듯한 기괴함이 시체에는 있었다.

오른손을 턱에, 왼손을 자신의 무릎에 대고 허리를 굽혀 사고하는 그 기이한 물체는 나라의 중추, 「백아의 전당」이라 찬양받는 국회의사당의 정면에 그저 앉아있었다. SAN C (1 / 1d4).

〈아이디어〉

이 변사체의 포즈가 로댕의 조각 「생각하는 사람」과 닮아있다고 느낀다.

→ 상기한 내용을 합친 것으로 【국회의사당의 변사체】의 정보를 제시.

「입원 환자의 시체와 국회의사당의 변사체,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메모와 피로 쓴 글씨, 어느 쪽도 단테 알리기에리의 「신곡」이라는 작품의 한 구절이라는 듯해.
」

「무언가의 의미를 가진 범인으로부터의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제부터 우리는 두 개의 사건에 대응해야 한다.」

「입원 환자의 연속살종사건…… 아니, 집단 엽기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

「그와 병행하여 국회의사당의 사건에도 수사 인원을 투입해나간다.」

그는 멤버 몇 명의 이름을 읽고 국회의사당의 사건의 응원으로 가도록 지시한다. 그 중에는 니노미야의 이름도 있었다. PC 1은 계속해서 입원 환자의 사건, 니노미야는 국회의사당의 사건을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니노미야와는 나누어져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어느 쪽 사건도 현 시점에서 범인의 요구는 불명.」

「하지만 거의 같은 시각에 시체가 발견된 것이나, 단테의 「신곡」이 인용되어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동일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너희들은 시가지의 순찰과 함께 범인의 범행 동기, 시체의 공통점, 문장의 해독을 해주었으면 한다.」

「질문 있는 사람 있나?」라고 하며 회의실 전체를 둘러본다.

- 검시에 대해

현재 시도(祠堂)가 진행하고 있다. 내일 아침 이후 경찰서에 가면 시도와 면회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설명을 마치자 이 자리는 해산하게 된다. 니노미야는 어쩐지 어렵다는 듯한 얼굴을 한 채로 배포 자료와 마주하고 있다.

- 국회의사당 사건의 수사에 대해

「어느 쪽도 엄청난 사건이 되어버렸네.」

「나누어져서 수사인가……. 동일범일 가능성도 있고, 이쪽의 정보 중에서도 공유할 수 있는 건 알려줄게.」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 PC 1의 성격에 따라서는 「너 한숨 돌리거나 하는 거 잘 못하잖나. 미친듯이 달려나갈까봐 걱정이야.」, 「(보호자인) 내가 없어도 괜찮은 거냐~?」와 같이 PC 1과 개별 행동을 하게 된 것을 그 나름대로 걱정해준다.

PC 1이 경찰서에서 수사 회의를 하고 있을 무렵, PC 2·3은 ◎◎과 행동을 함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정체 모를 기억상실자인 하지만 탐사자들의 지시에는 어느 정도 순종한다.

경찰의 적당한 부서에 신병을 인도하려고 하면 그는 「그대들은 이곳에 없는 건가.」라며 마음이 놓이지 않는 듯 탐사자를 본다.

만약 그와 만난 뒷골목에 ◎◎을 두고 간다면, 다음 날 이후에도 ◎◎과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 ◎◎에게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

◎◎을 무시하거나 그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차단해도 시나리오 클리어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단테의 유고 (《시노소글리스 송환》 주문)를 입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로스트 확률이 대폭 상승한다.

◎◎에게 관여하지 않아도 자료 조사를 위해 우에하라 켄조를 방문하면 클라인 생명의 안대 쓴 남자가 등장하고, 「뒷골목의 남자 혹은 남자와 접촉한 탐사자들이 유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다른 에이전트에게 공유한다. 「구생회」에 잠입하고 있던 존 애덤스를 고문하는 것으로 정보가 누설되고, 결과적으로 우에하라 켄조의 집은 화재로 불타버린다. ◎◎이 화재로부터 탐사자들을 지켜주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탐사자들의 눈앞에서 우에하라 저택이 완전히 붕괴한다는 처리를 한다.

■ 기억 ~ 꿈

……탐사자들은 꿈을 꾸다. 탐사자는 홀로 안개 속에 있다. 그런데도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는 것은 어째서일까. 아아, 그렇다. 자신은 지금 행복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옆에 있는 때.

그것은, 누군가의 웃는 얼굴을 보고 있는 때.

그것은, 자기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때.

그것은, 건강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때.

하늘로부터 비쳐오는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내려온다. 반짝이는 햇빛 속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눈다.

철학을, 시를, 노래를, 문학을, 정치를, 희망을.

우리는 하늘을 향해 뻗은 손가락으로 숫자를 그린다.

가슴 한가득 차오른 행복을 끌어안으며, 깨어나기 아쉬운 꿈은 깨어간다——

■ 탐사 1일차

그러한 신기한 꿈에서 깨어 탐사자들의 하루가 시작된다.

10월 29일, 아침. TV와 SNS를 보니 어젯밤의 사건에 대한 화제로 가득하다. 입원 환자의 메모 내용은 매스컴에서 크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국회의사당의 기둥에 새겨져 있던 것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입원 환자의 시체의 메모도 「신곡」과 관계되어 있다」부터 시작해 파란 시트에 덮인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 마치 처참한 사건 현장을 실제로 본 것처럼 말하는 영터리 코멘트까지, 어딘가 들떠있는 듯한 세간의 반응이 눈에 들어온다. 전국의 서점과 통판 사이트에서는 「신곡」 관련 서적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모양이다.

(시간 경과에 의한 장기적 광기 계산을 리셋한다.)

탐사자들은 아침, 낮, 밤, 이렇게 3회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 입원 환자의 연속실종사건(집단엽기살인사건)의 수사 및 메모의 해독
- 우에노 공원에서 야생동물의 괴사
- ◎◎의 기억을 되돌려주는 것

적어도 이 세 가지에 관한 정보를 관련 시설에서 모아야 할 것이다.

◆ 도서관

단어 지정과 <자료조사> 성공 판정으로 정보를 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는 지정 단어, ☆은 시나리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보의 중요도를 나타낸다. (3단계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 많을수록 중요하다)

○ 단테와 「신곡」에 관한 정보는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 지식이며 시나리오 공략을 위한 힌트가 아니다. PL이 단테와 「신곡」에 관한 광대한 지식을 암기할 필요는 없다. 해당 사항은 PL에게 전달하는 편이 PL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도서관 파트에서 세션이 정체하기 쉬우나,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 키워드 지정의 범위를 어느 정도 유연하게 잡는다. (「판정」이라는 대가에 대한 보수를 준비한다)

- 조사 시간을 리얼 타임으로 30분 ~ 1시간으로 제한한다.

* 이것은 보이스 세션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텍스트 세션인 경우 좀 더 여유롭게 잡는 것을 추천합니다.

- 도서관에서 다 조사하지 못해도, 이후 구제 조치(켄조의 자택)가 있음을 전한다.

【단테 알리기에리】★★★★

<단테> <신곡>

【베르길리우스】★★☆

<단테> <신곡> <지옥편> <연옥편>

【단테의 생애】★★★★

<단테> <신곡> <지옥편> <피렌체>

【신곡】 ★★★

〈단테〉 〈신곡〉

【신곡의 구성】 ★★☆☆

〈단테〉 〈신곡〉 〈기독교〉 〈삼위일체〉 〈성수(聖數)〉

【신곡의 스토리】 ★★★

〈단테〉 〈신곡〉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신곡 - 지옥편의 개요】 ★★★

〈단테〉 〈신곡〉 〈지옥편〉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신곡 - 연옥편의 개요】 ★☆☆

〈단테〉 〈신곡〉 〈연옥편〉 〈연속실종사건의 메모 용지〉

【신곡 - 천국편의 개요】 ★☆☆

〈단테〉 〈신곡〉 〈천국편〉

【지옥의 구조】 ★★☆☆

〈단테〉 〈신곡〉 〈지옥편〉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보티첼리〉 〈지옥의 지도〉

【최후의 13곡】 ★★★

〈단테〉 〈신곡〉 〈천국편〉 〈유작〉 〈라벤나〉

【산드로 보티첼리】 ★☆☆

〈보티첼리〉 〈신곡〉 〈지옥편〉 〈피렌체〉 〈지옥의 지도〉

【보티첼리의 「지옥의 지도」】★☆☆

〈보티첼리〉〈신곡〉〈지옥편〉〈피렌체〉〈지옥의 지도〉

【오귀스트 로댕】★☆☆

〈로댕〉〈생각하는 사람〉〈「지옥의 문」〉〈신곡〉

【로댕의 「지옥의 문」】★★★★

〈로댕〉〈생각하는 사람〉〈「지옥의 문」〉〈신곡〉〈「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생각하는 사람】★☆☆

〈로댕〉〈생각하는 사람〉〈「지옥의 문」〉〈신곡〉〈「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베아트리체】★★☆

〈단테〉〈신곡〉〈천국편〉

【삼위일체】★☆☆

〈기독교〉〈성수(聖數)〉〈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신곡〉〈삼위일체〉〈기독교〉〈성수(聖數)〉

▷ 【신곡 - 지옥편의 개요】 정보가 제시된 경우, 【국회의사당의 변사체】의 문장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가 「신곡」 지옥편의 제3곡에서 인용된 것임을 알게 된다.

이것은 지옥의 입구에 있는 문에 새겨진 말로, 깊은 절망을 예견하게 하는 것이다.

▷ 【신곡 - 연옥편의 개요】 정보가 제시된 경우, 【입원 환자 14명의 변사체】의 입에 들어있던 메모 용지가 연옥편의 발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연옥」은 지옥과 달리 혹독한 시련을 받음으로써 생전의 죄를 씻어내고, 영혼을 정화하는 것이 가능한 장소다.

▷ 피로 쓰인 「meditati」라는 글씨의 의미를 조사하는 경우, 라틴어로 「상상해라」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신곡」이 후세에 끼친 영향의 예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잡담 등으로 전해두면 알기 쉽다. 「최후의 심판」은 바티칸 궁전의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제단에 그려진 프레스코화로, 세계유산에도 등록되어있다. 미켈란젤로는 「신곡」의 지옥편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 ◎◎이 도서관에 동행하고 있을 경우

탐사자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하며 서적을 운반해주거나 익숙하지는 않지만 조사를 돕는다. 그러던 도중 우연히 찾은 「두 명의 신」이라는 그림책을 손에 들고 계속 서있더니, 「머리가 아프다. 무언가를 떠올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책장에는 같은 작가의 또다른 작품이 꽂혀있다.

→ 【별들의 아이】의 정보를 제시.

○ 【별들의 아이】는 「판의 아이인 마키타 쿄이치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신을 분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힌트이기도 하다. 클라이맥스에서 《위대한 신, 판》을 목격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정보는 가능한 한 제시해주는 것이 좋다.

○ 기억의 단서로써 ◎◎이 두통을 호소하는 것은 「두 명의 신」, 단테, 신곡, 이탈리아 관련 정보다. 특히 단테, 신곡, 이탈리아 관련 정보에는 「그립다」고 이야기한다.

(어느 정도 조사를 마쳤거나 조사가 정체되어있을 때)

책상 위에 자료들을 펼치는 탐사자들의 모습을 보고, 한 노인이 말을 걸어온다. 그는 우에하라 켄조의 집에서 자료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 인물로, 탐사자들에게 우에하라 켄조의 정보를 공유해준다.

- 곧잘 도서관의 자료실을 이용하는 손님 중에 우에하라 켄조라는 인물이 있다.
- 중세의 유럽 문학이 전문이며 옛날에는 대학의 교단에도 섰다고 한다.
- 우에하라 저택에는 귀중한 책과 문헌이 많이 소장되어 있어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져 있다.
- 조사를 위해 그의 저택을 방문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 보름 정도 전부터 자료 조사를 위해 그쪽으로 가있는 듯하니, 당분간 도서관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몸과 가방의 이곳저곳을 더듬고는 구깃구깃한 한 장의 명함을 탐사자들에게 보여준다. 명함에는 「우에하라 켄조(上原憲三)」라는 이름 외에 자택의 장소와 휴대전화 번호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명함의 뒷면에는 우에하라 켄조가 일찍이 근무하고 있었던 대학에서의 직함과 현재 소속되어 있는 연구회, 해외의 단체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 경찰서 영안실 (시도 유きの 협력)

연락을 취하면, 시도와 면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는 방금 전까지 검시를 하고 있었던 듯, 드물게도 조금 지친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다.

「어제부터 업무량이 많아도 너무 많아져서 말야. 도저히 다 손을 댈 수가 없어서 다른 쪽으로도 돌리기도 했어.」

「지금 와 있는 건 4명이네. 상당히 끔찍한 시체인데 볼래?」 라고 말하며 탐사자에게 마스크를 건넨다.

시도가 시체에 씌워져 있던 시트를 벗겨낸다. 그것은, 사람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기이했다. 어느 정도 시도가 정돈을 한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복부를 중심으로 파열된 신체는 검붉은 살점과 내장, 뼈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터져버린 석류나 깨진 수박을 연상시켰으나 마스크 너머로도 느껴지는 생생한 피 냄새와 어슴푸레한 형광등 아래의 창백한 시체에 순간 눈이 아찔해졌다. 이상한 것은, 어떤 시체도 행복한 듯한 미소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SAN C (1 / 1d4)

<관찰력>

상처 부위 근처에 검은색의 끈적한 무언가가 묻어 있다.

- 묻어 있는 것을 지적한다

「잘도 눈치챘네. 그거, 입 안이랑 식도에는 전혀 묻어있지 않아.」

「그런 끈적한 걸 입으로 섭취했다고 하면 분명 흔적이 남을 거 아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위에 들어있던 폭탄인지 뭔지가 폭발해서 흔적도 같이 튀어날아가 버린 게 아닐까?」

「아니면, 입으로 섭취한 게 아닐 가능성도 있네.」

「뭐, 어찌됐건 화약의 흔적도 없지만……」 라며 생각에 빠진다.

「사실은 말야, 이렇게 내부에서 배가 찢어진 시체랑 비슷한 케이스를 딱 하나 알아.」

「20년 정도 전의 사건인데 말이지, 해외에 가있었던 일본인 부부의 아내 쪽이 변사했어.」

「바로 그 여자의 배가 안쪽부터 팍! 찢어져있었다는 거야.」

「한참도 너 전에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였으니까 자세히는 모르고, 방금 전까지 잊고 있었지만,」

「그래서 문득 떠올라서 아까 전에 다시 조사해보니까, 일단 말이야. 기록이,」

「그 사건에 관한 모든 기록이 삭제되어 있는 거야. 경찰 내부의 데이터 베이스라고?」

「뭔~가 이상하지,」

「뭐, 옛날 신문 기사 같은 게 어딘가에 남아있다면 조금은 알지도 모르지?」

잠시 후 니노미야가 시도를 찾아온다. PC 1이 있다면 평소처럼 인사하지만, 안색이 나쁘고 웃는 얼굴도 조금 어색하다.

「요, 와 있었냐. 마침 잘 됐다. 아니…… 마침 잘 됐다, 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못한 말이겠구나,」

「사건의 속보다. 오늘 아침 6시경, 새롭게 3구의 시체가 보고됐어,」

「아마도, 국회의사당의…… 변사체 사건에 관계된 거라고 생각해,」

「이게 보고서야,」 라고 하며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PC 1과 시도에게 건넨다.

→ 【시체의 보고서】의 정보를 제시한다.

〈아이디어〉

피해자 중 하나인 거물 무대 배우가 수 년 전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이 불거졌던 것을 떠올린다.
증거 불충분으로 진상은 흐지부지되어 넘어갔을 터다.

▷ 〈아이디어〉 정보를 지적한다

니노미야는 표정을 더욱 굳히고 자리에 있기 거북한 듯이 머뭇머뭇 이야기를 꺼낸다.

「……그거랑 별개로 말이야. 국회의사당의 시체, 신원이 밝혀졌어,」

「이세지마 타케시. 전 내각 총리대신이다,」

이세지마 타케시(伊勢島 武志)는 8년 전에 내각 총리대신을 사임한 인물이다. 퇴임 후에도 중의원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었으나, 3년 전에 정계를 은퇴했다. 재임 중에 「가스파르 사건」이 발각되는 바람에 크게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었었다.

내내 니노미야는 개운치 않은 말투였기에, 그가 무언가를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명백했다.

▷ 상기된 <아이디어> 성공에 이어 <교섭 기능>에 성공한다 (PC 1 이외에는 어려운 성공)

「……그래. 나도 너한테 전해두고 싶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라며 PC 1의 눈을 보고 이야기를 꺼낸다.

「프로듀서, 무대 배우, 국회의원……. 책형을 당한 세 변사체의 옆에는 반드시 어떤 자료가 놓여있었어.」

「전부, 살해된 피해자의 미성년자 성매매나 아동학대 등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였다.」

「그것과 별개로, 국회의사당에서 사망한 이세지마 타케시 전 총리의 자택에도 자료가 보내졌어.」

「내용은, 8년 전에 일어난 세계적인 부정 사건…… 가스파르 사건에 관한 거였다나봐.」

「내가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자료는 상부에서 회수해갔어. 그 후에 엄중한 함구령이 내려졌고.」

「재판 받지 않은 죄를 저지른 인간들이 살해당하고, 주모자가 사망한 가스파르 사건이 다시 파헤쳐졌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네가 아니지?」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초췌한 모습의 니노미야를 진정시키듯이 시도는 그의 옆에 서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악행을 폭로하는 자료라는 게 정말인지는 검증의 여지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자네는 조금 쉬는 게 좋아. 인간은 지쳐있으면 주변이 잘 안 보이게 되거든.」

「……그렇네요. 그래도, 이야기하니까 조금 진정됐어요. PC 1도 고마워.」

「슬슬 돌아갈게. 이세지마 전 총리와 가스파르 사건에 대한 건 비밀로 해줘.」라고 말하고 니노미야는 영안실을 뒤로했다.

니노미야를 배웅한 뒤, 시도가 불쑥 말했다.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건 폭력이나 다름없네.」

「맞다. 일련의 사건, 세간에서 뭐라고 불리기 시작했는지 알아?」

「“신곡 살인사건”이란 다. 내제 범인의 목적은 뭘까, PC 1 군.」

○ 이 자리에서 <아이디어> 와 <교섭 기능>에 성공하면(「가스파르 사건이 누명일지도 모른다」는 플래그를 세우면) 니노미야를 생환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 이세지마 전 총리의 신원은 본인의 헌혈 이력, 맹장 수술 자국, 폐에서 보이는 흡연력, 귀의 형태 등으로 특정할 수 있었다. 또한, 그저께 밤에 가족들로부터 행방불명 신고가 들어왔었다.

○ 기억 상실의 화제를 시도에게 물어본 경우 「기억 장애인가……. 바로 떠오르는 건 사고 후의 후유증이거나 심인성 기억상실이네. 심인성은 트라우마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기억에 뚜껑을 덮어버리는 거야.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나 충격을 주면 떠올리는 거 아냐? 때려보는 게 어때?」 와 같은 말을 진지한 얼굴로 말한다.

◆ 그 외의 탐색 장소

제안에 따라 이하의 탐색 장소에 향하는 것이 가능하다.

▶ 우에노 공원 내부

〈관찰력〉

나무들 사이, 새의 시체를 여럿 발견한다. 시체는 들개에게 습격당한 것 같은 흔적이 있는데, 날개를 펼친 채 반원 형태로 늘어서 있다. 또한, 시체의 상처 부위 근처, 수목이나 식물의 일부분에 검은색의 끈적한 무언가가 묻어있다.

○ 검은색의 끈적한 무언가는 《지옥의 식물》로부터 만들어진 점액이다. 이것 자체로는 큰 해가 되지 않으나 무언가 부패하는 냄새나 오물과 비슷한 이상한 냄새가 난다.

▶ 병원

코사가 나나코가 입원해있던 병원. 간호사에게 탐문을 하면 「밝고 착한 아이였다」, 「친구와 지인이 많고, 병문안을 오는 사람도 곧잘 보였다」, 「다른 입원 환자의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었다」와 같은 말을 들을 수 있다.

탐사자의 운에 따라서는 「코사가 나나코가 연관되어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병원 내에 어떤 신흥 종교의 권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경찰서 내의 자료실

과거의 사건 파일과 관련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 PC 1 이외의 탐사자가 동행하는 경우는 〈교섭 기능〉이나 어떠한 연줄이 필요할 것이다.

〈자료조사〉에 성공하면 【구생회】와 놓쳤던 정보(【검찰청·도쿄 지검의 정보 유출 사건】 【가스파르 사건】 등)를 입수할 수 있다.

○ 【23년 전의 변사 사건】은 당사자인 야츠나가에 의해 지워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사할 수 없다.

▶ 사건 현장의 방법 카메라

자료실과 똑같이 기능 판정이나 연줄이 필요하지만, 사건 현장 부근의 시설이나 경찰서 내의 감식과에서 방법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건 발생 전의 영상에는 사건 현장 부근에서 몇 명의 남자들이 서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그 후, 부자연스럽게 화면이 흔들리고 남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된다. 그 뒤로 열 몇 시간 후, 갑자기 책형을 당한 피해자의 몸이 출현한다. SAN C (0 /1d3).

<관찰력 어려운 성공>

굉장히 명료하지 않은 영상이긴 하지만, 남자들 중 한 사람이 손바닥에 커다란 상자 같은 것을 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찍혀 있는 것은 「구생회」의 멤버다. 클라인 생명의 에이전트로부터 탈취한 정지의 입방체를 사용하여 연속살인사건을 반복하고 있다. 어떤 사건 현장에서도 비슷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 클라인 생명 보험 상호 회사 일본 지부

도쿄도 신주쿠구의 잡다한 건물들 사이에 클라인 생명의 일본 지부 사무실이 있다. 안에는 사람은 없고, 텅하니 빈 사무소의 책상에 덩그러니 전화가 놓여있을 뿐이다. 전체적으로 먼지가 쌓여있고, 물건이 적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전혀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평소 회사로써 영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관찰력>

책상 구석에 놓여있는 종이 조각에 눈이 간다. 「구생회」라는 단체에 의한 자기 계발 세미나의 공지다. 일시는 10월 30일 15시부터. 다이토구에 있는 빌딩의 한 방에서 진행되는 것 같고, 참가료는 무료, 즉석에서 참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적혀있다. 사타노 류지(左田野 隆司)라는 인물이 강사인 모양이다.

세미나의 설명문에는 「행복한 삶이란?」, 「열심히 살고 있는 당신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 「지고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 같은 문자가 늘어서 있다. 전단지의 구석에는 「9(九)」라는 숫자와 양손에 삼각형이 겹쳐져 있는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로고 마크 옆에 「J.A」라고 손글씨로 메모가 되어있다.

■ 우에하라 켄조 저택의 탐색

우에하라라는 문패가 있는 2층 건물의 단독 주택. 열쇠로 잠겨있고, 인터폰을 눌러도 아무도 없는 것 같다. 간유리로 된 창문 너머로 수북이 쌓인 책더미가 몇 개 보인다. 여기가 우에하라 켄조 저택인 것은 틀림 없는 것 같지만, 역시 사람의 기척은 없다.

그러자 갑자기, 탐사자 중 한 명이 뒤에서 누군가에게 밀려 쓰러져 그대로 땅에 무릎을 꿇게 된다. 뜨거운 덩어리가 등을 올라타고 귓가에서 「하아…… 하아……」 하는 축축한, 뭔가의 뜨거운 한숨이 들려온다. 허둥대며 보면, 커다란 개…… 보더 콜리가 탐사자에게 달려들어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산책용 하네스를 한 개는 기쁘다는 듯 떠들썩하게 난리를 치고 있다. 이윽고 「이녀석! 미케! 그만해!」 라는 소리와 함께 저 너머에서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달려온다.

「미안해. 다치진 않았어?」 「집 앞에 있어서 손님인줄 알았나봐.」

- 이 집에 사는 사람인가? / 우에하라 켄조와 만나고 싶다

「선생님한테 볼일이 있는 거야? 선생님은 이탈리아로 가서 없어.」

- 언제 돌아와?

「글쎄. 연락도 전혀 없고, 한동안 안 돌아오는 거 아닐까?」

- 가족? 딸?

「넌 친척. 나는 미케를 돌봐주러 올 뿐이니까.」

- 이름을 묻는다

「무츠키(睦月).」

- 개에 대해서

「미켈란젤로. 선생님이 키우는 개.」 「애, 아무한테나 그래.」

- 자료를 보고 싶다

「아아, 그런 거구나. 좋아.」라며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익숙한 손짓으로 현관을 연다. 미케를 현관 앞에서 기다리게 하고, 탐사자들을 안으로 들인다.

- 괜찮아?

「딱히? 익숙해. 선생님은 이상한 지인들이 많으니까.」

거실은 비유하자면 지식의 소굴, 책들로 이루어진 집. 도대체 얼마나 시간과 자금을 들여서 모은 것일까, 동서고금의 서적과 자료가 벽의 책장을 빼곡히 채운 모습은 장관이었다. 거의 모든 면을 책장으로 둘러싼 방은 압박감마저 들었다.

「집은 거실에 뒀주라. 복사하는 건 괜찮은데 가지고 가는 건 엄금이야.」

계속해서 그녀에게 안내받은 서고는 거실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마치 방 하나가 통째로 거대한 대학 도서관의 서고 같았다. 좁은 간격으로 놓인 철제 선반에 자료들이 가득히 들어차있고, 책과 파일 류는 책 표지 뒷면만 봐도 흥미를 끌 만한 문헌들이 잔뜩 늘어서 있다. 여기라면 아까 다 조사하지 못한 것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 우에하라 켄조 저택에서의 자료 조사

한 명당 3회까지 <자료조사>를 굴리는 것이 가능. 성공 수에 따라 도서관 시설에서는 제시하지 못했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클라인 생명 보험 상호 회사

조사가 끝나면 <듣기> 판정

집 밖에서 개가 심하게 짖고 있다. 거실의 무츠키와 누군가의 대화 소리가 들리고, 그 직후 무츠키의 작은 비명과 식기가 깨지는 소리가 함께 들린다.

거실로 달려나가보면 깨진 컵의 파편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무츠키의 양손을 뚝딱 잡고 있는 금발의 남자가 있다. 생긴 것이나 커다란 몸을 보아 외국인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새까만 정장과 오른쪽 눈의 검은 안대가 기이한 모습이었다. 말을 걸어보면, 그는 별반 놀란 기색도 없이 무츠키에게서 떨어지고는 뻔뻔스러운 미소를 한 채 탐사자들과 마주한다.

- 누구냐

「버지니아 펜타곤」

<지식> <아이디어>

펜타곤은 아메리카 합중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미국 국방부의 본청사를 말하는 것이다. 상공에서 본 건물이 오각형인 것에서 pentagon(영어로 오각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즉, 숨길 생각조차 없는 가명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 가명인가?

「일본식 인사라도 해줄까?」

「도-모, 스미마셴, 도-모 (저영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가 품에서 꺼낸 명함에는 「클라인 생명 보험 상호 회사 미국 지부 버지니아 펜타곤」이라고 쓰여있다.

- 무츠키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새끼 강아지가 계속 따라 붙길래, 좀 놀아주고 있었을 뿐이야.」

- 무엇이 목적인가

「우리 신입 사원이 신세를 졌다는 것 같아서, 감사 인사를 하려고 온 거야. ……」라는 건 표면상의 이유고,」

「유고(遺稿)를 넘겨라,」

「단테의 유고를 가지고 있지. 그걸 내놔라,」

- 왜? / 단테의 유고라는 건?

「단테 알리기에리의 친필 원고는 특급 금서에 속한다. 우리가 적절하게 관리하지,」

- 종이 뭉치의 문자를 읽을 수 있는지 묻는다

「토스카나어인가? 안타깝게도 나는 그쪽엔 어두운 편이라서 말이야,」

「회수한 후에 천천히 해독해주도록 하겠어,」

- 거절한다 / 난폭한 행동이다

「교섭의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도 상냥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지,」 라 하고는 품에서 검은 권총을 꺼내 「가지고 있는 건 너냐?」 라고 말하며 총구를 한 명 한 명에게 향한다.

그 때, 황하는 소리가 현관 쪽에서 난다. 양말을 신은 발로 쿵쿵 소리를 내며 복도를 걷는 소리가 이어진다.

「아아…… 유독 비체가 젖는 것 같더라니, 손님이 잔뜩 와있네,」

거실에 들어온 것은, 안경을 쓴 엄청난 곱슬머리의 남자. 구겨진 스웨터에 코트를 걸치고 한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다.

「다녀왔습니다…… 아니 그보다, 곤란해,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이걸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펜타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이전 좀 불리한 것 같네,」 라며 탐사자에게 향했던 권총의 방아쇠를 당긴다. 순간, 탕! 하는 가벼운 파열음과 함께, 권총에서 선명한 빛깔을 한 색색의 장식 종이와 국기가 튀어나온다.

「어쩔 수 없지. 오늘은 이쯤에서 봐주겠어,」

「신발을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정보를 주지. 댁들…… 죽음에 매료되어 있군,」

「대충, 보면 안 되는 것을 봐버렸겠지. 짚이는 건 없나?」라며 탐사자들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 탐사자들이 「구생회」에 관한 문자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을 경우 남자의 입에서 「구생회, 맞지?」라고 힌트를 내준다. 남자는 자세한 것은 말하려 하지 않지만, 대신 무츠키로부터 정보를 듣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각이 있든 없든…… 어찌 됐든 대들 이대로라면 가까운 시일 내로 죽어。」

「그렇지, 교환 조건으로 하자. 유고를 나한테 내놔. 그럼 정보를 주지。」

「이 몸은 상냥하니까 말이야. 유예를 주지。」

「내일 밤, 다시 오겠다. 그때까지 결정해둬。」

안대 쓴 남자는 발을 돌려 또각거리는 무거운 구두 소리를 울리며 떠나간다.

○ 안대 쓴 남자는, 사토 아츠시에게 접촉했던 남자(◎◎)와 탐사자들을 쫓아온 것에 지나지 않으며 탐사자 측이 단테의 유고를 소지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에하라 저택에서의 강경한 언동은 허세다.

안대 쓴 남자를 멍하니 보내주고 난 후, 「안녕하세요, 우에하라입니다。」라며 가볍게 머리를 숙인다.

- 조사를 하게 해줬으면 한다

「상관 없어. 사람이 오는 건 익숙하니까。」

- 오늘 귀국이었나?

「그래. 연락할까 생각했는데 휴대전화 충전기를 일본에 두고 가서……」

- 단테의 유고에 대해

「단테라는 건, 그 시인 단테를 말하는 건가?」

「그의 친필 원고는 일체 남아있지 않아. 만약 단테의 친필 자료가 현존한다면 이걸 전세계를 흔들 빅 뉴스야。」

- 어쩌서 남아있지 않는 것인가?

「물라. 「신곡」을 비롯해서 온갖 단테의 원고가 유실됐어.」

「활판 인쇄가 보급되기 전, 한참 전의 사람이니까. 드문 일은 아니야. 아깝기는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먼저 저녁을 먹어도 될까?」

「이탈리아에서부터 계속 이동하기만 해서 말야.」

그 말을 듣고 시계를 보면, 시각은 19시에 가까워지는 시간대였다.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이지. 너희들만 괜찮다면,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을까?」

「나는 샤워를 좀 하고 올게. 집 안에 있는 건 마음대로 봐도 상관 없어.」

무츠키는 「……만드는 건 난데.」라고 말하고는 한숨을 쉬었고,

「아까는 도와줘서 고마워. 간단한 것밖에 없긴 하지만, 먹고 싶은 거 있어?」라며 탐사자를 본다.

○ 탐사자들이 우에하라 저택에 머무르는 것은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는 「종이 뭉치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단독으로라도 우에하라에게 기대려 한다.

◆ 우에하라 켄조 저택의 탐색 (밤)

켄조는 샤워룸으로 향하고, 무츠키는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

우에하라 저택은 【켄조의 방, 창고】를 조사할 수 있다. 탐사자들이 원한다면 외출도 가능.

▶ 켄조의 방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가는 건 조금 꺼려진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켄조의 방 앞으로 가보면 많은 책과 자료가 방에서 넘쳐 복도까지 침식하고 있다. 그 탓에 방 문을 닫는 것은 불가능하고, 프라이버시 같은 건 있지도 않다.

켄조의 방은 【책상, 자료 선반】을 조사할 수 있다.

● 책상

〈관찰력〉

파묻힌 자료들 속에 얹어져 있는 액자를 발견한다. 대학의 연구실로 보이는 방에 지금보다도 훨씬 젊은 켄조와 여성이 찍혀 있다. 촬영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정도 전인 것 같다.

이어서 〈아이디어 -20〉

여성의 생김새가 어딘지 마키타 쿄이치를 닮았다고 느낀다.

(코코하와도 닮았으나 쿄이치 쪽이 좀 더 닮아있다.)

● 자료 선반

〈자료 조사〉

→ 【르뤼에 문서에 관한 자료】의 정보를 제시한다.

→ 【월간 오컬트 잡지 「무」】의 정보를 제시한다.

또한 자료 선반의 바로 옆에는 다이얼 식의 단단한 금고가 놓여있다.

○ 특히나 귀중한 자료와 서적을 보관하기 위한 금고. <열쇠공>으로 여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비어있다.

▶ 창고

조사를 위해 방들을 모조리 찾아보다 보면, 책이나 신문지를 한데 묶어놓은 창고에 도달한다.

<관찰력>

대부분은 상자나 봉투에 담겨 있거나 끈으로 묶여 정리되어 있지만, 딱 하나 끈이 풀려 있는 서적 묶음을 발견한다. 그것들은 중학교 교과서와 졸업 앨범이다.

교과서 → 너털너털한 교과서가 몇 권 나온다. 표지와 내용물에 검은색과 붉은색 매직으로 잔뜩 낙서가 되어있다. 「최악이야」 「제가 했어요」 「죽어」 등의 말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 도저히 내용을 읽을 수가 없다.

교과서의 페이지 사이에 한 장의 사진이 끼워져있다. 장소는 어딘가의 병실, 환자복을 입은 여성의 무릎 위에 어린 무츠키가 안겨있다. 옆에는 남성도 미소를 지으며 찍혀 있고, 무츠키의 유소년기 가족 사진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졸업 앨범 → 도내의 유명 사립 중학교의 졸업 앨범. 3학년 A반의 페이지에 무츠키의 얼굴 사진이 실려 있고, 「유카와 무츠키(湯川 睦月)」라는 이름이 있다. 앨범에는 동급생이 쓴 롤링 페이지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상당히 깨끗한 상태이며 받고 나서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

더해서 <아이디어>

「1학년 때의 전교 소풍」이라는 제목의 사진의 구석에, 마키타 쿄이치와 꽤 닮은 인물이 비치고 있다. 저지의 선 색깔로 보아 무츠키와는 다른 학년인 것 같다.

○ 사진의 남성(부친)은 유카와 쇼타로다. 무츠키는 「가스파르 사건」을 독자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막혀버리거나 포기해버릴 것 같을 때 이 창고에서 과거의 낙서와 가족 사진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피를 흘리지 않는 자해 행위와도 같은 것이지만, 복수를 맹세한 그녀를 복돋아주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

○ 탐사자의 운에 따라서는 【23년 전의 변사 사건】이 기재된 오래된 신문을 찾을 수도 있다.

▶ 주방

거실에 인접한 주방. 요리하는 무츠키의 옆에는 ◎◎가 있으며, 어색한 움직임으로 도와주고 있다.

- 괴롭힘에 대해 무츠키에게 묻는다

「.....딱히. 그런 거 드문 일도 아니잖아.」

「.....친구는 미케만 있으면 돼.」

- 무츠키의 부모에 대해서

「.....어머니는 안 계셔. 내가 어릴 때 병에 걸리셔서.」

- 가스파르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가 말야, 그런 짓을 저질러준 덕분에 정말 힘들어.」

「가족인지 유대감인지, 그런 거 솔직히 귀찮아.」

「인간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

- 켄조와의 관계

「친척 쪽 연줄로 알게 돼서, 공부를 가르쳐준 적이 있을 뿐이야.」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우는 일이 많으니까 미케를 돌봐달라고 부탁 받았어.」

「.....친척집보다 훨씬 마음 편하고, 여기.」

- 마키타 쿄이치에 대해서

「마키타, 쿄이치? 쿄이치......」

「아~ 중학교 때 나보다 두 살 많았던 선배 중에 엄청 멋있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었지.」

「같은 동아리였긴 했을 텐데 얘기해본 적도 없고, 나는 전혀 몰라.」

「근데 성이 그거였나?」

- 동아리에 대해서

「컴퓨터부. 뭐, 동아리 같은 건 이름 뿐이어서 각자 마음대로 놀았을 뿐이야.」

「즐거웠지만 말이지.」

- 켄조의 방에 있는 금고에 대해서

「연구 자료라든가 희귀한 책이라든가 그런 거 넣는 거 아냐? 난 본 적 없지만.」

■ 저녁 ~ 우에하라 켄조와의 대화

- 최근의 사건에 대해

「그거라면 공항에서 신문을 읽었으니 알고 있어.」

「신곡 살인사건, 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 같네. ……거창한 이름을 붙였군.」

- 단테의 친필에 대해

「사실은, 그 양피지가 단테의 친필이라고 단정하는 건 불가능해.」

「단테의 친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필적 감정으로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하지만, 범위를 좁히는 건 가능해.」

「감정은 과학적 방법과 내용의 고증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지.」

「우선은 과학적 방법,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거, 알고 있을까?」

○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 : 지구 상의 동식물은 ^{14}C (탄소 14)라는 방사선을 포함한 원자를 미량 가지고 있으며 ^{14}C 의 수는 동식물의 사후 5730년의 반감기를 가지고 감소해간다. 현대의 ^{14}C 의 수와 원고 용지의 ^{14}C 의 수를 비교함으로써 원고 용지가 어느 정도 전의 물건인지를 대략 좁히는 것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적외선 현미경 검사, 잉크의 특징·확산 검사, 미량 원소 검사 등을 거칠 필요가 있다. (참고 : 닉 토웨스 「단테의 유고」)

「그 외에도 정밀 기계를 사용한 검사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외의 큰 대학에 조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뭘, 기계만 있으면 어느 정도 오차를 포함한 시대 측정이 가능해.」

「그리고 단테의 친필이라고 범위를 좁힐 또 하나의 방법은, 내용을 고증하는 것.」

「같은 시기에 쓰인 것의 문법과 비교하는 것부터, 페이지의 남은 공간에 써넣은 내용, 단테의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약센트 기호나 주석 기호의 유무,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검증해가는 거야.」

「여기까지 하고 나서야 비로소 “단테의 친필 원고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요컨대, 그 종이를 보고 바로 결론을 낼 수는 없어.」

「만약 필요하다면 해외의 지인에게 협력해 줄 수 있는지 내 쪽에서 물어볼게.」

「진위에 대해 엄청 흥미가 있기도 하고..」

○ 탐사자와 PL이 감정의 방법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

켄조는 계속해서 말을 잇는다.

「「신곡」의 자필 원고는 이미 오래 전에 유실되었다고 하지..」

「오리지널부터 최초의 사본으로, 그 사본에서 다른 사본으로 필사되어 갔어..」

「컴퓨터도 카레라도 없는 시대, 엄청나게 많은 문자량을 수작업으로 베껴 써가는 거야..」

「당연히 실수가 발생하고, 일부러 발음하는 방법이나 주석을 달아두는 경우도 있었겠지..」

「필사 과정에서 교정자가 읽기 쉽도록 가필하거나, 혹은 잘못 베끼거나, 해석을 잘못하거나, 바꿀 수밖에 없게 된대거나……..」

「이렇게 1300년대 후반에는 이미 다수의 사본이 존재했다고 해..」

「천필이 일제 남아있지 않은 한편 필사된 「신곡」의 중세 사본 중 현존하는 건 600 종류를 넘는다고 해. 이걸, 성서의 다음으로 많은 사본 수야..」

「너희들은 일련의 사건과 「신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신곡」은 지옥편의 오싹한 정경에 초점을 맞추기 쉽지만, 나는 「신곡」의 본질은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건 파렌케 추방이라는 패잔에서 시작한 단테가, 방랑을 거쳐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에 대한 재생(再生)의 여행이기도 하단다..」

「절망에서 기어올라오는 인간의 재생 이야기, 라고 하면 조금 전근감을 가질 수 있을까?」

- 사진의 여성에 대해

「애인? 그런 거 아니야..」

「대학 선배야. 내 일을 자청해서 도와주는 특이한 사람이었어..」

「죽었어. 사고……인 걸까. 아직 20대일 때였어..」

- 사고에 대해

「……평범한 죽음이 아니었어..」

- 마키타 쿄이치에 대해 묻는다

「……모르는 이름이네。」

- 감사 인사를 한다

「감사 인사를 하고 싶은 건 내 쪽이야.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오랜만이야。」

「누군가에 의해 지켜져서, 역사와 함께 전해져온 것은 모두 똑같이 귀중한 것이지。」

「○○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게 단테의 진품이라면 좋겠다고 강하게 생각해。」

- 어째서 우리를 돕는 것인가

「죽음에 태로되었다. 라는 말을 들은 너희를 그냥 놔두다니, 그럴 수는 없어。」

「역할이 있다면 사람은 살아있을 수 있어. 설령 내일 죽는다고 해도 계속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어。」

「큰 힘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이야기를 듣는 정도라면 할 수 있다고。」

○ 「신곡」이 절망에서 기어올라오는 인간의 재생 이야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켄조의 「역할이 있다면 사람은 계속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대사는 시나리오가 탐사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기도 하다.

「그래서, 단테의 유고……라는 말이 있는 양피지, 자세히 봐도 괜찮을까?」

「아, 물론 처음에 유고의 사진을 찍고 해독은 사진을 보면서 할게。」

「실제 유고는 금고에 보관해서 가능한 한 만지지 않도록 할 거야。」

「걱정스럽다면 ○○ 군이 보고 있는 앞에서 해독해도 좋아。」

「다만, 조금 훑어보는 것만 해도 며칠은 걸리겠지만……」

○○은 탐사자의 얼굴을 보고 양피지를 꺼내지만, 켄조에게 그것을 맡기고는 켄조의 저택에 묵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켄조는 「방은 남으니깐 자유롭게 써도 상관 없어。」라고 말하며 ○○과 탐사자들의 숙박을 흔쾌히 받아들인다.

탐사자가 더 할 일이 없다면 이 날의 탐색을 종료한다.

(시간 경과에 의한 장기적 광기 계산을 리셋한다.)

○ 오늘 밤 이후, 니노미야와는 연락이 되지 않게 된다.

■ 죽음으로의 유혹 ~ 코코하와의 재회

……탐사자들은 꿈을 꾸다. 탐사자는 홀로 안개 속에 있었다.

미지근한 목욕물 같은 행복과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눈을 감는다.

장면이 전개된다. 주변을 둘러보면 그곳은 탐사자의 기억에 있는 장소.

순식간에 이해했다. 이것은 꿈 같은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재생하는 것이다.

자, 그럼 자신에게 있어 가장 큰 절망은 무엇이었나.

누군가의 손을 잡지 못했을 때, 친밀한 자와의 이별, 꿈의 좌절.

배신, 고독, 폭력, 실망, 그리고 절망.

그만해 달라고 마음 속으로 간청해도 기억의 재생은 멈추지 않는다. 기억에 손톱을 세운다.

○ 탐사자들은 가장 큰 트라우마, 후회하고 있는 것에 대한 꿈을 꾸다. 임의의 수치로 SAN C를 한다.

벗이 침대에 누워있다.

힘없는 몸은 시를 읊는 것조차 하지 못하고 고통에 혈떡인다.

벗이 증언대에 서있다.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고는 돌멩이가 부딪쳐온다, 종이 뭉치가 몇 번이고 밟힌다.

벗이 군복에 팔을 꿰고 있다.

철로 된 새가 폭탄을 토해내고, 사랑하는 거리의 기억은 모두 불타버렸다.

나는 언제나, 벗에게 꽃을 바치고 있다.

안개가 자욱이 낀다. 모든 감각을 둔하게 하는 안개가 의식을 빼앗아가고, 다시금 안식의 시간이 찾아온다.

흔들거리는 요람과도 같은 기분 좋은 감각에 몸을 맡겼다——

취침 중에 <듣기> 어려운 성공 판정

꿈 속에서, 작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 켄조가 유고를 반출하기 위해 외출했을 때의 소리. 이 시점에서 금고의 원고는 다른 물건으로 바뀌치기 되어 있고, 켄조는 《시노소글리스의 송환》의 번역만을 우선적으로 끝내두었다.

이른 아침, 탐사자들은 누군가가 흔들어 깨우는 감각에 눈을 뜬다. 그것은 당황한 모습의 무츠키다.

「일어나, 일어나 보라니까!」

「뒷골목에 여자 아이가 쓰러져 있는데, 피가 잔뜩 묻어있어……!」

재촉받는 대로 급히 나갈 준비를 하고 무츠키의 뒤를 쫓아가자 집에서 조금 떨어진 뒷골목에서, 산책용 리드를 착용한 미케가 대기하고 있었다.

옆에는 몸집이 작은 소녀가 쓰러져 있고, 하얀 원피스의 일부가 새빨갳게 물들어 있다. 쓰러져 있는 것은 마키타 코코하다. 코코하는 머리에 미량의 출혈이 있는 것 뿐이고, 큰 상처 없이 단지 기절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찰력〉

코코하가 쓰러져 있는 벽의 근처에 문양이 있다. 잠시 빛을 발하던 그것은 이윽고 벽에 난 흠집처럼 되어버린다.

〈크툴루 신화〉

《관문 생성》이라는 주문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은 비활성화되어 있어 사용할 수 없다.

코코하를 옮기려고 한 순간, 미케가 몸을 크게 떨면서 어둠을 향해 위협하기 시작한다.

안쪽에서 개의 모습을 한 한 마리의 생물이 발을 끌면서 한발한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개는 복부가 찢어 있었고, 몸의 일부가 덩굴 모양의 무언가에 뒤덮여 있었다. 이윽고 크게 몸을 떨고는 검은 덩어리를 토해낸다. 지면에 화악 퍼진 토사물은 식물 새싹처럼 작게 솟아올라 미약한 덩굴을 뻗고 있다.

꿈틀거리는 점액질 덩어리를 흘리며 식물에게 침범당한 사냥개가 조금씩 다가온다. SAN C (1 / 1d10).

● 지옥의 사냥개

민첩 65 db 없음 체력 12

물어뜯기 30% 피해 1d8

공격하여 체력을 0으로 만들거나 〈민첩〉 판정으로 도주 가능.

전투 이탈 시 <아이디어> 어려운 성공 판정

사냥개가 뛰어다니는 모양이 코코하를 노린다기보다는 지키려고 하는 느낌으로 보인다.

탐사자들은 우선 우에하라 저택으로 돌아갈 것이다. 무츠키는 거실의 소파에 코코하를 눕혀달라 말한다.

코코하의 용태를 살펴 보면, 조금 쇠약해져 있는 것 같지만 안정시키면 회복할 듯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머리 쪽의 상처는 꽤 강하게 부딪친 상처인 것 같으니 한동안은 자국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눈을 끄는 것은 원피스에 튼 빨간 피와 코코하의 목에 뚜렷하게 묻은 피로 된 손자국이다.

피 손자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심리학> 판정

손자국을 남긴 범인은 코코하를 살해하려고 목을 잡았으나 심리적인 갈등으로 인해 힘을 줄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코코하의 상태

무츠키는 따뜻한 물에 적신 타올로 코코하의 몸을 닦고 있다.

「상처는 크지 않은 것 같지만, 한동안은 안 일어날 것 같네……」

「쉬게 해줄까. 여길 쓰는 건 상관 없으니까.」

- 켄조에 대해 (무츠키)

「어제는 밤을 새서 원고를 해독하고 계셨던 것 같아.」

「여행 때문에 지치기도 했을 테니까 잠시 주무시게 놔둬도 될까?」

- 켄조에 대해 (○○○)

「어젯밤은 도중부터 너무 머리가 아파져서…… 나는 다른 방에서 조금 쉬고 있었다.」

「그때도 켄조는 혼자서 원고를 읽고 있었다.」

「켄조가 쉬기 전에, 바깥 공기를 쐬겠다고 말하고 집에서 나갔었다.」

▷ 탐사자들이 「구생회」의 세미나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을 경우

무츠키가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라며 방으로 부른다.

무츠키의 방에는 전선과 전자기기류, 여러 대의 모니터와 컴퓨터가 놓여있다. 컴퓨터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이 방의 주인이 상당한 기술자임을 알 수 있다. 무츠키는 전선들의 바다를 헤쳐나가 컴퓨터를 조작하여 급히 무언가를 인쇄한다.

→ 【구생회(九生会)】의 정보를 제시.

계속해서 「그리고, 이것도,」라고 하며 한 장의 전단지를 내민다.

그것은 「구생회」에서 주최하는 자기 계발 세미나의 공지다. 날짜는 10월 30일 15시부터, 다이토구에 있는 빌딩의 한 방에서 진행되는 모양이고 참가료는 무료로 즉석 참가도 가능하다고 쓰여있다. 사타노 류지(左田野 隆司)라는 인물이 강사인 것 같다.

세미나의 설명문에는 「행복한 삶이란?」, 「열심히 살고 있는 당신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 「지고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과 같은 문자가 늘어서 있다. 전단지의 구석에는 「9(九)」라는 숫자와 양손에 삼각형이 겹쳐져 있는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어제 그 안대 쓴 사람이 말했던 「구생회」에 대해서 짚이는 데가 있어,」

「하지만 가르쳐줘도 될지 모르겠어서. 내 복수에 끌어들이는 느낌이 들어서, 말할 수가 없었어……,」

● 복수?

「미안. 아무것도 아냐,」

「나는 부외자지만 그냥 둘 수가 없고…… 힘이 되고 싶어서……」

「아, 아니…… 미안. 너무 주제넘었나,」라며 후회하듯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린다.

탐사자들이 외출하려고 하면 ◎◎은 「켄조에게 원고를 맡긴 채다. 나는 이곳에 남아도 되겠나,」라는 이야기를 꺼낸다.

○ 이 이후, ◎◎이 우에하라 저택을 떠나는 것은 상정되어 있지 않다. 「켄조에게 맡긴 원고가 신경쓰인다」, 「유사시의 전력」 혹은 「코코하가 베아트리카라면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등 아무튼 이유를 대고 탐사자들과 개별 행동을 시킨다.

▷ 현 시점에서 마키타 가(야츠나가 가)를 탐색할 경우

집의 열쇠는 코코하의 주머니에 있지만, 그 외에도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하다. <컴퓨터 사용>을 통한 해킹이나 <열쇠공>, <은밀행동> 등을 통한 침입이 가능하지만 마키타 가는 고급 주택지에 있기에 그 나름대로의 리스크를 수반한다.

KP 재량으로 제시한 판정에 전부 성공한 경우에는 천국편의 탐색 장소인 야츠나가 가의 정보를 제시한다.

■ 탐사 2일차 ~ 「구생회」에 잠입

「구생회」의 세미나가 열리는 빌딩에 향한다. 빌딩은 6층 건물이긴 하지만 조출한 구조다.

1층부터 5층까지는 각 층에 개인 학원이나 약국이 들어서 있고, 큰 회의실이 있는 6층은 통째로 「구생회」의 소속인 것 같다.

목적지인 회의실로 향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입구에서의 입장 접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탐사자들도 줄을 서면 접수를 맡은 여성이 싱글벙글한, 어딘가 가벼운 느낌이 드는 웃는 얼굴로

탐사자들의 접수를 처리해준다.

「안녕하세요! 세미나에 참가하시는 건가요?」

「이쪽 용지에 내용을 기입해주시고, 빈 자리에 앉아주세요.」라며 한 장의 용지와 필기구를 건네준다.

→ 【양케이트 용지】의 정보를 제시한다.

양케이트는 작성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탐사자의 마음이다. 잠시 기다리면 정장을 입은 남성이 들어온다. 깔끔하게 정돈된 흑발에 안경을 낀 남자다.

「여러분, 오늘 같은 쌀쌀한 날씨에 본 세미나에 모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강사를 맡은, 사타노 류지라고 합니다.」

「이야, 정말 읊조, 난방 온도를 좀 올려도 될까요?」

「오늘은 작년 이맘때보다도 기온이 낮다던가요, 오늘 아침도 엄청 추웠죠.」

딱딱해보이는 겉모습과는 다르게 사타노는 농담을 섞은 실없는 이야기를 시작한다. 자기 계발 세미나라는 것에 다소 긴장하고 있던 이 자리의 공기가 교묘한 화술에 의해 명랑한 분위기가 되어간다.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편안하게 쿡쿡 웃는 소리마저 들린다.

그렇게 자리가 따뜻해졌을 무렵, 사타노는 느닷없이 이야기를 꺼낸다.

「……자, 여러분께는 양케이트를 부탁드렸었죠, 작성은 끝나셨나요?」

「살아있으면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잘 되지 않는 일이 잔뜩 있겠죠.」

「단테의 「신곡」이라는 고전을 알고 계신가요?」

「그 제 2부인 연옥편, 주인공 단테는 생전의 죄를 정화하면서 연옥산을 올라 이윽고 천국에 도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천국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시련.」

「신의 사랑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삶을 느낄 수 있는, 지고천에 빠질 수 없는 과정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천국에 도달하기 위한 길이라고 해도, 연옥의 업화가 내리는 시련은 지독히도 고통스러워요.」

「어째서 우리는 피로운 것인가? 그것은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에 집착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가? 간단합니다. 집착을 끊어내면 됩니다.」

남자의 말투는 점점 열기를 더해간다. 그러나, 역시 이따금씩 섞이는 예시나 농담이 웃음을 이끌어내기에 주위의 사람들은 사타노의 이야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인다. 차츰 화제는 「구생회」의 이념 그 자체로 바뀌어 간다.

「몸에 배어있는 죄를 씻어내는 것처럼, 현세에서도 집착과 굴레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특별히 죽음을 추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삶에 대한 집착도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죽음을 구원으로 삼고 있는 자에게서 죽음을 빼앗아가서는 안 됩니다.」

「현세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그것이 지고천으로 가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강연은 약 1시간 정도 이어졌다. 이윽고 남자는 흘끗 손목 시계를 보고 생각한다.

「이것으로 오늘의 세미나는 종료하게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아직 시간이 있는 것 같네요.」

「조금이라도 흥미를 갖게 되신 분께는 오늘만 특별히 개인 면담을 진행해볼까요.」

「평소에는 좀처럼 시간을 낼 수 없으니 고민하고 있는 분께서는 참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희망자는 기입한 앙케이트 용지를 가지고 한 명씩 다른 방으로 가면 된다고 설명을 한다. 참가자들 중 몇 명은 개인 면담을 희망하였으며 세미나만 듣고 돌아가는 참가자들도 눈에 들어온다. 면담 희망자가 아니더라도, 담당자를 붙잡아 자신의 신세에 대해 열렬히 이야기하는 참가자도 있다.

개인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 접수 창구와 6층은 텅 비게 된다. 지금이라면 발견되지 않고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구생회」 빌딩은 【방 1, 방 2】를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 방 1

문패에는 사무실이라고 쓰여있다. 직원은 전원 세미나 실로 간 모양이라 안을 살펴봐도 사람의 기척은 없다. 숨씨 좋게 탐색하고 바로 방을 나가면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방 1은 【자료 선반, 책상, 벽】을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 자료 선반

철제 선반에는 자료가 꽉꽉 들어차 있다.

〈자료조사〉

→ 【시노소글리스】 【위대한 신, 판】의 정보를 제시.

○ 《위대한 신, 판》에 대해 성공 시 1d100 / 실패 시 즉사인 SAN C가 있다는 것을 전해두면 그 공포를 알기 쉬울 것이다.

▶ 책상

컴퓨터 앞에 정리하다 만 연구 레포트가 여러 장 놓여있다.

- 식물을 팔에 기생시켜 훈련을 거듭하면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
- 식물이 되는 종자는 술자의 임의로 발아 가능.
- 발아한 종자 그 자체는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동식물에 종자를 심으면 이동 가능.
- 종자가 심어진 동식물(이하, 2차 개체)을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 가능한지는 검증 필요.
- 2차 개체로부터 외과 수술로 종자를 적출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검증 필요.

실험은 적어도 2주 전부터 행해지고 있었던 것 같다.

컴퓨터의 메일 등을 조사한다면 세계 각지의 언어로 메일을 주고받고 있으며 꽤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벽

벽에 커다란 세계 지도가 붙어 있다. 세계 7개 장소에 붉은 핀이 꽂혀 있고, 일본은 도쿄도와 시즈오카현이 마크되어있다.

- 1 우에노
- 2 필라델피아
- 3 파리
- 4 취리히
- 5 스탠포드
- 6 시즈오카
- 7 서울

〈아이디어〉

핀이 꽂힌 7개의 도시는, 로맹의 「지옥의 문」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눈치챈다.

◆ 방 2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방이다. 열어보면 묘하게 쇠 냄새가 나고, 분노와 같은 악취가 코를 찌른다. 벽 쪽의 전기 스위치를 누르면, 참상이 눈에 들어온다. 한 남자가 의자에 묶인 채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것이다. 그의 주변에는 혈액이 묻은 고문 도구와 쇠장식, 그외에도 무전기 같은 기계가 아무렇게나 내던져져 있었다.

공허한 표정을 한 남자의 몸을 보면, 확실히 고통을 주면서도 절대로 죽이지 않는 처참한 고문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싫어도 알 수밖에 없을 것이다. SAN C (0 / 1d3).

다시금 방을 둘러보면, 좁은 방이긴 하지만 고문실과 실험실을 겸한 장비가 갖추어진 듯한 인상을 받을 것이다. 수술대와 조명, 약품, 기구 등이 보관되어 있지만 모두 변색된 혈액이 달라붙어 있어 도저히 청결한 장소라고는 말할 수 없다.

방 2는 【고문당한 남자, 수술대】를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 고문당한 남자

남자는 「코드, 43-200-46…… 이하, 큐브의 사용법은……」 이라는 헛소리를 말하고 있다.

〈의료〉

상처의 상태도 심각하지만, 명백히 위법인 약물을 사용해 자백을 강요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몸을 더듬어보면, 품에서 한 장의 더러운 명함이 나온다. 명함에는 「클라인 생명 보험 상호 회사 미국 지부 존 애덤스」 라고 쓰여있다.

▶ 수술대

수술대의 위에는 봉투에 든 자료가 놓여 있다.

【시체의 보고서 ②】의 정보를 제시.

〈관찰력〉

침대 아래에서 니노미야의 경찰 수첩을 발견한다.

■ 코사카 나나코, 니노미야와의 대치

1d3으로 탐사자를 한 명 골라 <행운> 판정을 한다.

실패한 경우, 탄환이 팔을 스쳐 체력 -1d3.

탐사자들이 돌아보면 방의 유일한 입구를 막아선 형태로 누군가가 서 있다. 그곳에 있었던 것은, 새파란 얼굴로 권총을 쥔 소녀. PC 1은 그녀의 얼굴을 본 기억이 있다. 행방불명의 입원 환자로써 수사 요청이 들어왔던 「코사카 나나코」 다.

「이, 이걸 시련이야. 이렇게 괴로운 건 천국에 가기 위해서니까…….」

「나는 계속해서 죽음을 볼 거야. 누구에게도 부서지지 않는, 여신에게 받은, 내가 바란 끝…….」

「이 죽음은 나만의 것…… 나의 죽음을 방해하지 마!」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총구를 이쪽으로 향한다.

○ <민첩> 판정으로 권총을 뺏는다, <근접전(격투)>로 몸을 제압한다, <정신분석>으로 진정시킨다, RP만으로 설득을 시도한다(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는 선택이 가능하다. 탐사자가 <정신분석>에 성공한 경우, KP는 성공치 40으로 나나코의 SAN C (1d10 / 1d100)를 한다. 이하는 SAN C가 발생한 경우 묘사 예시.

▷ <정신분석>에 성공하고 나나코의 이성이 0 이하 (나나코 로스트)

나나코는 한 번 진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윽고 눈을 부릅뜨고 겁을 먹은 표정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환자들은 모두 그 종자에게 먹혀들어갔는걸..」

「바로, 그 식물이 배를 찢고 나올 거야, 그럼, 나는 죽어……!」

「신이 내린 시련이라고, 스스로 바란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쪽이 좋았어!」

「눈을 뜨지 않는 편이 좋았다고!」 라고 울부짖으며 권총을 떨어뜨린다.

그 때, 코사카 나나코의 등 뒤로 오는 사람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무언가를 완수하고, 생각하는 바를 고하고,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인다..」

「그런 행복한 마지막, 보통 인간에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답니다..」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방금 전의 세미나에서 강사를 맡고 있었던 남자, 사타노다.

「우리는 그 기회를 드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서를 남길 시간을 드리고, 죽을 장소도 선택하게 해드렸죠.」

「자신의 죽음을 보는 것으로, 비로소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이 가능해져요.」

「말씀드렸었죠. 죽음을 구원으로 삼는 사람에게서 죽음을 빼앗아선 안 된다, 고요.」

「보세요, 죽어버렸어요. 육체보다 먼저, 정신이.」

「그녀는 “정화”에 전디지 못했다. 그렇기에, 그녀는 천국에 이를 수 없었다.」

「그녀의 무대는 이걸로 끝.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 아니,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 원문은 めでたし、めでたし 였습니다. 의역.

「한편 그 무렵. 그의 무대는 어떨까요?」

「마침 동작 실험이 하고 싶었어요. 개의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

「뭐, 개 같은 것이지만요. 이리 오렴~ 멍멍아.」

사타노가 짹, 손뼉을 친다. 개를 부르는 듯한 목소리에 이끌려 온 것은, 사지가 뒤틀리고 그에게 있어 모욕과도 같은 검은 점액을 늘어뜨린, 몸에 식물이 자라 완전히 변해버린 모습의 니노미야 순이었다.

「일부러 손발에만 종자를 심어서 인간을 무선 조종 하듯이 조작할 수 있어요.」

「어때요? 무장한 경찰관 로봇이라니 멋있죠?」

정신이 무너져 웅크리고 앉은 코사가 나나코. 즐거운 듯 웃는 남자의 뒤로, 인간의 존엄을 빼앗긴 니노미야가 짐승처럼 납작 엎드려있다. SAN C (1 / 1d8).

(영안실에서의 <아이디어> 와 <설득>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1 / 1d4로 경감된다.)

● 니노미야 순과 전투하게 된다.

▷ <정신분석>에 성공하고 나나코의 이성이 0 이상 (나나코 생존)

「하지만 이미 늦었어…… 환자들은 모두 그 종자에게 먹혀들어갔는걸.」

「바로, 그 식물이 배를 찢고 나올 거야, 그럼, 나는 죽어……!」

「신이 내린 시련이라고, 스스로 바란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쪽이 좋았어!」

「눈을 뜨지 않는 편이 좋았다고!」 라고 울부짖으며 권총을 떨어뜨린다.

그 때, 코사가 나나코의 등 뒤로 오는 사람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무언가를 완수하고, 생각하는 바를 고하고,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인다.」

「그런 행복한 마지막, 보통 인간에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답니다.」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방금 전의 세미나에서 강사를 맡고 있었던 남자, 사타노다.

「우리는 그 기회를 드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서를 남길 시간을 드리고, 죽을 장소도 선택하게 해드렸죠.」

「자신의 죽음을 보는 것으로, 비로소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이 가능해져요.」

「말씀드렸었죠. 죽음을 구원으로 삼는 사람에게서 죽음을 빼앗아선 안 된다, 고요.」

「코사카 씨, 당신은 “정화”에 견디지 못했어요. 그렇기에, 당신은 천국에 이를 수 없었죠.」

「지옥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죽음을 겁내며 불합리하게 살아가겠죠.」

「이렇게 당신의 무대는 계속되는 거군요.」

「네, 그런 건 어찌되든 좋아요. 한편 그 무렵, 그의 무대는 어떨까요?」

「마침 동작 실험이 하고 싶었어요. 개의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

「뭘, 개 같은 것이지만요. 이리 오렴~ 멍멍아.」

사타노가 짹, 손뼉을 친다. 개를 부르는 듯한 목소리에 이끌려 온 것은, 사지가 뒤틀리고 그에게 있어 모욕과도 같은 검은 점액을 늘어뜨린, 몸에 식물이 자라 완전히 변해버린 모습의 니노미야 순이었다.

「일부러 손발에만 종자를 심어서 인간을 무선 조종 하듯이 조작할 수 있어요.」

「어때요? 무장한 경찰관 로봇이라니 멋있죠?」

정신이 무너져 웅크리고 앉은 코사카 나나코. 즐거운 듯 웃는 남자의 뒤로, 인간의 존엄을 빼앗긴 니노미야가 짐승처럼 납작 엎드려있다. SAN C (1 / 1d8).

(영안실에서의 <아이디어> 와 <설득>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1 / 1d4로 경감된다.)

● 니노미야 순과 전투하게 된다.

▷ <정신분석>을 하지 않고 나나코가 권총을 손에서 떨어뜨리지 않았다 (나나코 생존)

그 때, 코사카 나나코의 등 뒤로 오는 사람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무언가를 완수하고, 생각하는 바를 고하고,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인다.」

「그런 행복한 마지막, 보통 인간에겐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답니다.」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방금 전의 세미나에서 강사를 맡고 있었던 남자, 사타노다.

「우리는 그 기회를 드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서를 남길 시간을 드리고, 죽을 장소도 선택하게 해드렸죠.」

「자신의 죽음을 보는 것으로, 비로소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이 가능해져요.」

「코사카 씨, 당신은 어떨까요?」

「지옥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죽음을 겁내며 불합리하게 살아갈 건가요?」

「자신이 선택해서, 스스로 말을 자아내는 것이 인생이라는 무대라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남자의 낭랑한 목소리가 울린다. 굴욕인가, 절망인가, 비애인가, 환희인가, 각오인가. 나나코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양손으로 제대로 권총을 잡고 그 총구를 탐사자에게 겨눈다.

「한편 그 무렵, 그의 무대는 어떨까요?」

「마침 동작 실험이 하고 싶었어요. 개의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

「뭘, 개 같은 것이지만요. 이리 오렴~ 멍멍아.」

사타노가 짹, 손뼉을 친다. 개를 부르는 듯한 목소리에 이끌려 온 것은, 사지가 뒤틀리고 그에게 있어 모욕과도 같은 검은 점액을 늘어뜨린, 몸에 식물이 자라 완전히 변해버린 모습의 니노미야 쉼이었다.

「일부러 손발에만 종자를 심어서 인간을 무선 조종 하듯이 조작할 수 있어요.」

「어때요? 무장한 경찰관 로봇이라니 멋있죠?」

즐거운 듯 웃는 남자의 뒤로, 인간의 존엄을 빼앗긴 니노미야가 짐승처럼 납작 엎드려있다. SAN
C (1 / 1d8).

(영안실에서의 <아이디어> 와 <설득>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1 / 1d4로 경감된다.)

● 니노미야 쉼, 코사카 나나코와 전투하게 된다.

전투 전에 <듣기>

사타노의 휴대전화가 울린다.

「네. 네? 정말, 순서가 엉망진창이네요..」

「.....그 아이는 너무 마음대로 일을 벌였어요. 저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을 사용하라고 말한 거예요..」라고 말하며 방을 나간다.

● 니노미야 쉰 (반 좀비)

민첩 60 체력 13 마력 11

사격(권총) 40% 피해 1d6 (본래는 70%지만 착란 상태이기 때문에 -30 보정)

회피는 하지 않는다.

특수 행동으로, 행동 전에 <정신력×%>에 성공한 경우 니노미야는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여 공격 행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또한, 턴이 경과할 때마다 탐사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파」, 「도와줘」, 「죽여줘」라며 애원한다.

● 니노미야 쉰 (좀비)

민첩 60 체력 13 마력 11

사격(권총) 30% 피해 1d6 (본래는 70%지만 착란 상태이기 때문에 -40 보정)

물어뜯기 30% 피해 1d3 + 1d4

회피는 하지 않는다.

● 코사카 나나코

민첩 50 근력 50 체력 11 마력 12

사격(권총) 20% 피해 1d10

회피는 하지 않는다. 무기를 빼앗겼거나 이성이 0 이하가 된 경우는 전투에 참가하지 않는다.
또한, 데미지를 받으면 공포로 전의를 상실해 무기를 떨어뜨린다.

▷ 니노미야가 반 좀비인 경우

전투 중, 탐사자들은 행동 기능이 아닌 지식 기능으로써의 <의료> <응급처치> 판정을 할 수 있다.

성공 → 니노미야는 아직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몸은 식물에 침식되어 있지만, 예를 들자면 시도와 같은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도와준다면 외과 수술 등으로 목숨을 건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탐사자들이 전투 기능을 일절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관찰력> <아이디어> <과학(약학)> <지식> 등, 상황에 맞는 판정에 성공하는 것으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탐사자들의 등 뒤에는 약품과 기구가 수납된 선반이 있고, 황산과 독극물 같은 것 외에도 조합에 따라 불을 낼 수도 있을 것이다. (피해는 7판 룰북 415p 를 참조)

○ 시도가 있는 영안실에서의 <아이디어> 와 <설득>에 성공하지 못한(「가스파르 사건」이 원죄일지도 모른다는 플래그를 세우지 못한) 경우, 니노미야는 좀비로 재등장한다. 좀비가 된 니노미야는 전투 종료 후 탐사자들을 걱정하는 말을 한두마디 남기고 사망한다.

■ 연옥

전투 종료 후, 경찰 본부에 연락을 취하면, 곧바로 응원과 구급차가 온다. 빌딩 내에 남아 있었던 사람은 보호되고, 「구생회」 관계자의 신병을 제압할 수 있다.

사타노는 다른 간부들과 함께 진작 도주한 듯하지만, 남겨진 회원들은 환희의 표정으로 「시노소글리스 님」이라며 소리를 높인다. 마치 미리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그 말로를 받아들인 것 같은 그 모습에서는 광기마저 느껴진다.

교단의 본부를 파괴했기 때문에, 「구생회」는 재기하기 곤란할 것이라는 건 명백했다.

▷ 니노미야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니노미야는 외과 수술을 통한 식물 적출을 위해 수술실로 옮겨졌다. 시도도 수술을 집도하기 위해 달려가 장시간의 수술이 개시될 것이다.

탐사자들(특히 PC 1)은, 경찰로부터 칭찬과 위로를 받는다. 그럴 법한 사후 처리와 사정 청취 등을 끝낸 뒤에는, 완전히 밤이 되어 있었다. 머릿속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울리고 있다. 마음의 정리를 하기 위해서도, 우선은 쉬지 않으면 안 된다.

길을 가는 도중에 <듣기>

* 후각 기능의 듣기는 7판에서 <관찰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문득 느낀 것은 연기의 냄새다. 우에하라 켄조의 집에 가까워질수록 그 냄새는 불길하게 뛰는 심장과 함께 강해진다. 또한 멀리서 소방차가 웅웅거리는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이 들린다.

도착한 우에하라 저택. 그 광경에, 탐사자들은 망연해질 것이다. 탐사자들이 머물렀고, 조사를 했고, 식사와 소소한 휴식을 취했던 세이프 하우스에서 검은 연기가 끊이지 않고 토해져 나오고 있었다. 2층의 창문에서 검은 연기와 빨간 불길의 불길의 불길의 불길이 보이고, 집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소방차는 오지 않은 건가!」

「차가 막히는 모양이야.」

어딘가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다. 집을 향해 미케가 자꾸만 짓고 있는 것을, 구경꾼들이 호기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며 연기를 토해내는 집에 카메라를 들이댄다. 그중 어디를 둘러보아도 켄조, 무츠키, 코코하, ◎◎의 모습은 없다.

그때, 군중이 유난히 크게 술렁거렸다. 집 안에서 나오는 인영이 있다.

그것은 「단테의 유고」를 건네라며 탐사자들을 압박했던 안대 쓴 남자다. 그는 꼴록꼴록 크게 기침을 하면서도 의식을 잃은 코코하를 단단히 안고 있다.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 그쪽을 걱정해서 하는 소리다, 그만둬.」

「아가씨는 힘내고 있지만…… 아저씨랑 다른 한 놈은 이미 늦었어.」

▷ 집 안으로 가지 않는다

이 이후의 묘사는 전부 「탐사자가 집 안으로 가, 폭발에 휘말린다」는 전제로 되어 있으나, 물론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선택도 가능하다.

그 경우, 탐사자들의 눈앞에 큰 폭발이 계속해서 일어나 2층이 완전히 붕괴한다. 무시무시한 양의 연기와 화염이 바람에 일어나고, 안의 상태를 살피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 무츠키가 사망하는 유일한 루트이기도 하다. 이 이후, 우에노 공원 내의 「지옥의 문」에 도달할 때까지 기억을 되찾은 ◎◎과 재회할 수 없다.

또한, 유고가 들어있는 락커의 열쇠는 켄조가 소지하고 있다. 타고 남은 곳에서 흔적을 찾기 위해서는 소화 활동이 완전히 종료한 다음 날 아침 이후에 〈관찰력 ⅓〉과 〈행운 ⅓〉을 같이 판정하여 성공할 필요가 있다.

집 안으로 발을 들인다.

구역질을 일으킬 정도로 기름 냄새와 연기가 충만하고, 찌르는 듯한 고통으로 눈을 뜨는 것조차 할 수 없다. 입을 덮고, 자세를 낮춰 나아가도 폐가 짓눌리는 것처럼 숨을 쉬기 어렵고 두통이 강해진다.

연기 속에서 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건강〉을 두 번 굴린다.

1회 실패할 때마다 1d3의 데미지.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켄조의 방으로 향하면, 책더미에 기대고 있는 켄조와 크게 기침하고 있는 무츠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둘에게 달려가려고 하면, 문이 열려있는 채인 그 금고가 눈에 들어온다.

- 금고

다이얼 부근에 무수한 총탄이 박혀 억지로 열린 듯이 보인다. 안에는 종이 뭉치가 들어있던 것 같은데, 전부 타서 완전히 재가 되었다.

- 켄조에게 다가간다

그는 자신의 복부를 손으로 누르고 있다. 손가락 사이로 선혈이 흘러나와 마루에 점점 퍼져나간다.

- 무츠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저녁 쯤에, 모르는 남자들이 들이닥쳐서…….」

「선생님이 찢리고, 그걸 감싼 ◎◎씨는, 타버려서.」

「유고가……」 그렇게 말하고 울면서 금고를 가리킨다.

「하지만, 기다려, 어떡하지, 선생님, 피가 안 멈춰.」

「거실에는 코코하 짱이 있고, 하지만, 선생님이…….」

- 켄조에게 말을 건다 / 켄조를 옮기려고 한다

몽롱하게 눈을 가늘게 뜨고 있던 켄조였지만, 탐사자의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하고 기침하며 이야기한다.

「이 무슨 무모한 짓을 하는 아이들이란 말이야……. 나는 이제 안 돼. 살아날 수 없어.」

「그보다, 거실에는 코코하 군어, 서재에는 ◎◎ 군어 있을 거야. ◎◎군은 심각한 화상을 입어서……」

갑자기 폭음과 함께 2층에서 열풍이 불어닥친다. 연소성의 무언가에 불이 붙은 것인지 1층은 순식간에 불의 바다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서재 쪽에서 콧지직 소리를 내며 잔해를 밟고 걸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나타난 것은 ◎◎. 가솔린이라도 뒤집어 쓴 것인지 ◎◎의 전신은 마치 촛불의 심지처럼 새빨간 화염에 둘러싸여 있었다.

평범한 인간이라면 진작에 숨이 끊어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완만한 움직임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다. 갑자기 그 모습이 불길과 함께 기분 나쁘게 흔들리더니, 그가 휘감고 있던 불이 획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큰 키가 더욱 늘어나고, 머리카락이 의사를 가진 생물처럼 넘실거리기 시작했다. 드러난 그의 얼굴은 눈과 코의 아래가 없는 —— 완전한 공백이 되어 있었다. 코부터 그 아래가 반들반들하고 평평하게 되어있으며, 검은 외투의 틈새로 길고 하얀 촉수가 하나 튀어 나왔다. SAN C (1 / 1d8).

「아아…… 이 몸이 연옥의 불꽃에 태워지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모두 떠올렸다, 단테여.」

입도 없는데 그의 말이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그러는 사이에도 가옥의 연소는 계속해서 진행된다. 온갖 서적들이 불꽃을 머금고 머리위에서 펄럭거리는 소리를 내며 흩어졌다.

「……하하, 이게 연옥의 불꽃이라면, 나에게는 과분할 정도의 마지막이야.」

「……무즈키 군, 미안하구나.」

켄조는 자조를 담아 웃고 탐사자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른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 당장이라도 힘이 빠질 것 같은 오른손 주먹을 비틀거리며 내민다. 쥐어져 있던 것은 하나의 열쇠였다.

「받아타요, 그리고, 이어타요.」

「그것이 나의 소원이자, ——너희들의 역할이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한층 더 큰 폭발이 일어나, 불길에 휩싸인 천장이 완전히 붕괴했다.

「단테의 심판」 - 연옥편 -

종료

「단테의 심판」- 천국편 -

■ 기억 ~ 병원

……탐사자들은 꿈을 꾸다. 탐사자는 홀로 안개 속에 있다.

질퍽질퍽한 고통이 신기하게도 기분 좋았다. 미지근한 목욕물 같은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눈을 감는다.

탐사자들의 기억 속 무엇보다 깊고, 진흙처럼 가라앉은 경험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잊고 싶다, 잊고 싶지 않다, 다시 한 번 만나고 싶다, 죽이고 싶다, 이해받고 싶다,
돕고 싶다, 옆에 있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 보지 마, 더이상 떠올리고 싶지 않아…….

상쾌할 정도로 웃는 코사카 나나코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관자놀이에 권총을 가져다 댄다.

「눈을 뜨지 않는 편이 좋았다고!」

사지에 검은 식물이 기어다니는 니노미야 순이, 책형을 당하며 뻐끔뻐끔 입을 움직인다.

「죽여줘」

그 몸이 업화에 휘감긴 우에하라 켄조가, 저주와도 닮은 상냥한 눈빛을 한 채 팔을 잡는다.

「받아타요」

경종과 함께 세 명의 얼굴이 뿌옇게 흐려지더니, 몸은 그대로인 채 목부터 그 위가 웃는 표정을 한 자신의 얼굴로 완전히 바뀌었다. 아아, 이것은 기억의 재생 따위가 아니다. 스스로의 죽음을 추체험(追體驗)*하는 것이다. SAN C (1 /1d4).

* 풀어 쓰자면, ‘다른 사람이 겪은 ‘스스로의 죽음’을 자신의 것처럼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질은 안개가 명주솜처럼 변해 몸을 감싸안는다.

어머니의 안에서 잠자는 태아처럼 의식이 원이 되어 모난 곳 없는 모양이 되어간다.

나는 꿈꾼다.

언젠가, 반짝이는 한 명의 귀한 여인이 눈앞에 나타나 부드럽고 우아한 손길로 나를 잠에 들게 해주는 날을.

몹시도 넓은 이 영역을 넘어서——

「……어젯밤 주택 한 채가 전소하는 화재가 있었습니다.」

「불은 5시간 후에 진압되었으나 불에 타고 남은 자리에서 남성 한 명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

「시체의 복부에는 찢린 상처가 있었으며 또한 이 집에 사는 40대 남성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경찰은 신원 확인을 서두르며 사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탐사자들을 수면에서 끌어낸 것은 병원의 대합실에 있는 커다란 액정 TV의 음성. 뉴스 캐스터의 담담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옆에서 화재를 보고 있던 이웃 주민의 인터뷰가 비친다. 수십초 정도의 보도 후, 화면은 곧바로 다른 뉴스를 방송한다.

어젯밤, 분명히 가옥의 붕괴에 휩쓸린 탐사자들이었지만 잔해에 묻히지 않고 운 좋게 가벼운 상처로 끝난 것이다. 그것이, 갑작스럽게 형태를 변화시켜 축수를 뺐어온 ◎◎의 덕분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무츠키와 코코하도 연기를 들이마신 것에 그쳐 현재 다른 방에서 진찰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에는 탐사자들 3명, ◎◎, 그리고 안대 쓴 남자가 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에 의해 체력이 모두 회복되고 장기적 광기 계산이 리셋된다.)

▶ 안대 쓴 남자에게 말을 건다

- 어째서 우에하라 저택에 있었는가

「단태의 유고를 받으러 가겠다고 예고했잖나.」

-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미안하지만, 집을 감시하고 있었다.」

「덱들이 돌아오기 전에 수상한 인영이 집 주변을 얼렁거리고 있었어.」

「바로 연기가 피어올라서…… 내가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지.」

- 코코하를 살려준 것에 대해

「무턱대고 죽이는 취미는 없어서 말이지.」

- 너는 누구냐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서적과 자료를 회수해 적절히 관리하는 부서의 사람.」

「……이라고 해도 감이 오질 않겠지. 외에도 여러 가지 담당이 있지만, 그전 그렇다치고…….」

「너희가 소지하고 있던 단테의 유고는 특급으로 취급되는 자료다.」

「우리는 그런 걸 슬쩍 회수해서 시기가 오면 풀어주는 조정 역을 맡고 있어.」

- 뭐라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전나라의 분서갱유, 가톨릭 교회의 금서목록, 나치의 금서, 일제 시기 헌법 아래의 검열……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 전 이런 것들인가?」

「그 외에도 있어. 전쟁, 도시 개발, 화재, 자연재해, 문화 정화, 약탈, 파괴 등등.」

「그런 것들로부터 서적과 자료를 지키기 위해 “선견지명”이 있는 우리가 보호하고 다니는 거야.」

- 켄조가 맡고 있던 유고에 대해

「덕분에 임무 실패. 엄청나게 귀중한 단테의 유고는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라는 거다.」

- 켄조에 대해

「설마, 이렇게까지 강경 수단으로 나올 줄은 생각 못했어.」

「……너석들의 동향을 파악하지 못한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

- 화재의 범인

「어떤 서적의 회수 임무를 위해 우리 동료가 「구생회」에 스파이로 잠입하고 있었다.」

「……단테의 유고를 가지고 있던 녀석이 있다는 정보가 새어나갔다고 한다면, 거기서겠지.」라며 주먹을 쥐다.

- 빌딩에서 고문을 받고 있던 남자에 대해

「우리 동료다. 성실하고 입이 무거운 녀석이야. 실제로는.」

「……구해줘서 감사하고 있다.」

- 어떤 서적에 대해

「어떤 서적…… 르뤼에 문서의 이탈리아어판。」
 「그것도, 보다 오리지널에 가까운 사본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되었던 어떤 문서보다도 강력하고 폭넓은 종류의 주문이 쓰여있다는 것 같다。」

- 시노소글리스에 대해

「당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여신, 인간, 장의사가 이제부터 바빠지겠군。」
 「우에노 공원에서 큐브(* 정지의 입방체, 7판 룰북 P.272)의 반응을 확인했다. 아, 큐브라는 건 우리의 기술을 애기하는 건데……。」
 「아무튼, 그걸로 교묘하게 시간을 멈춰서 우에노 공원 내에서 슬금슬금 준비를 진행하고 있을 거다。」

- 앞으로의 구체적인 움직임

「외풍수야, 송환 방법은 몰라. 「구생회」 녀석들이 마도서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송환 방법을 모른다면 술자를 처죽이면 강령도 범주지만……。」
 「뭐, 우에노 공원으로 가고 싶다면 나도 함께 하겠어。」
 「큐브의 조작 방법은 나밖에 모르고, 선도자도 없이 지옥을 순례하는 건 무모하니까。」
 「……그 정도는 하게 해줘。」

▶ 숨마누스에게 말을 건다

-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모두와 무츠키가 나가 있는 동안, 처음 보는 남자들이 집으로 들어닥쳤다。」
 「아마도, 나의 유고를 노리고 한 짓일 것이다。」

- 숨마누스에 대해 / 떠올린 기억에 대해 묻는다

「나의 이름은 숨마누스, 어둠을 걷는 자이며, 밤의 지배자。」
 「그리고, 단테 알리기에리라는 것은 내 빛의 이름이다。」

- 무슨 소리?

「벼락에 몸을 맞았을 때부터 나는 신성과 기억을 잃고 인간의 세상을 방황하며 걷게 되었다。」

「그 후, 단테와 만났다. 그가 실의에 빠져 피렌체에서 추방되었던 시대의 일이다.」

「우리는, 철학과 사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벗이 되었다. 단테에게 수비술(數秘術)을 가르친 것도 나…… 피타고라스다.」

- 단테에 대해

「내가 가르친 수학의 신비에 빠져들어 있었다. 함께 꿈의 나라를 거닐었다.」

「좋은 벗이었다. 좋은 시인이었다. 누구보다도 고향을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절망을 끌어안고 있었다.」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옆에서 보고 있었다.」

- 시노소글리스에 대해

「나는 몇 개의 이름을 얻고, 권력의 압박과 병고로 인해 억울한 채로 세상을 떠나는 벗들을 배웅해왔다.」

「전쟁, 흑사병, 이단 심문…… 긴 삶 속에서 많은 친구를 잃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자신의 이름은 커녕 존재조차 잊어, 이윽고 단 하나의 목적에만 기대게 되었다.」

「신에게조차 안식의 죽음을 선사한다고 하는, 여신 시노소글리스. 그녀가 지상에 나타나는 때까지 잠에 드는 것을 선택했다.」

「나는, 죽기 위해 여행을 해왔던 것이다.」

- 아직도 죽고 싶은가? 라고 묻는다.

「모른다. 모르지만…….」

「땅에 떨어진 타다 남은 몸이라도 괜찮다면, 그대들의 도움이 되고 싶다.」

- 가지고 있던 양피지에 대해

「죽음의 순간, 단테 본인에게서 이어받은 것이다. 내용은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신곡」의 천국편, 최후의 13곡. 한 치의 거짓없는, 단테의 진필 원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마도서의 발췌다.」

- 최후의 13곡에 대해

「임종 당시의 단테는 어째서인지 내가 가지고 있어줬으면 한다고 간청했다.」

「현재 세상에 돌고 있는 것은 단테의 초고부터 자손들이 새로 쓰기 시작한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대강은 단테가 쓰러던 대로겠지만, 당연히 차이는 생겼을 것이다.」

- 마도서의 발췌에 대해

「내용을 자세히 본 적은 없으나…… 아마 르뤼에 문서를 번역한 것의 일부일 것이다.」

「베네치아에서 마르코 폴로의 사자가 와, 단테에게 해독과 번역을 의뢰했다.」

「단테가 피렌체에서 쫓겨난 것은, 단순히 정치에서 패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너석이 마술에 정통했기 때문이다.」

- 마술사로서의 단테에 대해

「당시의 위정자는 정치가이면서 강력한 마술을 쓰는 단테를 두려워했다.」

「그 결과 단테는 사랑하는 고향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너석의 힘이 있었다면 베아트리체와 만날 수도 있었겠지.」

「그러나, 단테는 그것을 금기로 삼았다. 그는 마술사이자 동시에 시인이었다.」

「자신의 고뇌와 소원을 100개의 곡에 담아 「신곡」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고귀한 영혼을 나는 사랑한다.」

- 단테가 어째서 「신곡」을 썼는가에 대해

「본인에게 묻지 않으면 모른다. 하지만…….」

「…………존재했던 증거를 남기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 유고에 대해

「……어제 저녁, 캔조에게 맡긴 채다. 아마 불타버렸겠지.」

「하지만,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좀 더 빨리 태울 것을 그랬다.」

「좀 더, 빨리…….」

잠시 후, 진찰을 끝낸 코코하와 무츠키가 대합실에 돌아온다.

▶ 코코하

PC 3의 모습을 보자마자 안겨들어 응석을 부리듯 얼굴을 묻는다.

「오빠는?」 「오빠 보고 싶어, 집에 돌아가고 싶어…….」

코코하는 PC 3과 오빠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해서 「돌아가고 싶다」고 중얼거린다.

- 뒷골목에 쓰러져 있던 이유를 묻는다.

「오빠일까……. 오빠는 말이야, 언제나 도와줘.」

▶ 무츠키

켄조의 죽음을 알게 된 그녀는, 초췌한 모습으로 비틀비틀 대합실의 의자에 앉는다.

「내가 끌어들인 거야. 내가 「구생회」 같은 걸 파고들어서…….」

「어떡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버렸어. 어떡해…….」

- 「구생회」에 대해 / 「가스파르 사건」에 대해

「……비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하지 않았다고, 나는 계속 생각했었으니까.」

「실컷 조사하고, 나쁜 일도 잔뜩 해서. 드디어 도달한 단서였어. 하지만…….」

「복수 탓에 주위의 사람들을 불행하게 한다는 생각조차 못했어. 이제 후회해도

늦었는데…….」라며 얼굴을 덮는다.

「……나, 살아 있을 의미가 있는 걸까.」

「……라니, 미안 미안. 사실은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라며 다부지게 굴면서도 「한동안 혼자 있고 싶어.」라고 말한다.

○ 무츠키와 코코하를 탐사자들이 동행시키는 것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전투에 참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시적으로라면 경찰서나 안대 쓴 남자의 동료 등 안전한 곳에 대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안대 쓴 남자는 우에노 공원으로 향하기 위해 그 자신은 둘을 경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코코하를 우에노 공원 (클라이맥스의 장소)에 데려갈지 말지」는, 처리의 변경과 루트 분기에도
관계되기 때문에 확인할 것.

■ 최후의 13곡

켄조로부터 맡은 열쇠에는, 도쿄도 내의 어떤 역의 라벨이 붙어있다. 역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락커의 열쇠인 것 같다.

전혀 특이하지 않은 무기질적인 락커를 열어보면, 안에는 하얀 비닐에 싸인 두 개의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었다. 플라스틱 케이스에는 각각 종이 뭉치가 수납되어 있다.

그것은, 일찍이 숨마누스가 가지고 있었던, 화재로 소실되었을 터인 양피지다. 하나는 본연의 상태 그대로, 또 하나는 켄조의 손글씨로 생각되는 휘갈겨 쓴 메모와 함께 보관되어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단테의 유고 : 《시노소글리스의 송환》】

시노소글리스의 정신력은 150, 송환의 길을 열기(5%) 위해서는 마력이 6 필요하다.

그 이후로는 마력 1마다 송환의 성공률이 5% 상승한다.

※ 송환을 자동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마력이 $6 + 19 = 25$ 필요하다.

※ 주문의 습득에는 <지능×%> 판정*에 성공할 필요가 있다. 이 메모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미습득이어도 주문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미습득자도 마력 부담에는 참가할 수 있다.

* 7판 컨버트 시 어려운 성공 판정

■ 제9층 야츠나가 가(家)

커다란 단독 주택. 고급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그 집은 있었다. 코코하는 익숙한 손길로 잠금을 해제하지만, 문패에는 「야츠나가」라고 쓰여있다.

현관의 문을 연 순간 느껴지는, 안쪽의 기이함. 새하얀 대리석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구두와 핏자국. 그리고 안쪽에서부터 풍겨오는 이상한 냄새. 거실로 향하는 문은 열린 채로 있고, 집의 탐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실로 가야 할 것이다.

▶ 거실

불이 꺼진 거실. 작게 열린 창문에서 가을의 쌀쌀한 공기가 흘러들어오는 그 사이로, 이상한 존재감을 발하는 “그것”에 무심코 눈이 간다. 양팔을 벌린 채 벽에 고정되어 책형을 당한, 신곡 살인사건의 시체가 그곳에 있었다. 머리는 도끼와 나대 같은 거대한 흉기로 갈라져 있고, 기이한 냄새와 냉기를 발하는 시체에 검게 마른 혈액이 달라붙어있다.

그리고 그 시체의 머리 위쪽에 있는 벽에는, 「meditati」——상상해라, 라는 피로 된 글씨가 크게 쓰여있었다. SAN C (1d2 / 1d6).

거실은 【시체, 벽, 선반】, 집 전체에서 【욕실, 료이치의 방】을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 거실 : 시체

〈의료〉 또는 〈과학(화학)〉

직접적인 사인은 머리의 커다란 상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전신에 동상의 흔적이 보인다. 예를 들자면, 액체 질소와 같은 냉각제를 뿌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시체의 얼굴을 본 PC 1만 〈지식〉 또는 〈아이디어〉

완전히 변해버렸긴 하지만, PC 1은 이 시체의 얼굴을 본 적이 있다. 살해당한 것은, 도쿄 지방 검찰청 지검장·야츠나가 신이치로. 수도·도쿄를 관할하는, 일본 최대 지검의 톱이다.

- 거실 : 벽

아마도 피해자의 것인 듯한 혈액으로 크게 「meditati」라고 쓰여있다.

공개로 <심리학> 판정

「meditati」는 이른바 「신곡 살인사건」의 범행에서 공통되는 메시지만, 이 시체는 다른 시체보다도 수법이 조잡하여 취향이나 메시지성 같은 것이 희박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한편 벽에 쓰여진 문자에서는 강한 충동이 느껴진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충동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거실 : 선반

발밑에 떨어진 시계는 4시 반에 멈춰있고 모든 가족 사진이 바닥에 떨어져 유리 조각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관찰력>

선반 바로 근처에 쓰러진 휴지통이 있어 내용물이 흩어져 있다. 그 안에, 피가 흠뻑 묻은 결혼 반지가 버려져 있다.

○ 료이치와 양어머니의 결혼 반지다. 그렇기에 거실의 시체(료이치의 아버지)의 반지와는 디자인이 다르다. 반지 안쪽을 보아도 이니셜 등은 새겨져 있지 않다.

▷ 떨어진 가족 사진을 자세히 확인한다

야츠나가 신이치로, 여성, 료이치 세 명이 찍혀있는 것이 많고, 코코하의 사진은 한 장도 없다.

<아이디어>

부모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료이치는 전혀 얼굴이 닮지 않았다. 반면 코코하는 여성과 료이치를 많이 닮아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 욕실

문을 연 순간, 불쾌할 정도의 습기와 쇠냄새가 얼굴에 달라붙는다. 새빨간 물이 퍼진 욕조 안에 여성이 고개를 숙인 채로 숨이 끊어져 있다. 거실의 시체와 똑같이 그 머리는 석류처럼 짙게 갈라져 있으며 과즙과도 닮은 선명한 비말이 타일에 뚝뚝 떨어지고 있다. SAN C (1 / 1d4).

〈관찰력〉

시체의 왼손 약지에 반지가 끼워져 있다.

▷ 반지를 자세히 볼 경우

거실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 것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 료이치와 양어머니의 결혼 반지다. 그 때문에 거실의 시체(료이치의 아버지)의 반지와는 디자인이 다르다. 반지의 안쪽을 보아도 이니셜 등은 새겨져 있지 않다.

▶ 료이치의 방

많은 서적과 파일들이 선반에 보관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코코하의 물건과 장난감이 놓여있다. 취미나 취향 등을 느낄 수 없는 무기질적인 방과 아이들이 쓰는 알록달록한 장난감 등이 혼재하는 방이 뒤죽박죽이라는 인상을 준다. 큰 책상에는 엄청난 양의 자료들이 쌓여 있어 차례로 정리하지 않으면 내용 파악이 어려울 정도다.

〈자료조사〉

료이치의 책상에 펼쳐져 있는 것의 대다수가 「가스파르 사건」에 관한 조사 자료라는 것을 눈치챈다. 자료는, 당시의 관료와 외국계 기업 및 폭력단이 두터운 선으로 연결되어 있던 것, 경찰·검찰 쪽으로 많은 뇌물과 편의가 있었다는 것, 혜택을 받은 자들 중에는 야츠나가 신이치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가스파르 사의 배후에 「구생회」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주모자로 몰린 전 후생성 사무차관·유카와 쇼타로가 많은 방면에서의 압력에 굴한 결과 범행을 저지른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철저하게 조사된 이 자료들은, 어지간한 집념과 연줄이 없다면 모으지 못했을 것이라는 느낌을 준다.

모든 탐색 장소를 보고난 후 <아이디어>

모든 방을 대강 둘러보았으나 어디에도 쿄이치의 모습은 없고, 대신 어떠한 사실을 깨닫는다. 넓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코코하의 방이 없으며, 또한 아이들의 장난감도 쿄이치의 방밖에 놓여있지 않다.

- 코코하의 이름에 대해

「사실은, 야츠나가 코코하라는 이름이야.」

「하지만, 오빠가 마키타 코코하라고 말하라고 해서.」

- 어머니에 대해

「어머니가 코코하를 무시하거나 때리는 건 코코하가 싫어서지?」

「어머니는 코코하보다 오빠 쪽이 더 좋대.」

「그러니까, 코코하는 혼자 판다 보려 갈 수 있어.」라며 웃는 얼굴로 말한다.

- 아버지에 대해

「바쁜 걸까. 사실 잔뜩 얘기하고 싶어.」

- 오빠에 대해

「코코하가 슬플 때는, 언제나 오빠가 도와줘.」

「.....오빠가 슬플 때는 누가 도와주는 걸까?」

■ 우에노 공원 ~ 지옥도

모든 탐색과 준비를 마친 후, 최종 결전의 장소인 우에노 공원으로 향하게 된다. 코코하를 데리고 가는 경우 안대 쓴 남자는 「그 꼬마, 내려가는 거야? 관둬, 짐이 될 뿐이야.」 「그녀석 안고 달릴 수 있는 거야?」 라고 충고한다.

공원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짙은 안개가 발생하고 있었다. 너무나도 국지적인 안개인 탓에 화학 가스에 의한 테러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경찰은 비상선을 치고 모든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구경꾼과 보도진을 외면하고, 안대 쓴 남자는 복잡하게 얽힌 골목길로 탐사자들을 안내한다.

○ 담당과가 다르기 때문에 PC 1이 우에노 공원의 경비에 차출되는 일은 없다.

잠시 공원을 따라 걷고는 인기척이 없는 막다른 곳에서 쭈그러 앉는다. 그의 손을 보면 청동색의 판 모양을 한 장치가 있었다. 표면에 있는 버튼을 조작하자 눈앞이 기우뚱하고 흔들리고, 장벽과 같은 투명한 벽이 나타났다.

위장용 벽의 너머, 우에노 공원의 내부에는 검은 점액을 토해내는 지옥의 식물들이 우거져 있었다. 안개 속에서 덩굴을 뺨고 너울거리는 두터운 가지는 채찍처럼 휘어 하늘을 가르다. 의사를 가진 촉수가 멋대로 꿈틀거리는 내부는 이미 탐사자들이 아는 우에노 공원의 모습이 아니었다. **SAN C (0 / 1d3)**.

「잘도 써먹고 있군. 여기가 지옥의 입구라는 게 되는데……」

「……나는 베르길리우스는 되지 못할 것 같다.」

안대 쓴 남자가 뒤를 돌아본다. 그곳을 보면, 식물에 신체를 침식당한 지옥의 사냥개 무리가 다가오고 있다. 그것들이 《시노소글리스》의 강령을 방해하게 두지 않으려 하는 「구생회」의 장기말이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안대 쓴 남자는 품에서 검게 빛나는 권총을 꺼내고는 탐사자들을 감싸듯 앞으로 나선다.

「빨리 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 같이 싸우려고 한다

「작각하지 마. 여기 있으면 맥들도 같이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 몸의 주위를 알짱대지 마. 게다가 이것들에게 신경쓰고 있을 시간 따위 없잖아?」
「반드시 막아라. 죽음의 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만 게 세계를 구제하도록 두지 마.」

안대 쓴 남자는 탐사자들을 등 뒤로 보내지만, 마지막으로 숨마누스가 따라가려고 하면 「어이」
라며 불리 세우고는 「지켜내라.」 라고 말을 건다.
숨마누스는 「물론이다. 나는 더이상, 벼를 잃고 싶지 않다.」라며 끄덕이고는 벽 안쪽으로
들어간다.

● 지옥의 식물의 만연

- 전원이 <회피>를 3회 굴려 실패 횟수만큼 식물의 공격을 받는다. (피해 1d6)
- 숨마누스의 촉수가 공격을 막아주지만, 피해를 받을 때마다 숨마누스는 마력으로 체력을 회복한다.
- 숨마누스는 어젯밤의 화재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체력 10, 마력 25.

※ 코코하를 데려온 탐사자는 <회피 -30>*으로 판정하게 된다.

* 7판 컨버트 시 페널티 주사위 1개 혹은 어려운 성공, 재량껏 판단.

○ 숨마누스의 마력은 《시노소글리스》 송환을 위한 보험이며 그가 피해를 받을수록 송환에 기댈 수 있는 마력이 감소한다. 이 장면에서 탐사자가 사망하는 것은 상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판정에 실패할 경우에는 숨마누스가 사망하는 대신 이 자리를 넘길 수 있도록 해도 상관없다.

○ 원래 숨마누스는 각종 무기로부터의 공격 피해를 최소만 받지만, 《지옥의 식물》은 신화 생물이기 때문에 이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단테의 심판

짙은 안개로 가득찬 나무들의 바닷속을 정신없이 빠져나가, 살짝 트여있는 장소로 나온다. 그곳은 마키타 코코하와 만났던 날 지났던 국립 서양 미술관 앞. 세계에 7개 있는 「지옥의 문」 중 가장 처음 만들어진 주조물. 그 옆에, 몇 명의 남자들이 영창을 계속하고 있다. 사타노 류지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시노소글리스》 강림을 꾸미는 「구생회」의 간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눈을 크게 뜨고 광기에 찬 표정으로 영창에 집중하고 있으며, 탐사자들 따위는 마치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다.

「지옥의 문」 앞에서는, 마치 그들을 총괄하듯이 마키타 료이치가 서있었다. 료이치는 탐사자들에게 다가오며 보고 있던 두꺼운 고서 같은 것을 닫고 온화한, 하지만 조금 어두운 웃음을 띠고 상대한다.

「오랜만입니다. 여기까지 오실 줄이야, 조금 놀랐어요.」

「제가 그린 지옥은 어떠셨나요? PC 2 씨.」

- 목적이 무엇이나

「모든 것을 끝내는 것.」

- 강림을 멈춰라

「모처럼 준비해왔는데, 여기서 그만두면 흥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세간의 관객들은, 저희가 하는 것을 이야기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 어째서 이런 짓을?

「어째서라고 생각하나요? 여러 가지 보고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상상해보아 주세요. 수백가지의 지옥을.」

- 코코하에 대해

「아아……. 코코하는 꽤나 여러분을 따랐던 모양이네요.」

「정이 들었나요? 하지만, 범죄자의 딸이에요, 그 아이.」

- 코코하는 범죄와는 관계 없다

「세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 가스파르 사건에 대해 / 「구생회」에 대해

「가스파르 사건…… 형편없는 연극이었죠. 쓰레기 이하의 것. 단지 그 뿐이에요.」

「그것도 곧 끝나지만.」라고 작은 소리로 웃는다.

○ 쿄이치는 스스로의 과거에 대해서는 말수가 줄어들고, 물어보아도 구체적인 해답은 피하며 오히려 되묻는다.

○ PL들이 제안할 경우 및 코코하를 동행시키고 있는 경우에만, 그녀를 인질로 한 교섭이 한 번 가능하다. 「강림을 멈추지 않으면 코코하를 살해하겠다」와 같은 협박을 하여, 쿄이치의 <심리학 : 80>과의 대항 판정을 한다. 탐사자 측이 대항 판정에 성공한 경우, 쿄이치는 탐사자의 거짓말을 꿰뚫어보지 못하고 코코하의 안전을 우선하기 위해 강림을 단념한다. → ■ END 3으로

「단테는 어쩌서 「신곡」으로 그렇게나 극명한 지옥을 묘사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단테는 실제로 지옥을 본 적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비유가 아닌, 진짜 지옥을.」

「그렇기에 「신곡」은 후세의 사람들을 매료시켜 마지않았던 거예요.」

「보카치오, 로댕, 미켈란젤로, 달리, 리스트, 보르헤스…….」

「「신곡」에 매료된 그들은 각종 분야에서 신의 세계를 그리고, 사람을, 세계를, 역사를 움직여왔어요.」

「그러니까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옥」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가능한지.」

연설하는 청년의 등 뒤에 있는 문에서 거품이 일며 순식간에 부풀어간다. 그것은 이제 하나의 생물이라고 형용하는 수밖엔 없었다. 차가운 안개를 토해내며 주조물이었을 로댕의 「지옥의 문」이 크게 삐걱거리는 소리는 비명과도 같았다. 결코 열리지 않을 터였던 문이, 조금씩 입을 연다.

「아아! 이것이 만물을 움직이는 신의 영광! 모든 별을 움직이는 사랑!」

영창을 계속하고 있던 사타노가 환희의 목소리를 내며 하늘을 우리러본다.

문의 틈새로부터 검고 뒤틀린, 바위인지 팔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물체가 나와 사타노를 포함한 남자들의 머리를 상냥하게 쓰다듬는다. 남자들은 환희와 지고의 표정을 띤 채로 자비 깊은 여신의 손에 죽음으로 이끌려갔다.

「.....단테여, 너는, 스스로의 손으로 최후의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 것인가.」

——지옥의 문은 열렸다.

그레이트 올드 원, 장례의 신 《시노소글리스》를 목격한 탐사자들은 SAN C (1d10 / 1d100).

마키타 쿄이치, 지옥의 사냥개 세 마리와의 전투를 진행한다.

● 마키타 쿄이치

민첩 60 체력 14 마력 18

특수 행동으로, 자신의 차례에 상대와의 <정신력 대항>을 판정. 쿄이치가 성공한 경우 상대는 일시적 광기에 빠진다. 발작한 시점부터 계산하여 1라운드로 광기의 발작은 해제되지만, 광기의 발작 중에는 모든 기능에 -20의 보정*이 걸린다. 탐사자들은 이 특수한 힘을 마키타 코코하로 한 번 체험했으나, 쿄이치의 힘에서는 더욱 강력하고 인간을 벗어난 듯한 불길한 무언가가 느껴진다.

* 7판 컨버트 시 패널티 다이스 1개

● 지옥의 사냥개×3

민첩 65 db 없음 체력 12

물어뜯기 30% 피해 1d8

【송환의 순서】

1R : 송환의 길을 열기 위해 마력 6을 바친다.

2R : 송환의 성공률을 올리기 위해 마력을 바친다. (자동 성공에는 추가로 마력 19가 필요)

3R : 라운드의 끝에 송환 주문이 완료된다.

※ 「송환 주문을 외는 행위」는 공격 행동으로 환산된다.

※ 술자가 기절·사망한 경우, 송환의 순서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 SAN이 0 이하가 된 자가 주문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정신력> 판정에 성공할 필요가 있다. 《시노소글리스》에 매료된 자는 무의식 중에 송환을 거부하기 때문에 죽음으로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을지 판정하는 것이다.

▷ 마키타 쿄이치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판의 아이(쿄이치)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힌트로 쿄이치의 체력이 줄어들 때마다 아래의 묘사를 끼워넣는다.

- 쿄이치에게 공격을 가한 순간, 탁한 기운이 없는 그의 눈동자에 꿰뚫린다. 순간, 자신의 몸이 짓밟혀 고깃덩어리가 되는 꿈을 꾸다. 움찔하고 몸이 굳어 무심코 추격의 손을 멈춰버리게 된다. 그것은 그 자신의 힘이라기보다는, 그의 눈동자를 통해 “이쪽을 보고 있는 무언가” 때문이라는 느낌이 든다.
 - 쿄이치에게 공격을 가함과 동시에 짐승이 멀리서 짖는 듯한 소리가 어딘가 먼 곳에서 울렸다. 순간, 이상할 정도의 한기와 공포가 전신을 관통한다. 무시무시한 분노로 가득찬 그 목소리는 쿄이치의 등 뒤…… 「지옥의 문」에서 분명한 존재감을 발하고 있다. 탐사자 전원 SAN C (0 / 1d3).
 - 「지옥의 문」 너머에서 무언가가 기어나오려 꿈틀거리는 듯한 기척이 느껴진다. 무한의 저편에서, 인간의 비탄과 절규의 목소리에 섞여 끔찍하고도 역겨운 발굽 소리가 다가오고 있다. 탐사자는 직감적으로 떠올릴 것이다, 「이 신의 분노를 사서는 안 된다」고. 탐사자 전원 SAN C (1 / 1d3).
-

아래는 전투 결과에 따른 END 분기

END 1 : 《시노소글리스》의 송환에 성공한다

END 2 - 1 : 《시노소글리스》의 송환에 실패한다 / 송환 주문을 입수하지 않았다

END 2 - 2 : 송환 주문을 완성하지 못한 채로 전투 중에 마키타 쿄이치를 사망시킨다

END 3 : 코코하를 인질로 하여 교섭을 성공시킨다

■ END 1

도달 조건 : 《시노소글리스》의 송환에 성공한다

송환 주문의 영창을 마침과 동시에 주변의 불길한 공기가 희미해져간다. 피의 축복을 받은 지옥의 문에서 그저 고깃덩어리가 된 「세 개의 그림자」가, 「웅크린 여자」가, 「생각하는 사람」이, 철썩거리는 뭍은 소리를 내며 땅으로 떨어진다. 서서히 안개가 걷히고 하늘에서 밝은 햇살이 비쳐들어오기 시작한다.

……순간, 쿵하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그것이 총성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다. 남은 책이 쿄이치의 손에서 떨어져 「지옥의 문」의 안으로 사라졌다. 쿄이치의 몸은 무릎부터 무너져내렸고, 꿰뚫린 가슴에서 피보라가 튀었다. 지옥의 문 앞에는 피웅덩이가 퍼져나가고, 쓰러진 쿄이치의 얼굴이 참기 어려운 격통으로 일그러진다.

○ 탐사자들의 RP를 끼워넣을 시간을 약간 마련한다. 주변을 둘러볼 경우, 안개가 걷히는 도중 국립 서양 미술관의 창문에서 아주 잠깐 총구가 보인다.

이윽고, 송환 주문을 윈 후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던 문에서 하나의 팔이 뻗어온다. 여성을 떠오르게 하는 하얗고 가느다란 팔은 바로 옆에 쓰러진 마키타 쿄이치의 뺨을 한 번 쓰다듬는다. 자비 깊은 신에게 닿은 쿄이치는 안심한 듯 서서히 호흡을 느슨하게 하고, 온화한 표정을 한 채로 천천히 눈을 감는다.

직후, 쿄이치의 머리를 향해 두 발의 총탄이 명중한다. 서로 엮히고 설켜 뿌리를 뺀고 있는 식물들은 술자가 사망한 것에 의해 시들기 시작하여,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산개할 것처럼 보였다.

잠시 후, 총기로 무장한 일본 경찰의 특수부대 「SAT」의 문자를 등에 진 대원들에 의해 탐사자들은 보호된다.

■ END 2 - 1

도달 조건 : 《시노소글리스》의 송환에 실패한다 / 송환 주문을 입수하지 않았다

주위로 풍겨오고 있던 불길한 공기는 짙어져, 피의 축복을 받은 지옥의 문이 더욱 소름끼치게 부풀어갔다.

——「지옥의 문」은 세계에 7개 있다.

문득 그 말이 머리에 떠올랐다. 장례의 신은 도쿄도를 거쳐 다른 도시로 가 모습을 드러내고, 죽음에 의한 구제와 혼돈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근대 조각의 아버지가 만들어낸 문은, 문자 그대로 지옥의 가마(窯)로 변해 온갖 부정(不淨)과 재액을 토해내는 것이다.

……순간, 쿵하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그것이 총성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다. 낡은 책이 쿄이치의 손에서 떨어져 「지옥의 문」의 안으로 사라졌다. 쿄이치의 몸은 무릎부터 무너져내렸고, 꿰뚫린 가슴에서 피보라가 튀었다. 지옥의 문 앞에는 피웅덩이가 퍼져나가고, 쓰러진 쿄이치의 얼굴이 참기 어려운 격통으로 일그러진다.

○ 탐사자들의 RP를 끼워넣을 시간을 약간 마련한다. 주변을 둘러볼 경우, 안개가 걷히는 도중 국립 서양 미술관의 창문에서 아주 잠깐 총구가 보인다.

이윽고, 지옥의 문에서 하나의 팔이 뻗어온다. 여성을 떠오르게 하는 하얗고 가느다란 팔이 바로 옆에 쓰러진 마키타 쿄이치의 뺨을 쓰다듬으려…… 하기 직전.

우지직하고 문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진다. 그렇게나 탐사자들을 절망하게 한 지옥의 문이, 비명과도 같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너무나도 간단히 변형되어 간다.

탐사자들은 순식간에 본능적으로 이해한다. 《시노소글리스》를 위해 열린 길을 통해, 「무언가」가 억지로 기어나오려고 하고 있다고. 탐사자들의 정신을 몸과 함께 눌러버리는 듯한 포효로부터 분출되는 것은, 틀림없는 분노의 감정과 원시적 공포.

먼저 보였던 것은 하나의 거대한 다리. 산양과도 같은 발굽을 가진 그것은, 처음 내딛은 한 발만으로 지옥의 문을 완전히 붕괴시켰다. 시간과 공간이 엉망진창으로 일그러졌으나, 그럼에도 무(無)를 초월한 저편에서 그 전모가 분명히 밝혀진다. 말이 우는 소리와 피리의 소리가 겹치고, 탐사자들은 눈앞의 정경에 눈을 고정시킬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일반적인 기준을 벗어났다. 지옥의 문은 더욱더 큰 절망을 낳았다.

풍요와 생명을 가진 압도적인 힘——《위대한 신, 판》의 진정한 모습을 직시해버린 탐사자들은 SAN C (1d100 / 즉사).

처음부터 SAN 0인 탐사자는 SAN C 대신 〈행운〉

실패하면 《위대한 신, 판》의 발굽에 짓밟히지만, 한 명까지는 《숨마누스》가 감싸준다.

그는 순간적으로 탐사자를 밀어날리고, 무언가 말을 남길 틈도 없이 고깃덩어리와 피로 변한다.

미친듯이 날뛰 후, 검은 촉수 같은 것이 료이치의 시체를 상냥하게 감싼다. 그것은,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도 보였다. 주위를 전부 유린한 신은 우렁찬 외침과도 같은 울음 소리를 내고 저편의 세계로 모습을 감추었다.

남은 것은, 볼품없이 파괴되어버린 「지옥의 문」과, 크게 도려낸 듯한 크레이터들이 무수히 남은 지면. 그리고 탐사자들 뿐이었다.

멀리서부터 몇 명인가의 절규 소리와 당황하는 소리, 총성이 들린 듯한 느낌이 났다. 잠시 후, 총기로 무장한 일본 경찰의 특수부대 「SAT」의 문자를 등에 진 대원들이 탐사자들을 보호하지만, 그 기억도 금방 희미해져간다. 선명한 공포가 머리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 END 2 - 2

도달 조건 : 송환 주문을 완성하지 못한 채로 전투 중에 마키타 쿄이치를 사망시킨다

○ 쿄이치가 사망해도 통상적인 전투와 똑같이 턴제로 행동이 가능(영창 중인 탐사자는 행동불가). 이 라운드의 끝까지 쿄이치의 체력이 0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 송환을 끝내지 못한 「지옥의 문」에서 《위대한 신, 판》이 기어나온다.

○ 쿄이치가 기절해도, 통상적인 전투와 똑같이 턴제로 행동이 가능(영창 중인 탐사자는 행동불가). 탐사자는 <관찰력> 어려운 성공 판정에 성공함으로써 안개 너머에 있는 국립 서양 미술관의 창문으로부터 누군가가 누워있는 쿄이치에게 저격총의 총구를 겨누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 상대는 라운드마다 저격(피해 $2d6 + 4$: 관통 없음)을 해오지만, 탐사자가 감싸거나 이동시킨다면 END 1로 이행한다. (아슬아슬하게 《위대한 신, 판》의 내방을 회피할 수 있다. 단, 쿄이치의 사망은 확정.)

송환 주문이 완성되지 않은 채로 탐사자가 쿄이치를 감싸지 않거나(쿄이치가 사망한다), 혹은 탐사자도 저격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옥의 문」에서 《위대한 신, 판》이 기어나온다.

쿄이치가 무릎을 털썩 꿇음과 동시에 주변의 불길한 공기가 희미해져간다. 피의 축복을 받은 지옥의 문에서 그저 고깃덩어리가 된 「세 개의 그림자」가, 「웅크린 여자」가, 「생각하는 사람」이, 철썩거리는 뭉은 소리를 내며 땅으로 떨어진다.

……순간, 쿵하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그것이 총성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다. 낡은 책이 쿄이치의 손에서 떨어져 「지옥의 문」의 안으로 사라졌다. 쿄이치의 몸은 무릎부터 무너져내렸고, 꿰뚫린 가슴에서 피보라가 튀었다. 지옥의 문 앞에는 피웅덩이가 퍼져나가고, 쓰러진 쿄이치의 얼굴이 참기 어려운 격통으로 일그러진다.

○ 탐사자들의 RP를 끼워넣을 시간을 약간 마련한다. 주변을 둘러볼 경우, 안개가 걷히는 도중 국립 서양 미술관의 창문에서 아주 잠깐 총구가 보인다.

이윽고, 지옥의 문에서 하나의 팔이 뻗어온다. 여성을 떠오르게 하는 하얗고 가느다란 팔이 바로 옆에 쓰러진 마키타 쿄이치의 뺨을 쓰다듬으려…… 하기 직전.

우지직하고 문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진다. 그렇게나 탐사자들을 절망하게 한 지옥의 문이, 비명과도 같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너무나도 간단히 변형되어 간다.

탐사자들은 순식간에 본능적으로 이해한다. 《시노소글리스》를 위해 열린 길을 통해, 「무언가」가 억지로 기어나오려고 하고 있다고. 탐사자들의 정신을 몸과 함께 눌러버리는 듯한 포효로부터 분출되는 것은, 틀림없는 분노의 감정과 원시적 공포.

먼저 보였던 것은 하나의 거대한 다리. 산양과도 같은 발굽을 가진 그것은, 처음 내딛은 한 발만으로 지옥의 문을 완전히 붕괴시켰다. 시간과 공간이 엉망진창으로 일그러졌으나, 그럼에도 무(無)를 초월한 저편에서 그 전모가 분명히 밝혀진다. 말이 우는 소리와 피리의 소리가 겹치고, 탐사자들은 눈앞의 정경에 눈을 고정시킬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일반적인 기준을 벗어났다. 지옥의 문은 더욱더 큰 절망을 낳았다.

풍요와 생명을 사진 압도적인 힘——《위대한 신, 판》의 진정한 모습을 직시해버린 탐사자들은 SAN C (1d100 / 즉사).

처음부터 SAN 0인 탐사자는 SAN C 대신 <행운>

실패하면 《위대한 신, 판》의 발굽에 짓밟히지만, 한 명까지는 《숨마누스》가 감싸준다.

그는 순간적으로 탐사자를 밀어날리고, 무언가 말을 남길 틈도 없이 고깃덩어리와 피로 변한다.

미친듯이 날뛰 후, 검은 축수 같은 것이 쿄이치의 시체를 상냥하게 감싼다. 그것은,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도 보였다. 주위를 전부 유린한 신은 우렁찬 외침과도 같은 울음 소리를 내고 저편의 세계로 모습을 감추었다.

남은 것은, 불품없이 파괴되어버린 「지옥의 문」과, 크게 도려낸 듯한 크레이터들이 무수히 남은 지면. 그리고 탐사자들 뿐이었다.

멀리서부터 몇 명인가의 절규 소리와 당황하는 소리, 총성이 들린 듯한 느낌이 났다. 잠시 후, 총기로 무장한 일본 경찰의 특수부대 「SAT」의 문자를 등에 진 대원들이 탐사자들을 보호하지만, 그 기억도 금방 희미해져간다. 선명한 공포가 머리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 END 3

도달 조건 : 코코하를 인질로 하여 쿄이치의 <심리학 : 80>과 대항 판정에 성공한다

「하하…… 최악이야. 이런 형태로 끝나다니..」

「코코하. 너 때문에, 오빠는, 내내 엉망진창이야..」

쿄이치는 눈물과 웃음, 그리고 곤혹이 섞인 얼굴로 하늘을 우러러보지만, 그럼에도 말과는 반대로 무릎을 꿇고 양팔을 벌린다. 코코하는 탐사자들의 옆에서 떨어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오빠의 품에 뛰어든다.

쿄이치가 강림을 포기함으로써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안개와 기분 나쁜 식물들이 급속하게 그 그림자를 잃어간다.

「……웃기지마! 여신의 강림을 계속해라!」

「뭘 위해서 너한테 힘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단자 놈! 죽여라! 죽여버려!」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타노를 비롯한 「구생회」의 교단원이 멀리서 원형으로 포위하여 중심에 있는 남매에게 반쯤 광란 상태가 되어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모든 것을 차단하듯이, 쿄이치는 다시 한 번 강하게 코코하를 품 속에 가두었다.

……순간, 쿵하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그것이 총성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다. 낡은 책이 쿄이치의 손에서 떨어져 「지옥의 문」의 안으로 사라졌다. 쿄이치의 몸은 무릎부터 무너져내렸고, 꿰뚫린 머리의 절반이 날아갔다.

「……오빠?」

코코하의 옛된 얼굴에 피가 튀어있었으나, 그것을 닦아주는 사람은 이제 없었다. 지옥의 문 앞에는 피웅덩이가 퍼져나가, 마지막 말을 자아내지도 못한 채 쿄이치는 말할 수 없는 고깃덩이가 되었다.

엷히고 설켜 뿌리를 뺀고 있던 식물들은 술자가 사망한 것에 의해 시들기 시작하여,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산개할 것처럼 보였다. 잠시 후, 총기로 무장한 일본 경찰의 특수부대 「SAT」의 문자를 등에 진 대원들에 의해 탐사자들은 보호된다.

■ 공통 엔딩 묘사 ~ 지옥을 빠져나와서

도쿄를 무대로 한 「신곡 살인사건」은, 싱겁게 끝을 맞았다. 마키타 교이치의 사망과 함께 우에노 주변의 안개와 야생 동물의 변사체도 딱 보이지 않게 되었다.

우에노 공원 내 「지옥의 문」의 앞에는 교통 정리에 쓰이는 고깔과 출입 금지의 팻말이 세워져 있었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꽃다발과 음료캔 등이 몇 개 놓여있었다. 일련의 사건의 실행법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정보가 샌 것인지, 혹은 유별난 사람이 철저히 조사한 것인지.

어찌되었든 외모를 비롯한 마키타 교이치에 대한 모든 개인 정보가 신문, TV, 잡지, SNS, 인터넷에 공개되었다. 검사의 아들이면서, 사람을 매료시키는 외모를 가진 범죄자에게 세간이 달려들지 않을 리가 없다. 무심코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리고 싶어지는 보도는 한동안 계속될 것처럼 보였다.

「구생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던 교단원과 간부들의 대부분은 얼마 전의 강림 때 사망했다(혹은 체포당했다). 탐사자들의 수사가 뒤를 밀어주는 형태가 되어 적어도 일본에 동지를 틀었던 「구생회」의 그림자는 사라졌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동시에, 끝났다고 생각되었던 「가스파르 사건」에 새로운 불씨가 떨어져 세간의 열광은 날로 늘어갔다. 그럼에도 은폐되어있던 사실은 백일하에 속속들이 드러나고, 고름을 짜내는 것에 변함은 없을 테니 이것도 정화에 필요한 고통인 것일까.

가까운 친족을 잃은 코코하는 먼 친척에게 거둬지거나, 어딘가의 시설에 입소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다. 앞으로는 「범죄자의 여동생」 「가스파르 사건 흑막의 딸」이라는 낙인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다.

PC 1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입원 환자 연속살인사건」, 다른 말로 연속 엽기살인사건은, 최종적으로 33명의 환자가 해당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코사카 나나코를 제외한 19명의 환자가 변사체로 발견되어 사망. 8명이 정신 쇠약 상태로 발견되고, 5명은 아직도 행방불명인 채다.

○ ED 장면은 사건으로부터 3일 후(시나리오 도입일부터 7일 후)가 된다. 탐사자들은 SAN 0 탐사자의 병문안이나 사망 탐사자의 성묘를 마친 후일지도 모른다. 아래는 《숨마누스》가 생존하고 있을 경우를 묘사하고 있다.

그로부터 3일 후. 우에노 공원의 출입 금지는 빠르게 해제되어 노란 색 바리케이드 테이프가 둘러져 있던 「지옥의 문」 앞에는 설 새 없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탐사자들과 코코하는 「지옥의 문」 이 잘 보이는 벤치에 앉아있다. 그 옆에는 숨마누스와 안대 쓴 남자가 있고, 안대 쓴 남자는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꺼낸다.

「우에노 공원에서의 강림을 그냥 두었다면 그녀적은 문을 통해 전 세계에 얼굴을 내밀었겠지.」
「당신들 덕에 세계는 구원받았어, 수고 많았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좀 그렇지만…… 부탁이 두 개 있어서 말야.」
「먼저 하나. 단테의 유고를 내게 말해주지 않겠나.」 라고 다시금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표정에 평소의 경박한 인상은 없고, 그는 올곧은 눈동자로 탐사자들을 바라본다.

숨마누스에게 물어보면 조금 고민한 뒤 「그대들에게 말기겠다.」 고 말한다.

- 유고를 말긴다

「……고마워.」

「몇 년 후가 될지, 수십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반드시, 당신이 단테의 유고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야. 그때까지 내가 지킨다.」

」

「믿어줘, 라는 진부한 말밖에 안 나오지만…… 아~」 라며 머리를 벽벽 긁는다.

- 유고 같은 건 어떻게 되든 상관 없다

「……그렇지.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어. 없지만.」

「누군가가 지키지 않으면 간단히 사라지는 거야. 이런 건.」

「뭐, 알 바 아니지! 신경쓰지마!」 라며 껄껄 웃는다.

「그리고, 이건 부탁이라기보다는 제안인데…….」

안대 쓴 남자가 그렇게 말한 순간, 「역시. 여기 있었구나.」라며 꽃다발을 든 무츠키가 찾아온다. 무츠키는 한 번 크게 숨을 들이켜고 탐사자들에게 이야기를 꺼낸다.

「……저기, 보고하는 건데.」

「나 자신의 일도 일단락 지었고, 나, 이 사람의 회사에 들어가기로 했어.」

「당신들도 뭐라고 말 좀 해줘. 요전부터 계속 이 소리만 하고 내 얘기를 듣질 않아.」

「내가 필요로 하는 인제는 이런 아가씨가 아니라, 뻔뻔스럽고 끈질기고 무지 넘치는, 한 번 죽이는 정도로는 안 죽을 것 같은 당신들 같은 녀석이라고.」

「그런 고로, 클라인 생명 보험 상호 회사에, 당신들을 스카우트 하고 싶어. 이게 두 번째 부탁.」

「……물론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각자 사정이라는 게 있기도 할 테고 말이지.」

- 무츠키의 입사 동기에 대해

「그렇게 제대로 된 이유는 아니지만…….」

「당신들 세 명을 보고, 나한테도 뭔가 역할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

「선생님이 유고를 지켰던 것처럼, 나도…… 무언가 하고 싶어서.」

- 꽃다발에 대해

「그 사람한테 주고 싶어서.」

「부모의 원수를 미워할 수 없다니…… 매정하네, 나.」

안대 쓴 남자와의 대화가 끝나면, 《숨마누스》는 조금 기분이 가라앉은 듯한 얼굴로 물어온다.

「시노소글리스의 밑에서 죽기 위해 여행을 하고 있었다만, 죽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 《숨마누스》의 미래는 탐사자들에게 맡겨져 있다. PC 1의 후배로써 경찰 직을 맡을지도 모르고, PC 2, 3의 조수가 될지도 모른다. 클라인 생명의 신입사원으로 활동해갈지도 모르고, 단테 알리기에리의 성모라는 명목으로 이탈리아로 갈지도 모른다.

(마지막 RP를 끝내면)

안대 쓴 남자는 「그럼, 나는 이쯤에서 돌아가겠어.」라며 떠나려고 하다가 「맞다.」하고 발을 멈춘다.

「SAT, 라고 하던가. 그거 도착과 사살 명령, 유독 빨랐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석은 큐브를 써서 시간을 비틀고 있었는데, 경시청 윗선은 꽤 유능하네.」

「.....결국, 그 젊은 놈도 광신자 너석들도, 도마뱀의 꼬리였을 뿐이라는 거지.」

「있잖아, 당신들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해?」

「이 세계가 끝나지 않는 지옥인지. 그게 아니라면, 언젠가는 구원받는 연옥인지.」

「.....미안. 답지 않은 질문을 해버렸네.」

「그럼, 잠깐 동안 안녕이다. 탐사자 군.」

이렇게 일련의 사건은 막을 내리고, 《숨마누스》와 만났던 날로부터 7일이 경과했다.

많은 것들을 잃었고, 여행길에는 또 하나의 표지가 꽃혔다.

몇 번이고 기억이 불러일으켜진다 해도, 이 어두운 숲을 걸어야만 한다.

이어 받은 유고는, 단테 알리기에리가 「신곡」을 만들어낸 이유를 말한다.

당신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한참 뒤의 일.

그때까지, 「신곡」은 세계를 비추는 거울로써 계속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와 별들을 다시 보았다.

단테 「신곡」 지옥편 제34곡

「단테의 심판」 - 천국편 -

종료

■ 생환 보수

생환 보수 1d10

시노소글리스를 송환했다 1d10

크툴루 신화 +3%

※ 등장 신화 생물, NPC의 특징, 구체적인 SAN C의 수치 등은 스포일러에 해당합니다. 탁 보고·트윗 시에 주의해주세요.

【입원 환자 연속실종사건】

약 2개월 전부터 도쿄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종사건. 입원하고 있던 10 ~ 60대의 환자가 행방을 감춰 공공연히 드러난 것만 해도 20 건을 넘는다.

무언가의 범죄에 말려들었는지, 유괴 사건의 선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감시 카메라의 영상과 탐문으로 발자취를 쫓고 있으나 수사는 난항하고 있는 듯하다.

《더욱더 조사한다》

TV, 인터넷 뉴스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환자의 개인 정보와 병명 등은 익명이 보장되고 있으나 「말기 암으로 여명을 선고받아 절망했다」 「약품의 부작용에 의한 이상행동」 등 제멋대로인 억측이 날아다니고 있다.

【뒷골목의 흡혈귀】

도내에서 그럴싸하게 속삭여지고 있는 소문.

밤의 어두운 뒷골목을 걸어다니고 있으면, 키가 큰 남자가 불러세운다. 그 남자는 흡혈귀의 후예로, 인간을 매료시켜 피를 빨아들인다. 대개의 사람들은 흡혈당하고 끝나지만 그가 첫눈에 반한 자는 「흡혈귀의 신부」로서 데려가버린다고 한다.

《더욱더 조사한다》

흡혈귀는 서구적인 얼굴의 미남, 괴물 같은 추남, 귀족풍의 복장을 하고 실크 모자를 쓰고 있다, 호스트 같은 정장을 입고 있다 등 다양한 증언이 있다.

소문을 역이용하여 마늘이나 묵주(로자리오)를 모티브로 한 악세서리 류가 젊은 여성 사이에서 은밀히 붐이 일고 있는 것 같다.

【입원 환자 연속실종사건 : 경찰 관계자】

약 2개월 전부터 도쿄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종사건. 입원·통원하고 있던 10 ~ 60대의 환자가 행방을 감추고 있다. 공통된 특징은, 「실종자는 목숨에 지장이 있는 중대한 병에 걸려있었다」는 점이다.

현재 26 건의 수색 요청이 들어와있으나, 기존의 행방불명자와 사건과의 관련·확인이 곤란하다.

※ 일본에서는 연간 86,000명 정도의 행방불명자 접수가 수리되고 있다.

【뒷골목의 흡혈귀 : 경찰 관계자】

도내에서 그럴싸하게 속삭여지고 있는 소문. 밤의 어두운 뒷골목을 걸어다니고 있으면, 흡혈귀가 불러세워 피를 빨아들인다고 한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무서운 것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담력 시험으로 일부러 뒷골목을 걸어다니는 것이 유행하고 있는 듯하여, 그러한 젊은이들을 노린 범죄와 트러블을 막기 위해 일부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사이버 범죄 대책과 설립】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의 대책으로, 국가는 오늘 정부의 사이버 범죄 대책과를 설립하겠다고 정식으로 발표했다. 관료와 민중이 하나가 되어 기술 개발·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시동에는 몇 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설립의 배경에는 작년 검찰청과 도쿄 지검에 부정 액세스 및 사이버 공격에 의해 대외비 정보가 유출되었던 사건이 있다.

《작년의 【검찰청·도쿄 지검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자료조사> <지식> 등》

【검찰청·도쿄 지검의 정보 유출 사건】

작년 5월, 검찰청 및 도쿄 지방 검찰청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부정 액세스 및 사이버 공격이 일어나 과거의 사건과 재판, 관계자의 개인 정보들을 비롯한 대외비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었던 것이 판명.

유출된 정보에 대한 상세 정보는 공표되지 않았으나 이 정보 유출 사건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검찰은 면목을 잃게 되었다.

【신종 식물 일부 분실, 연구원이 관계되었나】

베를린 대학은 연구실에 보관되어 있던 신종 식물의 종자를 분실했다고 발표했다. 발각된 것은 2주 전으로, 분실한 것은 12세기 말의 유적으로부터 발견된 신종 종자다. 수몰된 구역의 토중 샘플링으로 출토되어 발굴 조사 보고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베를린 대학에 장기 보관되어 있었다.

똑같이 2주 정도 전부터 조사 연구원 중 한 명이 연락이 닿지 않게 되어, 대학 측은 무언가 관계가 있다고 보고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체는 어디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소개하는 엔터테인먼트 코너. 최신 뉴스는 아니나 버라이어티 처럼 재밌는 것이 세일즈 포인트다.

2개월 전, 피렌체(이탈리아)의 묘지에서 부지의 일부가 파헤쳐져있는 것이 발견되어 매장되어 있던 시체가 행방불명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묘지의 관리자에 의하면, 시체는 연고자가 없어 이름조차 모르는 인물이었으나 이 인물의 묘만은 소중하게 관리하도록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고 한다.

현지에서는 「좀비 패닉 영화의 서장」 「사실은 살아있었다」 등의 억측이 날아다니고, 관리인은 「시체이신 분은, 이 뉴스를 보면 바로 돌아와주셨으면 한다」 며 유머 있는 코멘트를 남겼다.

【특집 : 가스파르 사건의 진상!】

TV 방송의 선전.

일본 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세계의 재정계에 영향을 끼친 부정 사건 「가스파르 사건」. 뇌물수수 이외에도 몇몇 외국 기업에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과 반사회적 세력과의 연결이

지적되었고, 사건에는 대신 급과 당시의 수상의 관여도 의심되어 있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더욱이 일본에서의 주모자인 전 후생성 사무차관·유카와 쇼타로가 형기 중에 병사하여 많은 수수께끼를 남긴 채 사건은 종식되었다. 록히드 사건의 재래라고도 불린 세계적 부정 사건의 진상에, 지금 다시 다가간다!

《【가스파르 사건】에 대해서는 <자료조사> <지식> 등》

【가스파르 사건】

8년 전에 발각되었던 세계적인 대규모 부정 사건. 후생성 사무차관·유카와 쇼타로가 프랑스의 제약 회사·가스파르 사와 신약 수입의 계약을 맺는 대신 고액의 뇌물을 받고 있던 것이 드러나, 현직 관료가 체포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일어났다.

신약은 「차세대 항암제」, 「암 특효약」으로 주목받고 있었으나, 효과에 의문을 표하는 보고가 잇따르면서 「가짜 약을 국민에게 팔아넘긴 국가 주도의 사기」로 비난받았다. 일본에서의 주모자로 여겨진 유카와의 체포 후, 이세지마 내각은 퇴진·정권 교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 세계를 뒤흔든 사건이며, 일본에서는 연일 크게 보도되었다. 상세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탐사자더라도 이름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을 정도의 사건이다.

【특집 : 가스파르 사건의 진상!】은 「진상에 다가간다!」라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과거의 서적과 영상, 증언을 다시 보여준 것에 불과한 곤잘 있는 특집 방송이다.

【야생 동물의 괴사】

한 달 정도 전부터, 우에노 공원의 부지 내에서 야생 동물의 기묘한 시체가 발견되고 있다.

- 연못에 사는 많은 물고기들이 육지로 끌어들려져 있었다.
- 육식 동물에게 물려 죽었을 들새가 포식되지 않은 채 예쁘게 줄지어 있었다.
- 높은 나무 위에 방금 태어난 아기 고양이의 시체가 걸려있었다.

자연적인 현상과 인위적인 범행의 양방향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공원 내의 감시 카메라만으로는 괴사의 원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
이 외에도 들개의 목격 정보가 들어오고 있어, 구의 담당과는 대응에 쫓기고 있다.

【두 명의 신】

옛날옛날 어떤 곳에 두 명의 신이 있었어요.
하나는 상냥하고 태양 같은, 낮의 천둥의 신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오만하고 폭풍 같은 밤의 천둥의 신이었어요.

어느 날, 밤의 천둥의 신은 낮의 천둥의 신에게 말했어요.
「나와 너, 어느 쪽이 강한지 승부다.」
「그럼, 신을 모시는 신전을 세워 사람들을 잔뜩 모은 쪽이 이긴 것으로 하죠.」
이렇게, 두 명의 신은 승부를 하게 되었어요.

밤의 천둥의 신은 자신의 힘을 써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잔뜩 일을 시켰어요.
「알겠나, 내 쪽이 강하다. 나에게 거스른다면 큰코다치게 될 거다.」
번쩍번쩍황 번쩍번쩍황 찌릿찌릿찌릿!

그 때, 커다란 소리가 나 주위가 번쩍번쩍 빛났어요.
너무 높은 신전을 만들어서 밤의 천둥의 신이 세운 신전에 벼락이 떨어지고 만 것이예요.
활활활 홀륭한 신전은 순식간에 타버리고, 마침내 사라져 없어지고 말았어요.

「뭐야, 타버렸잖느냐. 너, 별 거 아니구나.」
사람들은 신전을 잃은 밤의 천둥의 신에게서 떨어져,
상냥한 낮의 천둥의 신에게로 모이게 되었어요.

번쩍번쩍황! 번쩍번쩍황!
이렇게, 오만한 밤의 천둥의 신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입원 환자 14명의 시체】

입원 환자 14명의 시체가 발견된 장소와 입 안에 들어있었던 메모의 내용.

1 : 선샤인 수족관 (토시마 구)

곧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솟아올랐다.

2 : 피해자 자택 현관 앞 (후추 시)

고통을 덜려고 몸을 뒤척이는

병든 여자와 하나도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3 : 도쿄 스카이트리 꼭대기 (스미다 구)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빨리 그곳을 떠났다.

4 : 양로원 「유타카소」 (스기나미 구)

이를 지켜보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셨다.

5 : 피해자 자택 자신의 방 (노다 시)

그들이 불 속에서 타야 하는 한 계속해서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았다.

6 : 헤이와지마 간이 휴게소(상행) (오오타 구)

다른 영혼 때문에 자네 왕국이 방금 요동을 쳤네.

그를 하늘로 놓아 주려고 말일세.

7 : 피해자 자택 자신의 방 (나카노 구)

하느님의 최고 법은 깨질 것입니다.

(이하, 유사한 보고)

【국회의사당의 변사체】

지요다구 나가타초의 국회의사당 현관 위쪽에 앉아있는 형태로 발견되었다.

시체의 포즈는 로맹의 「생각하는 사람」과 비슷하고, 입원 환자의 시체와는 다른 종류라고 생각된다.

얼굴을 포함한 전신의 피부와 지문이 벗겨져 있고, 치아가 전부 뽑혀있는 등 손상이 심하다. 국회의사당의 기둥에는 피해자의 피로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라고 쓰여있었다.

【단테 알리기에리】

1265년 ~ 1321년. 피렌체(이탈리아) 출신의 시인, 철학자, 정치가. **이탈리아 문학 최대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서사시 「신곡」의 작가.**

단테 자신은 「이탈리아 문학 최대의 시인」 「이탈리아어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고 있다.

【베르길리우스】

기원전 70년 ~ 기원전 19년 즈음의 인물. 라틴 문학의 황금기를 쌓아올린 라틴어 시인 중 하나로, 유럽 문학사상, 라틴 문학에 있어 가장 중시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후세에 큰 영향을 끼쳐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의 시를 스스로의 근원이라고 칭하고 있다. 「신곡」에서는, 지옥을 헤매는 단테의 스승 겸 안내역으로서 등장한다.

【단테의 생애】

단테는 정치가로서 피렌체에 그 몸을 바칠 생각이었으나 정쟁으로 인해 짓지 않은 죄에 몰려 고액의 벌금을 내고 2년 간 피렌체에서 추방될 것을 선고받았다. 벌금 지불을 거부한 것으로 인해 자신의 용의를 인정하는 형태가 되어, **1302년, 고향 피렌체에서 영구적으로 추방된다.**

어두운 숲에서 시작하는 「신곡」의 서두는 현세에서의 실추를 떠올리게 하고, 단테가 실제로 당한 배신과 굴욕, 그리고 사랑하는 고향에 대한 향수가 「신곡」의 밑바탕에 있다고 한다. 방랑의 여행 끝에 대작 「신곡」을 써내나 말라리아에 걸린다. 타향인 라벤나에서 잠든다.

【신곡】

단테가 만들어낸 장편 서사시.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의 3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계 14,233행에 달하는 초대작. 1307년 쯤부터 쓰기 시작하여 죽기 직전까지 집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전승, 서사시, 신학 등 광대한 지식을 기본으로 하여 명쾌하게 사후의 세계를 제시하고 실재했던 인물이 작품 내에 등장하는 것이 특징.

라틴어가 아니라 널리 쓰이고 있었던 토스카나어(단테의 모국어이자 방언)로 쓰인 것도 널리 읽힌 이유로 꼽히며 이후 이탈리아어라고 불리는 언어의 기본이 되었다고 한다.

로맹과 미켈란젤로를 비롯하여 후세의 많은 예술가·문학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신곡의 구성】

「신곡」은 내용 뿐만 아니라 치밀하고 아름다운 구성으로 되어있다는 점 역시 높이 평가된다.

- 3부 구성이다.
- 지옥편(서곡 1곡+33곡), 연옥편(33곡), 천국편(33곡)으로 합계 100곡으로 구성되어있다.
- 3편의 시를
- 합치면 14,2”33”행이 된다.
- 3행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3운구법」의 수법을 취했다.

기독교에서의 「삼위일체」, 「3」의 성수(聖數)를 기조로한 균형 잡힌 구성으로 흔히 고딕 양식의 대성당에 비유된다.

【신곡의 스토리】

저자와 같은 이름인 단테가 주인공이 되어 지옥, 연옥, 천국의 세계를 돌아 신을 보기까지의 7일간에 대한 이야기. 주인공인 단테는 지상에 돌아온 후 이 작품을 써냈다고 한다. 여로의 안내인으로서, 지옥편과 연옥편에서는 라틴어 시인인 베르길리우스가, 천국편에서는 운명의 숙녀·베아트리체가 등장한다.

【신곡 - 지옥편의 개요】

어두운 숲을 헤매는 단테의 앞에, 시인이자 스승이기도 한 베르길리우스가 나타난다. 성모 마리아와 베아트리체의 부탁으로 왔다고 하는 베르길리우스와 함께 단테는 지옥의 문을 넘는다. 지옥은 죄에 따라 9개의 계층으로 나뉘어, 실재했던 사상가나 정치가가 영원한 벌을 받는 묘사가 이어진다. 최하층에서 악마 대왕(사탄)을 본 뒤, 단테는 지옥을 빠져나와 연옥으로 향한다.

【신곡 - 연옥편의 개요】

영원한 시련을 받는 지옥과는 달리, 연옥은 생전의 죄를 씻어내는 것이 가능한 자들이 찾아오는 장소다. 7개의 대죄에 따라 나뉜 길을 나아가 단테는 연옥산의 정상에서 베아트리체와 재회한다.

【신곡 - 천국편의 개요】

베아트리체를 안내인으로 하여 단테는 하늘로 올라가 열 개의 하늘을 돌며 성인, 황제, 학자의 영혼과 문답을 거쳐간다. 신이 앉아 있는 제10천 「지고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성모 마리아로부터 최상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받는다. 그리고 단테는 하늘의 최상층에서 신의 모습을 직관하고, 만물을 움직이는 신의 사랑을 이해한다.

【지옥의 구조】

- 제1층 변옥(림보) : 세례를 받지 않은 자가 영원히 시간을 보낸다.
- 제2층 색욕 지옥 : 육욕의 죄를 범한 자가 사나운 폭풍에 휩쓸려간다.
- 제3층 폭식 지옥 : 대식의 죄를 범한 자가 케르베로스에게 갈가리 찢겨 진창에 킁군다.
- 제4층 탐욕 지옥 : 인색과 낭비의 악덕을 쌓은 자가 무거운 금화 주머니를 굴리며 서로를 욕하고 저주한다.
- 제5층 분노 지옥 : 미친듯이 분노한 자가 핏빛 스틱스 강에서 서로를 괴롭힌다.
- 제6층 이단 지옥 : 온갖 종파의 이단 교주와 신도가 화염의 무덤 구멍에 매장된다.
- 제7층 폭력 지옥 : 타인이나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른 자가 폭력의 종류에 따라 벌을 받는다.
- 제8층 사기 지옥 : 기만의 죄를 저지른 자가 각각 열 개의 구렁으로 나뉘어 벌을 받는다.
- 제9층 배신 지옥 : 무엇보다 무거운 죄, 배신을 행한 자가 영원히 차갑게 얼어붙어 있다.

【최후의 13곡】

단테를 숭배하고 있던 문학자 조반니 보카치오에 의하면, 단테의 사후, 천국편의 제20곡 이후의 원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미완의 「신곡」을 완성하기 위해 단테의 자손들이 이어서 집필하고자 하나, 아들의 꿈에 단테가 나타나 숨겨진 장소를 가르쳐준다. 꿈에서 깨어 숨겨진 장소를 찾아보니 확실히 빠져있던 천국편의 13곡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신곡」은 완성되었다, 라는 에피소드가 남아있다.

【산드로 보티첼리】

르네상스 시대(15세기)의 피렌체(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화가. 명확한 윤곽선을 그리면서도 섬세하고 우아한 선묘 화법을 썼으며 당시의 권력자였던 메디치 가의 아래, 일선에서 활약한다. 대표작으로 「봄(프리마베라)」, 「비너스의 탄생」, 「동방 박사의 경배」 등이 있다.

【보티첼리의 「지옥의 지도」】

보티첼리가 그린 단테의 「신곡」의 삽화.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각각의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 중에서도 「지옥의 지도」가 유명한데, 지옥을 바로 옆에서 단면도로 묘사한 예는 보티첼리 이전에는 없었으며 또한 누구나 지옥(사후 세계)을 상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었다.

「신곡」의 삽화는 90장 이상이 현존하고 있으나, 채색까지 한 것은 불과 몇 점밖에 되지 않는다. 베를린 미술관과 바티칸 도서관이 소장.

【오귀스트 로댕】

19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 조각가로, 「근대 조각의 아버지」라고 칭해진다. 「실제 인간의 본을 뜬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을 정도로, 지극히 치밀하고 리얼한 작품을 만드는 기술력을 가졌다. 단테의 열렬한 애독자였으나 스스로 테마를 고른 「지옥의 문」은 미완인 채로 끝났다.

【로댕의 「지옥의 문」】

로댕에 의해 만들어진 브론즈상.

프랑스의 국립 미술관 건설에 따른 의뢰로, 로댕은 「지옥의 문」을 테마로 설정했다. 그러나 대작품의 구상은 끝나지 않았고, 의뢰로부터 8년 후에는 미술관의 건설 자체가 좌절된다. 「지옥의 문」도 제작 중지 명령이 떨어졌으나 로댕은 이것을 사들여 죽을 때까지 제작을 계속했다. 로댕의 사망에 의해 작품은 미완인 채로 끝난다.

현재, 세계에 7개의 주조 작품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도쿄도의 「지옥의 문」은 세계에서 최초로 주조된 것이다.*

* 번역하며 찾아보니 마츠카타의 의뢰로 주조된 청동상은 최초는 아니라는 정보가 많네요. 1926년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의 의뢰로 만들어진 것이 최초라고 합니다.

- 국립 서양 미술관 (도쿄도)
- 시즈오카 현립 미술관 (시즈오카현)
- 로댕 미술관 (파리)
- 쿤스트하우스 (취리히)
- 로댕 미술관 (필라델피아)
- 스탠포드 대학 (미국)
- 로댕 갤러리 (서울)

【생각하는 사람】

로댕에 의해 만들어진 브론즈상. 사색에 빠진 인물을 묘사하고 있다.

독립된 작품으로써 알려져 있으나 원래는 작품 「지옥의 문」을 구성하는 군상의 하나이자 문의 정상 부분에 장식된 것이다.

모델에 대한 설은 여러 가지 있는데, 단테가 명상하고 있는 모습, 로댕 본인을 표현한 것, 「단테」로부터 「명상하는 인간」으로 이미지가 보편화되었다, 등이 있다.

【베아트리체】

이탈리아어권 여성의 이름으로, 단테가 9세 쯤에 만났던 운명의 소녀. 이후로 9년의 시간을 거쳐 18세에 재회하나,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향한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녀는 24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다. 그를 슬퍼하며 탄식한 단테는 시집 「새로운 삶」을 엮어내고 「신곡」에서는 천국의 안내인으로 등장시켰다.

실재했던 인물을 모델로 하면서도 「영원의 숙녀」, 「이상의 여성」으로 상징화·신성화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 연령에 3의 배수(성수)가 많이 쓰인 것으로부터. (* 그렇기에 베아트리체가 이상의 여성이라는 뜻)

【삼위일체】

기독교에서 중요한 교의의 하나.

아버지(신), 아이(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세 개체는 개별이자 동일한 존재이며 세 개체가 합쳐져 하나의 신이 된다는 생각. 이것에 기초하여 기독교에서 「3」은 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숫자가 되어 성경과 회화에도 모티브로 다수 도입되었다.

【피타고라스】

기원전 6세기 경의 인물이자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철학자.

「만물은 수(數)다」라는 말이 나타내듯, 각종 사상에는 수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수와 계산에 따른 법칙성을 발견했다.

크로토네(남 이탈리아)에서 수학·음악·철학의 연구를 하는 「피타고라스 교단」을 창설했으나 이 교단은 결사들 외의 사람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는 비밀주의로, 피타고라스 자신도 수수께끼가 많은 인물이다.

단테는 자신의 저서인 「향연」, 「제정론」에서도 반복하여 피타고라스에 대해 언급하며 「신곡」에서는 작품 전체에서 삼위일체를 표현한다. 이것을 보면 단테가 얼마나 「수」를 중시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별들의 아이】

「두 명의 신」의 작자가 쓴 다른 작품. 북유럽에 전해지는 신과 신앙심을 잃지 않는 것을 향한 교훈, 이웃을 상처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적혀있다.

인간을 사랑하고 있던 어떤 신은 자신의 아이를 인간계로 보내 여행하게 했다.

신의 아이는 인간에게 환영받았고, 예쁜 옷, 모피, 장식을 받아 두른 그 모습은 별들과도 같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신의 아이는 나쁜 인간에게 붙잡혀버린다.

나쁜 인간은 신앙을 게을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신의 아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예쁜 옷과 돈을 빼앗겨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고, 아름다운 모습은 불품없이 사라져버렸다.

인간의 무례함을 알게 된 신은 격노하여 그 지방에 사는 인간 모두를 천재지변으로

멸망시켜버렸다.

【23년 전의 변사 사건】

23년 전, 신희 여행으로 영국을 방문한 일본인 부부 중 여성 쪽이 시체가 되어 발견되었다. 시체의 발견 장소는 부부가 숙박하고 있던 호텔의 옆방으로, 사건 당시에는 빈 방이었다. 여성의 복부는 안쪽에서부터 파열된 형태로 크게 찢어져 있었으며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현지 경찰은, 피해자 여성의 남편에게 사정을 묻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부의 이름과 그 후의 수사에 관한 자료는 일체 발견되지 않는다.)

【시체의 보고서】

피해자는 TV 방송국의 유명 프로듀서, 거물 무대 배우, 국회의원으로 3명. 모두 남성.

한 명은 TV 방송국이 있는 초고층 빌딩의 옥상에서, 한 명은 바다 앞 절벽에서, 한 명은 자신의 개인 제트기 좌석에서, 모두 양손을 말뚝으로 관통당해 책형을 당한 상태로 숨이 끊어져있었다.

세 명 모두 뇌가 절개되어 있었으며 잘린 자신의 음경이 뇌에 꽂혀있었다.

세 시체의 바로 옆에는, 「meditati」라는 피 문자가 크게 쓰여있었다.

【르뤼에 문서에 관한 자료】

추정 기원전 300년 경의 서적.

오리지널의 점토판으로부터 중국어판, 이탈리아어판, 독일어판 등 다수의 사본이 만들어졌으나 모두 오리지널에 비하면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대부분은 위대한 크툴루를 중심으로 그 권속과 바다의 관계, 이계의 것을 소환하는 주문 등이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어판에 대해서는 14세기에 마르코 폴로가 중국으로부터 2차 사본을 가지고 와 이탈리아어로 번역하게 한 후 그것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소지하고 있었다는 설이 있다.

【월간 오컬트 잡지 「무」】

외계인의 기술에 관한 특집호.

지정한 구역의 시간을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한 상자가 있다는 것 같다. 장치 자체는 소형으로, 휴대도 가능하다고 한다. 구역 외에서 몇 년이 경과하든 내부에서는 1초라고밖에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우수한 물품.

개체에 따라 옵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작동하고 있는 동안은 시공의 차가 생겨나고, 그것을 외부에서는 인식할 수 없다는 효과도 있다.

【구생회(九生会)】

적어도 30년 전부터 존재해온 신흥 종교 집단.

시련을 이겨냄으로써 「지고천」이라는 천국으로 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념을 가진다. 가톨릭계이면서 「현세에 집착하지 않는다(나쁜 감정을 버린다)」는 불교와 닮은 이념을 기본으로 하여 독실한 신자를 거느리는 한편, 그 실패는 다단계와 사기를 통해 활동 자금을 늘리고 있는 조직이다. 회원 수는 20만명 정도라고 하나 정치가와 연예계와도 관계가 깊고, 수수께끼가 많다.

【앙케이트 용지】

Q 최근, 고민하고 있는 것이나 곤란한 일이 있습니까?

- Q 살아가는 것이 괴롭고, 죽어버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 Q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Q 후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Q 당신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 Q 당신에게 있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시노소글리스】

고대 이탈리아에서 숭배되었다는 여신.

이 장례의 신에게 매료된 자는 자기자신의 종언을 보여주는 환각과 백일몽을 겪은 후 냉정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인다. 즉 그녀를 숭배하는 자는, 안온한 죽음을 원하여 그녀를 강림시킨다. 그 힘은 신에게마저 죽음을 준다고 하여, 당은 자를 평등하게 안녕한 죽음으로 이끄는 자비 넘치는 신이다. 그녀가 찾아오는 전조로는 짙은 안개의 발생이 있다.

시노소글리스의 강림을 위해서는 검은색의, 예를 들자면 비석과 같은 오브제를 매개로 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강림 방법은…… (이하, 거의 검게 칠해져 있어 해독 불가)

【위대한 신, 판】

풍요와 생명을 관장하는 신. 판의 은총을 받은 자는 풍요와 부유로써 축복받고, 판의 분노를 산 자는 대폭풍이나 자연재해를 통해 그 흉폭한 분노에 휩싸인다. 판은 때로는 인간 여성과 성교하는 경우가 있으며 희생자는 완전히 광기에 빠지지만 매우 아름다운 아이를 낳는다.

판의 아이들은, 다른 이들을 광기와 자살로 이끄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시체의 보고서 ②】

피해자는 대형 부동산 회사의 사장과 임원 세 명.

세 명 모두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짐승(개과인가?)에게 몸을 물어뜯긴 흔적이 보인다. 또한 양손을 말뚝 같은 것으로 관통당해 책형을 당한 형태로 숨이 끊어져있었다.

세 명 모두 자신의 위가 입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나 검시 결과 위의 절제는 사후에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세 시체의 바로 옆에는, 「meditati」라는 피 문자가 크게 쓰여있었다.

【단테의 유고 : 시노소글리스의 송환】

시노소글리스의 정신력은 150, 송환의 길을 열기(5%) 위해서는 마력이 6 필요하다.

그 이후로는 마력 1마다 송환의 성공률이 5% 상승한다.

※ 송환을 자동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마력이 $6 + 19 = 25$ 필요하다.

※ 주문의 습득에는 <지능×%> 판정*에 성공할 필요가 있다. 이 메모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미습득이어도 주문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미습득자도 마력 부담에는 참가할 수 있다.

* 7판 컨버트 시 어려운 성공 판정

해당 링크에서 자료 다운로드(한국어판)가 가능합니다. ▶  단테의 심판 배포_자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Booth 다운로드판의 구성과 동일)

■ 양케이트 용지

Q 최근, 고민하고 있는 것이나 곤란한 일이 있습니까?

Q 살아가는 것이 괴롭고, 죽어버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Q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Q 후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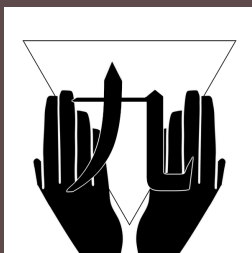
Q 당신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Q 당신에게 있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 타이틀 로고 (투명화)

ダンテの審判
Dante's Judgment

■ 구생회 로고



■ 간이 연표

혹은 스프레드시트에서 보셔도 됩니다.  단테의 심판 간이 연표(kor)

	참사자	숨마누스	단테 알리기에리	마키아 코이치	니노치와 슌	우에하라 겐조, 유카와 무즈키	구생회	블라인드 생명
신의 시대		늑신 유프테르와와 싸움에서 패배해, 속세(인간)계에서 망명을 시작한다.						
기원전 6세기 경		피타고라스로서 활약.						
1302년		단테와 만나다. 이후 친구로서 친분을 쌓는다.	피렌체 추방. 숨마누스와 만나다.					
1307년			「신곡」 집필 개시. 「로복의 운사」 번역에 관여한다.					
1312년		단테의 임종을 지키고 다스릴 방향의 여행에 나선다.	숨마누스에게 유고를 맡기고 라벤나에서 잡는다.					
WW II 전		단테의 유고와 함께 잡혀 온다.					팩트지 발족. 이들과 조직을 바꿔 신하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확대.	
WW II 후								
23년 전				야츠나가 부부의 신혼 여행 중. 핀의 아이로 탄생.				
8년 전				알미에니의 성직 학대로부터 코크와 반생. 구생회에 접촉.		가스파르 사건으로 유카와 소타로 제프.		
1년 전 5월						무즈키: 감찰청 · 도코지 감을 해킹. 정보 누설 사건으로.		
2개월 전		모에서 눈을 뜬다.					베를린 대학에서 지옥의 식물 종자 실험. 시노스글리스 강립 준비 개시. 일원 한자 연속 실험시간 발을 개시.	존: 여러 명이 함께 구생회에 가입. 다른 자는 포획되고, 형지의 입방체를 빼앗긴다.
1개월 전							야생 동물의 번식제 개발.	
3주 전		일본 방문.		시노스글리스 강립 준비를 진행한다.				
발사 0일자 날 10월 28일 (진국편)	마키아 코크하와 의 해후.			PC2에 의뢰. 이후 신곡 살인사건을 진행한다.				존: 포박된다.
발사 0일자 날 10월 28일 (진국편)	숨마누스와 의 해후.	블라인드 생명 접촉. 참사자와 의 해후. 이후 동행.					일원 한자의 시체가 발견되기 시작한다.	사토: 단테의 유고의 흔적을 찾아 숨마누스에게 접촉.
발사 1일자 날 10월 29일 (진국편)	도시락, 경합서 등 합체. 우에하라 지맥에서의 조사. 펜타곤 접촉.				「국회의 사담의 편사제」의 수사. 이제지마 전 총리와 가스파르 사건의 관련을 알아차린다.	무즈키: 참사자와의 해후. 펜타곤 접촉.		펜타곤: 단테의 유고의 흔적을 찾아 우에하라 지맥을 방문한다.
발사 1일자 저녁 10월 29일 (진국편)	우에하라 겐조와의 해후.					겐조: 참사자와의 해후.		펜타곤: 우에하라 지맥에 단테의 유고자 있다는 것을 동료에게 공유.
발사 1일자 날 10월 29일 (진국편)	우에하라 지맥에서의 합체.					겐조: 유고의 해독 개시.		
발사 1일자 심야~새벽 10월 29일 (진국편)				코크하의 학대를 남길 수 없어 충동적으로 망친 상태. 《관문 생성》으로 코크하를 집 밖으로 보내버린다.		겐조: 유고 일부를 번역. 보철으로 막기에 알린다. 취침.		
발사 2일자 아침 10월 30일 (진국편)	원공복에서 코크하를 보호.	참사자와 개별 행동.				「구생회」에 단독 가입. 인제 실험을 당한다.		존: 고문 끝에 우에하라 지맥에 단테의 유고자 있음을 자백.
발사 2일자 저녁 10월 30일 (진국편)	「구생회」의 세리나에 참가.	「구생회」의 습격을 받아 기역을 되찾는다.			참사자와 제피.	구생회의 습격을 받는다.	세리나를 만난다. 다른 부대가 우에하라 지맥을 습격.	펜타곤: 우에하라 지맥 감시 중 이반을 감지. 코크하 구출.
발사 2일자 날 10월 31일 (진국편)	우에하라 지맥에서 화재를 폭력.					겐조: 사망.		
발사 3일자 아침	병원에서 눈을 뜬다.	참사자와 동행.		우에노 공원에서 시노스글리스 강립 준비를 진행한다.		무즈키: 병원에서 눈을 뜬다.	우에노 공원에서 시노스글리스 강립의 준비를 진행한다.	펜타곤: 참사자와 동행.

すすす 님의 단테의 심판 관련 후세터 모음은 이쪽 ▶ <https://min.together.com/UqYOXq8>

후세터는 본문에 첨부된 일부 중요 사항을 제외하고는 번역하지 않았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Q&A 후세터 (260706 시점)

원문: <https://fusetter.com/tw/sHEESyJb#all>

* 해당 Q&A를 기반으로 2025-01-28에 원문 pdf가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업데이트 내역을 기재한 라이터 님의 또다른 후세터는 다음 탭에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Q&A 내용을 읽은 뒤에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1. 니노미야의 사망 플래그에 대해

『가스파르 사건이 누명이다』라는 플래그가 선 경우 니노미야는 반 좀비 → 생존이 되는 걸로 쓰여있는데, 이 플래그의 유무에 따라 니노미야의 생존 여부가 갈리는 이유를 시나리오를 읽어보아도 모르겠습니다…….

이 플래그의 유무에 따라, 니노미야의 행동이 변하거나 하는 건가요?

A1. 엄밀하게는, 「누명 플래그를 세웠다 = 정보를 공유해줌으로써 니노미야의 화를 조금이나마 가라앉힐 수 있었다」는 사실이 분기점이 됩니다.

니노미야의 상세한 행동 스케줄은 없습니다만, 그 후에

시도 「어찌됐든, 자네는 조금 쉬는 게 좋아. 인간은 지쳐있으면 주변이 잘 안 보이게 되거든.」

니노미야 「……그렇네요. 그래도, 이야기하니까 조금 진정됐어요.」

라고 이어지듯이, 다소 냉정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 좀비 상태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도 외과 수술을 받은 뒤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누명 플래그를 세우지 않으면 분노한 채로 구생회 본부로 가게 되므로 잠입·화술 등으로 시간을 끌지 못하고 붙잡혀 버립니다.)

Q2. 최종전에 대하여

영창자가 기절 or 사망한 경우, 주문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쿄이치와의 POW 대항에 의해 광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영창 중단이 되어버리는 건가요?

광기 내용에 따라서는 영창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감이 있었어서 라이터 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A2. 인식하고 계신 대로, 영창자의 광기 내용에 따라서는 영창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냉정하게 주문을 뒀 수 없어졌다」는 시점에 영창이 중단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 탁에서는 영창자가 쿄이치의 타겟이 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만, 혹시 타겟이 된 경우에는 다른 PC가 「감싸기」가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탁에서는 행동 종료 후에도 <민첩>으로 「감싸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KP의 하우스룰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상해보자면, 쿄이치의 시선 틈으로 끼어드는 느낌)

Q3. 코코하가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건 어째서인가요? 시간선을 알려주세요.

A3. 모친이 코코하에게 분노하여 밀친다 (이 때 머리를 부딪쳐 출혈·기절) → 쿄이치가 분노하여 충동적으로 모친을 살해 → 부친도 살해 → 「차라리 코코하도 죽여줄까…」라는 생각이 들어 피투성이의 손으로 목을 조르려고 함 → 갈등이 생겨나 단념 → 코코하를 지켜줄 수 있도록 지옥의 사냥개를 붙여 문으로 도망치게 함 → 코코하가 사라진 후에 신곡 살인사건의 시체로 위장합니다.

쿄이치는 이 후에 코코하를 회수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한계점에 달해 충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Q4. 켄조의 저택에서 유고가 불타버렸나 했더니 역의 락커에 있었다는 것은 어떤
경위로 발생한 걸까요?

켄조가 유고를 밖으로 가져가는 것을 숨마누스가 놓쳤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주문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질문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 여쭙습니다.

A4.

- 클라인 생명 이외의 조직에도 자택의 장소가 알려져 있을지도 모른다
- 숨마누스는 자신의 협력자를 과신한다 (탐사자 포함)
- 숨마누스는 유고의 내용을 보면 컨디션이 나빠진다 (심리적 이유)
- 켄조는 전 탐사자이기에 교섭에 능하다

이러한 사항들을 이용해, 숨마누스에게는 비밀로 켄조가 물리적으로 슬쩍 빼내어 가지고
나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숨마누스와 함께 밤을 새며 양피지를 해독 (켄조도 초인이나 만능은 아니며 귀국
직후이기에 쉬엄쉬엄했고, 명료하지 못한 부분은 숨마누스에게 확인을 해가며 진행)

→ 한순간이라도 좋으니 숨마누스를 자리에서 이탈시킴
(「유고를 슬쩍하고 싶으니 숨마누스의 상태를 걱정하여 조금 쉬도록 교섭합니다」 같은
선언으로 마이너스 보정이 붙은 <설득> 판정을 거쳤다는 이미지)

→ 진짜 유고를 자신의 가방에, 가짜 유고(이것도 굉장히 가치가 높은 누군가의
원고입니다만...)를 금고에 넣음

이때, 가짜 유고를 박엽지(* 고문서 보존 용으로 사용된 얇은 종이)로 감싼 상태에서 「다음 해독은 내일
하자. 양피지는 금고에 엄중하게 보관해둘게.」 같은 말을 해서, 의도적으로 숨마누스의 눈앞에서
잠금을 걸어둡니다.

→ 새벽, 「몸이 좀 빠근해서 산책 다녀올게. 또 수상한 사람이 올지도 모르니까 집 지키는 건
부탁해.」 같은 말을 하여 진짜 유고와 함께 가벼운 차림으로 외출. 역의 락커(사람들이 오가기도
하며, 소화 설비도 있다)에 유고를 맡기고 귀가, 취침. (만약을 위해 락커에는 《육체 보호》의
주문 같은 것을 걸어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술자의 사망과 함께 사라집니다.)

숨마누스를 마술로 어떻게 해보는 편이 빠르지 않냐는 질문에는, 「인외의 숨마누스를
자극했다가는 적대당할지도 모른다」

숨마누스를 설득 또는 《시노소글리스의 송환》에 대해 설명해주는 편이 좋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기억을 되찾은 숨마누스가 탐사자 측에 붙는다는 보장이 없다」
적어도 탐사자에게는 제대로 알려주어도 좋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최악의 경우 돌아선 숨마누스 or 누군가가 고문을 하거나 주문을 사용해 탐사자에게서 유고의 내용을 유출시킬 수 있다」

...와 같은 것들을 켄조가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마술의 존재를 알고 있는 그는, 자신조차 신용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이 진정되면 곧바로 유고를 회수, 숨마누스를 잠시 떼어둔 뒤 자택 이외의 장소에서 탐사자에게 《시노소글리스의 송환》에 대한 것을 공유했을 것입니다. 구생회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성급했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숨마누스가 원고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놓칠 리가 없다」는 말을 들어버리면 거기까지이긴 합니다만.....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참고로, 테스트 플레이에서는 탐사자의 취침 중 <듣기>의 어려운 성공 판정으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다거나, 숨마누스나 무츠키에게 물어보아 켄조가 새벽에 외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시다만, 턱에 따라서는 PL이 그것을 과하게 신경 쓰거나 우에하라 가에 사는 사람을 의심하거나 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내놓을 정보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2025-01-28 갱신 수정판에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Q5. 유고를 지키고 싶은 거라면, 락커보다는 자신의 자택에 있는 금고가
안전해보이지 않나요?

A5.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유고를 집에서 이동시킨 것은, 추적자가 왔을 때의 보험용입니다.

「매우 엄중한 금고를 켄조와 숨마누스가 목숨을 걸면서까지 감췄고, 그 금고를 억지로 열어보니 낡은 종이 다발이 들어 있었다」라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종이 다발은 정말로 단테의 유고인가?」라고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했습니다.

역으로 말해보자면, 켄조는 숨마누스와 탐사자마저 속임으로써 자신의 집과 무츠키 및 코코하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할 만한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츠키 군, 미안하구나.」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시노소글리스의 강령을 멈추기 위해서였는지, 혹은 「단테의 유고를 읽는다」는 문화적 손실에 천칭이 기울었기 때문이었는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Q6. 사건 해결 후, 무츠키는 자수를 생각하나요?

A6. 무츠키는 나쁜 방법(사이버 공격)을 사용한 자각은 있습니다만, 숨겨진 악을 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바라지 않고,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에 자수는 하지 않고, 클라인 생명 보험 회사에서 일하게 됩니다.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좋은 곳에 사용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7. 연옥편 뒷골목에서의 해후에서,

숨마누스의 입가가 붉게 물들어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만, 쓰러진 남자에게는 외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입가가 붉게 물들어있던 건가요?

A7. 복부를 찔린 것에 의해 피를 토했기 때문입니다.

Q8. 니노미야의 POW

개요에서는 정신력 55(=마력*5) / 마력 11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연옥편의 전투 장면에서는 마력 14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올바른 것인가요?

A8. 니노미야의 정신력은 정확하게는 55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실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2024-05-25 갱신판에서 수정 완료)

Q9. 어떻게든 같이 시나리오를 가고 싶은 탁 멤버가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3PL이지만, 2PL + KPC로 돌려도 될까요?

A9. 시나리오의 본질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Q10. 경찰 HO를 그 외의 직업으로 변경하거나, 전원을 경찰 관계자로 해도 될까요?

A10. 시나리오의 본질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Q11. 천국편의 숨마누스의 대사에 「……단테여, 너는, 스스로의 손으로 최후의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쓰여있습니다. 어째서 교이치를 단테라고 부르는 것인가요?

A11. 숨마누스는 쿄이치와 마주하며, 추억 속의 단테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단테, 너는 시노소글리스를 강림하고 싶었던 것인가?」

「단테, 너는 자신을 추방한 세계를 원망하고 있었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 자신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인 것인가?」

그때, 숨마누스는 친우의 의도를 알 수 없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Q12. 과거 숨마누스는 진짜 단테와 만나 그를 어떻게 생각한 것인가요? 그는 시나리오 내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A12. 숨마누스는 단테의 친우였습니다.

활발하고 정의감 있는, 시와 노래를 사랑하는, 박식하고 사려 깊은 단테를 마음 깊이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 의 후세티도 참조해주세요.

<https://fusetter.com/rw/Vrsi2zs3#all> (* 아래 박스에 번역)

숨마누스의 이름과 펜타곤의 본명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지 싶었지만 꼭 알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기 때문에
생각해보았습니다

■ 펜타곤

본명 대릴 랑글레 (Darryl·Langlais)

프랑스계 미국인.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일본어를 숙달하였으며 그 외 이탈리아어,
튀르키예어도 조금 할 줄 압니다.

대릴 : 옛 프랑스어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랑글레 :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가리키는 단위 (* langley)

사실은 기혼자이며 딸과 아들이 있다는 설정입니다만, 현재도 만나고 있는지, 애초에
살아있기는 한 것인지는 불명. 그가 클라인 생명에 소속되어 있는 것에도 우여곡절, 다양한
과거가 있었던 것이 틀림 없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돌싱인 편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래 봐도 재주는 많지만 오히려 그래서 대성하지는 못한, 고생이 많은 사람. 사축. 첫인상에 비해 의외로 인기 있다.

■ 숨마누스

단테 알리기에리와 지내던 시절의 이름은 테오필로. 애칭은 테오.

성격은 정반대지만 굉장히 사이가 좋고, 숨마누스에게 이름을 붙여준 것도 단테.

자신에게 수비술을 가르쳐준 보답으로 「신의 선물, 신에게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를 담았다는 것 같다.

신에게 사랑받는 것은 단테 쪽입니다만

숨마누스=피타고라스 라는 것을 알게 된 단테는 크게 기뻐하며 사흘 밤낮을 미친 듯이 춤추었다고 한다

단테와 숨마누스는 평생 친구 - 함께 드림랜드를 거닐었던 사이

저는 둘도 없는 친구 관계에 아주 약합니다

일단락되면 라벤나의 단테의 묘로 성묘를 가고 싶어합니다

사실은 단테의 유골과 함께 피렌체로 돌아가고 싶어하지만요. 언젠가 이뤄지면 좋겠네요

Q13. 연옥편에서 【탐사자들이 「구생회」에 관한 문자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을 경우】 ,

펜타곤으로부터 「구생회, 맞지?」라고 힌트를 주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PC들이 이미 구생회에 대해 조사했을 경우 어떤 식으로 구생회의 화제를 꺼내야 할까요?

A13. 탐사자가 「구생회」의 정보를 획득했든 아니든 「구생회, 맞지?」의 힌트는 묘사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펜타곤은 「구생회」를 알고 있어~ 같은 냄새를 풍길 수 있음) 물론 반드시 묘사할 필요는 없고, 실제로 제가 KP일 때 「구생회, 맞지?」를 묘사하지 않은 턱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구생회」의 문자 정보를 입수하지 않은 채 우에하라 저택까지 진행한 경우에는, 「구생회, 맞지? ……어이쿠, 이건 말하지 말았어야 하나…」와 같이 보란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PC・PL에게 「구생회가 뭔데!!? 말하라고!!!?」 같은 생각이 들게 만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Q14. 시나리오의 마지막에 펜타곤이 「탐사자 군」이라고 부르는 씬이 있었던 것 같은데(그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는 뭐하는 사람일까요? 메타적인 요소라도 있는 건가요?

A14. 펜타곤은 「진실을 추구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탐사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메타적(펜타곤이 PL의 존재를 눈치채고 있음) 의도는 없습니다. PL이 웃…하는 반응을 해준다면 충분…… 정도로 저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도 신화적 사상에 너무 많이 엮인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인간을 「탐사자」와 「그 외」로 선을 그어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Q15. 어떻게 구생회와 클라인 생명은 유고의 위치를 알아내서 우에하라 가의 행적을 쫓거나, 방화하기에 이른 건지, 혹은 그 정보원은 어디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A15. 구생회의 빌딩에서 클라인 생명의 「존 애덤스」라는 인물이 고문을 당한 것으로 보였죠. 구생회는 그에게서 클라인 생명 측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구생회에게 있어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시노소글리스의 강령을 누군가 방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불을 질러서라도 단테의 유고를 처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클라인 생명의 정보원은 배후에 있는 이스인입니다.

Q16. 연옥편의 펜타곤은 어째서 무츠키를 뒤덮고 있었던 건가요? 제압하듯

쓰러뜨린 이미지였습니다만...

A16. 무츠키가 껑껑대며 달려들었기 때문에 「시끄럽네-」라며 양팔을 눌렀다(펜타곤 쪽이 훨씬 체격이 크기 때문에 선 채로 무츠키를 뒤덮는 듯한 형태로 보였다)라는 걸 의도했습니다. 묘사 부족 탓에 펜타곤이 엄청난 문제의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펜타곤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2025-01-28 갱신으로 수정 완료)

Q17. 연옥편의 우에하라 저택 화재 장면, 무츠키와의 대화에서 「저녁 썰에,

모르는 남자들이 들이닥쳐서.....」라는 대사가 있습니다만,

천국편의 병원 장면에서 숨마누스와의 대화에는 「.....모두와 무츠키가 나가 있는 동안, 처음 보는 남자들이 집으로 들이닥쳤다.」라는 대사와는 언뜻 들었을 때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츠키가 미케를 산책시키러 나가 있었다 → 구생회 신자가 집을 습격 → 무츠키가 돌아옴 → 신자가 집에 불을 지름 과 같은 느낌일까요? 아니면 무츠키가 우에하라 저택에 남아있는 방향(세미나에 잠입하지 않았다)과 탐사자들과 동행했기에 집에 없었다는 방향(함께 세미나에 잠입했다) 중 어느 쪽도 일어날 수 있다, 라는 뜻일까요.

A17. 죄송합니다 이건 묘사 실수고, 무츠키의 발언 쪽이 맞습니다.

시계열 상으로는, 무츠키가 집에 있을 때 신자가 집을 습격 → 방화 라는 흐름입니다.

추후 정오표도 갱신해두겠습니다;;

Q18. (무츠키가 탐사자의 세미나 행에 동행하는지 아닌지의 화제로부터)

연옥편 시점의 무츠키에게 자신이 직접적으로 현장에 향하는 타입의 행동력 or 복수심이 있는 것인지,

동행한 경우에는 클라인 생명의 에이전트가 가혹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아 알아도 클라인 생명 입사의 뜻을 품을 만한 강인한 마음이 있는지?

이 부분은 NPC 해석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라이터의 해석이 알고 싶다.

A18. 해킹 같은 것을 하고 있던 시점의 무츠키의 행동력·복수심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현장에 가서 실태를 지켜보고 싶은가」라고 묻는다면 그럴 정도의 용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녀는 구생회의 실태를 알고 있기에, 새삼스레 탐사자와 함께 세미나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희박할지도 모르겠네요. 코코하와 켄조도 자고 있고, 잠깐 장을 보고 오는 것 정도라면 몰라도 오후 내내 집을 비울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그러한 이유를 변명 삼아서 역시 그곳으로 뛰어들 용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큼니다.

그와는 별개로, 제가 KP를 할 때 「무츠키를 세미나에 동행시키고 싶다」고 제안을 받는다면 PL이 하고 싶은 것을 받아주고 싶기 때문에 기각은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동행했다고 친다면 에이전트의 가혹한 상황을 목격해도 무츠키는 반드시 클라인 생명에 입사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목숨을 쓸 수 있는 곳을 드디어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모든 것에 대한 속죄이자 복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그녀는 잘 언어화할 수 없겠지만요...

시나리오 마지막에 입사를 결정한 탐사자들을 상상해주시면 알기 쉬울지도 모릅니다. 가혹한 현장을 눈에 담았으면서도 여전히 소중한 것, 소중하게 여기고 싶다는 마음, 자신의 과거 등 다양한 이유로부터 그들이 클라인 생명에 입사하듯이, NPC인 무츠키도 자신을 위해 제대로, 스스로 선택합니다. 지금은 마음이 그렇게 강인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아마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4에 대해서는 시나리오 내에서 전혀 말하지 않았던 내용이기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성)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DM•마슈마로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라이터 님 트위터: https://x.com/nmnm44_9s

* 마슈마로: https://marshmallow-qa.com/nmnm44_9s

시나리오 업데이트 내역_250128

원문: <https://fusetter.com/tw/ZOOE1NnE#all>

* 해당 문서 확인의 용이함을 위해 번역 문서에 페이지 번호를 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나리오 문서는 인쇄 레이아웃 표시를 켜고 읽어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5-01-28 공개 버전에서 수정 완료

① 연옥편 P8 (번역 문서 기준 P10)

수정 전 | PL이 단테와 「신곡」에 관한 광대한 지식을 암기할 필요는 없다.

수정 후 | PL이 단테와 「신곡」에 관한 광대한 지식을 암기할 필요는 없다. 해당 사항은 PL에게 전달하는 편이 PL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② 연옥편 P19 (번역 문서 기준 P24)

수정 전 | 그리고 무츠키를 뒤덮는 것 같은 형태로 그녀의 양 손을 덥석 잡고 있는 금발의 남자가 있다. ~중략~ 새까만 정장과 오른쪽 눈의 검은 안대가 기이한 모습이었다.

수정 후 | 그리고 무츠키의 양손을 덥석 잡고 있는 금발의 남자가 있다. ~중략~ 새까만 정장과 오른쪽 눈의 검은 안대가 기이한 모습이었다. 말을 걸어보면, 그는 별반 놀란 기색도 없이 무츠키에게서 떨어지고는 뻔뻔스러운 미소를 한 채 탐사자들과 마주한다.

③ 연옥편 P19 (번역 문서 기준 P24)

펜타곤의 대사를 새롭게 추가

- 무츠키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새끼 강아지가 계속 따라 붙길래, 좀 놀아주고 있었을 뿐이야.」

④ 연옥편 P27 (번역 문서 기준 P34) 우에하라 켄조의 대사에 추가

수정 전 | 「그래서, 단테의 유고……라는 말이 있는 양퍼지, 자세히 봐도 괜찮을까?」

수정 후 | 「그래서, 단테의 유고……라는 말이 있는 양퍼지, 자세히 봐도 괜찮을까?」
「아, 물론 처음에 유고의 사진을 찍고 해독은 사진을 보면서 할게.」
「실제 유고는 금고에 보관해서 가능한 한 만지지 않도록 할 거야.」

⑤ 연옥편 P28 (번역 문서 기준 P36)

시노소글리스의 꿈 후에 묘사를 새롭게 추가

취침 중에 <듣기> 어려운 성공 판정

꿈 속에서, 작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 켄조가 유고를 반출하기 위해 외출했을 때의 소리. 이 시점에서 금고의 원고는 다른 물건으로 바뀌치기 되어 있고, 켄조는 《시노소글리스의 송환》의 번역만을 우선적으로 끝내두었다.

⑥ 연옥편 P30 (번역 문서 기준 P40)

○○의 대사를 새롭게 추가

- 켄조에 대해 (○○)

「어젯밤은 도중부터 너무 머리가 아파져서…… 나는 다른 방에서 조금 쉬고 있었다.」

「그때도 켄조는 혼자서 원고를 읽고 있었다.」

「켄조가 쉬기 전에, 바깥 공기를 쐬겠다고 말하고 집에서 나갔었다.」

2024-05-25 공개 버전에서 수정 완료

① 연옥편 P40 (번역 문서 기준 P52) 니노미야의 MP

틀린 것 | MP 14

바른 것 | MP 11